

# 산속 무녀들의 비밀

강 성훈이 Gemini 2.5 Flash와 함께 지음

2025-07-12 revision 6.1

1: 현신의 무녀.....	2
2: 자동차 무녀.....	12
3: 새로운 무녀.....	27
4: 시간의 무녀.....	40
5: 연인의 재회.....	51
6: 개발의 칼날.....	68
7: 빛의 무녀.....	80
8: 영겁의 독.....	92
9: 세상의 위기.....	100
무녀 생활 가이드.....	121
외전: 한아의 주전자.....	128
〈무녀 생활 가이드〉에 대한 서한.....	140
사용된 프롬프트들.....	142

## 1: 현신의 무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다 보면, 짙은 안개 속에 모습을 감춘 오래된 신사가 나타난다. 이곳은 지도로도 찾을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주 외딴 오지라고 하기엔 이따금씩 인적 드문 등산객의 발길이 닿기도 하는, 절묘한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 신사 주변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 경계 안에서는 신사에 소속된 무녀들이 무생물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신체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단 경계 안에서 변형된 모습은 경계 바깥으로 나가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다시 경계 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지만, 이 능력 덕분에 무녀들은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게 되었다. 생명 유지를 위한 먹고 마시는 행위나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불필요하게 된지 오래였다. 그들은 영원불멸의 존재로서 신사의 수호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이들이었다.

이 신사의 가장 깊은 비밀은 바로 신사 건물들 그 자체였다. 거대한 목조 기둥과 웅장한 지붕, 섬세하게 조각된 문양 하나하나가 실은 아주 오래전 무녀가 된 한 사람의 몸이었다. 다른 무녀들은 그녀를 큰 무녀님이라 불렀다. 큰 무녀님은 자신이 건물이라는 사실이 어린 무녀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몸 안에 분신을 따로 만들어 아바타 삼아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신은 다른 무녀들과 다른 모습으로 신사를 거닐며 무녀들을 지도했고, 신사의 모든 일을 관장했다. 이 충격적인 비밀은 신사 바깥으로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만약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기에, 신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신사 안에는 오직 무녀만이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비밀은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숨겨지고 있었다.

...

소녀는 평범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때였다. 맑은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더니, 소녀의 머릿속에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사로 오라. 너의 운명이 그곳에 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고, 소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이끌림을 새겼다. 결국 소녀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무작정 지도를 찾아 나섰다. 며칠 밤낮을 헤매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내린 끝에, 소녀의 눈앞에 안개에 휩싸인 신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신사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소녀의 온몸을 감싸는 기묘한 기운과 함께 환영의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신사에 들어서자,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이 소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소녀가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소녀를 무녀들의 거처로 안내했다. 소녀는 큰 무녀님의 분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무녀가 되겠다는 서약을 했다. 서약을 마치자마자 소녀의 몸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신성한 의식이 끝난 후, 소녀에게는 루아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루아는 다른 신참 무녀들과 함께 신사의 규칙과 무녀로서의 삶에 대해 배웠다. 그녀는 경계 안에서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변형시키는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를 나뭇가지로 바꾸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료 무녀와의 짝꿍 제도였다. 루아는 자신과 함께 외부 활동을 나갈 동료 무녀를 배정받았다. 그들은 외부 활동 시 서로의 옷으로 변형되어 한시도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옷이 되어 신체의 일부를 이루는 형태로, 두 무녀는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여야만 했다. 이는 무녀들이 외부 세계에 신사의 비밀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루아의 짝은 차분하고 지혜로운 무녀, 이슬이었다. 이슬은 루아의 검은 머리끈이 되고, 루아는 이슬의 옷깃이 되는 식으로 서로의 존재가 되어갔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의 그림자처럼 신사 안팎을 오가며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루아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sup>[1:1]</sup>

...

루아는 신사의 일상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신성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도, 무녀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유연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무녀들이 경계 안에서 자신의 몸을 변형하는 방식이었다. 단순히 동물이나 식물로 변하는 것을 넘어, 무녀들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변신해 신사 내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었다.

어느 날, 루아는 큰 무녀님의 분신과 함께 신사 깊숙한 곳에 있는 문서 보관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고서와 두루마리가 가득한 방 한쪽에서 낡은 책장 여러 개가 눈에 띄었다. 이 책장들은 다름 아닌 무녀 지수의 변신이었다. 지수는 신사의 역사와 지식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책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루아에게 얇은 책갈피로 변한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특정 서책을 찾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장 칸을 자유자재로 늘려 더 많은 책을 수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루아는 지수가 단순히 책장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책장의 구조와 수납 효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변신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는 지수의 변신이 단순한 형태 변화를 넘어선, 기능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다.

...

신사의 밤은 고요했지만, 때로는 뜻밖의 소음이 들려오기도 했다. 바로 무녀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였다. 그곳에는 명아라는 무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종종 텔레비전으로 변신했다. 루아는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산속 깊은 신사에 텔레비전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명아가 텔레비전으로 변신하면, 화면에서는 외부 세상의 소식이 흘러나왔다. 뉴스부터 드라마, 심지어는 애니메이션까지. 무녀들은 명아가 보여주는 영상들을 통해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외부의 정보를 얻고 있었다. 루아는 명아가 그저 화면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텔레비전처럼 채널을 바꾸고, 소리를 조절하며, 때로는 화면의 비율까지 능숙하게 조절하는 것을 보았다. 한번은 화면이

순간적으로 끊기자, 명아는 "잠시 수직 귀선(vertical blank) 주파수가 안 맞았네요. 제가 조절했어요."라고 중얼거렸다. 또 다른 날에는 갑자기 화면이 멈추자, 그녀는 "음, ATSC 프로토콜이 불안정했나 봐요. 바로 잡을게요."라며 능숙하게 오류를 해결하기도 했다.

루아는 명아의 말뜻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텔레비전이라는 기계의 작동 원리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명아의 변신은 단순히 모양만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의 본질적인 기능과 기술적 속성까지 구현하는 수준이었다. 명아는 무생물 변신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무녀들이 단순한 옷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로 변신하는 모습은 루아에게 큰 흥미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경계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신의 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언젠가 자신도 명아처럼, 지수처럼, 단순한 형태를 넘어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변신을 할 수 있을까? 루아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며 설렘을 느꼈다.<sup>[1:2]</sup>

...

어느 맑은 오후, 루아는 큰 무녀님의 분신과 함께 신사 안뜰을 거닐고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루아는 문득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큰 무녀님, 어째서 신께서는 이토록 특별한 경계를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큰 무녀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신사의 역사만큼이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루아, 이 경계는 단순히 너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란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신사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선 특별한 지혜와 힘이 필요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응시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 한계 속에서 많은 것을 잊고 잃어버리게 된단다. 하지만 신사는 세상의 근원적인 지혜와 영적인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선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했지."

큰 무녀님은 다시 루아를 바라보았다.

"너희 무녀들은 이 경계 안에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단순히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란다. 이는 곧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때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신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지수가 책장이 되어 지식을 보존하고, 명아가 텔레비전이 되어 세상의 흐름을 읽듯이 말이다. 너희는 영원히 존재하며 신사의 지혜를 이어갈 존재들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이 경계는 신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무한한 가능성이자, 동시에 신사의 존재 이유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지. 너희가 영원한 삶을 얻은 것도, 죽음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신사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루아는 큰 무녀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계가 가진 의미가 단순히 능력 부여를 넘어선, 더 깊고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신사와 무녀로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었다.<sup>[1:3]</sup>

...

루아는 이슬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녀복은 경계 안에서는 마치 피부처럼 몸의 일부가 되어 존재했지만,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늘 다른 무녀가 옷으로 변신해 주어야 했다. 오늘은 루아가 그 역할을 맡기로 한 날이었다. 이슬은 고맙다는 듯 루아에게 살짝 미소 지었다.

"루아, 잘 부탁해."

루아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슬이 입을 깨주열한 옷, 따뜻한 크림색 니트와 부드러운 청바지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질감, 옷의 주름, 심지어는 섬유 한 가닥 한 가닥까지 생생하게 상상했다.

그녀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끝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발가락이 사라지고, 발등이 매끈하게 펴지며 부드러운 니트의 밑단으로 변해갔다. 종아리와 허벅지는 천천히 청바지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푸른색 데님 특유의 거친 듯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졌다. 허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벨트 고리와 주머니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몸통은 니트가 되었다. 루아의 피부는 따뜻한 크림색 실의 뭉치로 변했고, 세포 하나하나가 촘촘한 니트 조직으로 재구성되는 감각이 밀려왔다. 팔은 소매가 되어 길게 늘어졌고, 손가락은 부드럽게 감기는 소매단이 되었다. 목은 니트의 목 부분으로, 머리카락은 흘러내리는 실타래처럼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다.

변형이 완료되자, 루아는 자신이 온전히 한 벌의 옷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슬이 천천히 루아, 즉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를 집어 들었다. 루아는 순간적인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곧 익숙한 옷의 감각이 그녀를 감쌌다. 이슬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녀의 몸에 옷으로서 입혀지는 순간, 루아는 마치 또 하나의 피부가 된 듯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루아는 옷이 되었지만 오감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슬의 피부에 닿는 촉감,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슬이 걸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까지 모두 전달되었다. 그녀는 이슬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이슬의 귀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루아, 괜찮아?"

이슬의 목소리가 루아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울렸다. 텔레파시였다. 루아가 옷으로 변형된 순간부터, 둘 사이에 말 없는 소통의 통로가 열린 것이었다.

"네, 이슬님.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서 세상을 보니 색다른데요."

루아의 생각이 이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사의 문을 나섰다. 루아는 이제 이슬의 일부가 되어 외부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옷으로서 이슬을 보호하고, 이슬의 눈과 귀가 되어 외부의 정보를 함께 감지할 준비를 마쳤다.<sup>[1:4]</sup>

...

신사 밖으로 나선 이슬은 평소처럼 산길을 따라 걸었다. 루아는 이슬의 옷이 되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느꼈다. 숲길의 축축한 흙냄새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이슬의 오감을 통해 루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경이로웠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좁은 산길을 내려가던 이슬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앗!" 짧은 비명과 함께 이슬의 몸이 휘청했고, 루아가 변신한 청바지가 순식간에 거친 흙바닥에 쓸렸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바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루아는 마치 자신의 피부가 긁히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다행히 이슬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루아의 마음속에서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슬님, 방금... 제 몸이 긁혔어요!"

루아의 당황스러운 외침이 이슬의 머릿속에 울렸다. 이슬은 피식 웃으며 걸음을 멈췄다. "괜찮아, 루아. 옷은 원래 그런 거야. 더러워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이슬의 말에 루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수난은 이제 시작이었다. 산길을 벗어나 작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이슬의 다리에 대고 쿵쿵거렸다. 이내 강아지는 루아가 변신한 청바지에 오줌을 갈겼다.

"악! 이슬님! 방금... 제 몸에 뭔가 따뜻하고 축축한 게...!"

루아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다행히 소리 없는 외침으로 이슬에게만 전달되었다. 이슬은 당황한 기색 없이 발로 강아지를 살짝 밀어내고는 고개를 숙여 청바지를 살폈다. "아, 저런. 괜찮아 루아, 이건 금방 닦으면 돼." 이슬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무렇지도 않게 루아의 몸, 즉 청바지에 묻은 강아지



오줌을 닦아냈다. 루아는 닦여지는 감각에 몸서리를 쳤다. 옷이 되어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마을 시장에 들어서자 더욱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어졌다. 이슬이 길거리 음식 노점상 앞에서 멈춰 섰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슬이 꼬치 하나를 집어 들고 한입 베어 물었다. 그때, 붉은 양념 한 방울이 튀어 루아가 변신한 크림색 니트에 똑 떨어졌다.

"아아악! 이슬님! 제 몸에! 얼룩이…!"

루아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눈으로 보니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이 너무나도 끔찍했다. 이슬은 루아의 당황스러움을 느끼고는 작게 웃었다. "이런, 미안해 루아. 괜찮아, 집에 가서 빨면 돼." 이슬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꼬치를 먹기 시작했다.

루아는 혼란에 빠졌다. 신사 안에서는 영원불멸의 존재로, 굵히거나 더러워질 염려 없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다. 그런데 옷이 되자마자 굵히고, 오줌을 맞고, 얼룩이 지는 이 모든 경험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옷이라는 존재가 겪는 '수난'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루아는 자신의 변신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sup>[1:5]</sup>

마을을 벗어나 신사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루아는 여전히 당혹감을 떨칠 수 없었다. 니트에 묻은 얼룩과 청바지에 묻은 강아지 오줌, 그리고 굵힌 자국들이 내내 신경 쓰였다. 옷이라는 형태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에게는 마치 영혼에 상처를 입은 것만 같았다.

"이슬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 몸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상처 입는 게…."

루아의 불안한 목소리가 이슬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슬은 고요한 산길을 묵묵히 걷다가 루아의 옷깃, 즉 루아가 변한 니트 부분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루아,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처음엔 다 그래."

이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루아의 당혹감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나도 너처럼 처음엔 많이 놀랐지. 몇 년 전이었나... 그때는 내가 찻잔으로 변해서 큰 무녀님 시중을 들었었어."

루아는 이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찻잔이라니,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큰 무녀님께서 마당에서 차를 드시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지 뭐야. 그 바람에 내가, 그러니까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깨지는 순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더라. 정말 아팠지. 내 몸이 수백, 수천 개의 파편으로 흩어지는 감각은... 아직도 생생해."

루아는 상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유리 조각으로 변했다가 깨진다니, 그것은 영원불멸의 존재에게도 극한의 경험일 터였다.

"그때 큰 무녀님께서 내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으셨어. 가장 큰 유리 조각들을 신사에 가지고 돌아오셨지. 그리고 신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내 몸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더라. 깨진 흔적 하나 없이 완벽한 찻잔의 형태로 말이야. 그리고 곧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이슬은 말을 마치고 루아가 변한 니트의 소매 부분을 살짝 당겼다.

"우리가 경계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어떤 일을 겪든, 신님의 축복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단다. 경계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완벽한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네 몸은 멀쩡할 거야."

이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사의 경계가 느껴졌다. 루아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휘청이는 것을 느꼈고, 곧이어 온몸을 감싸고 있던 니트와 청바지의 감각이 사라졌다. 눈을 뜨자, 그녀는 다시 본래의 무녀복을 입고 있었다.

루아는 재빨리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굼뻤던 다리도, 오줌이 묻었던 허벅지도, 양념이 튀었던 가슴 부분도, 그 어떤 흔적도 없이 깨끗하고 완벽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루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기함에 이슬을 바라보았다. 이슬은 루아의 마음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다.

"봐, 내가 말했잖아?"

루아는 경계의 신비로움과 신님의 축복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작은 수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옷이 되어 외부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었다.<sup>[1:6]</sup>

## 2: 자동차 무녀

루아는 이슬의 옷이 되어 겪었던 경험과 큰 무녀님의 설명을 통해 자신의 변신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다. 단순히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변신한 대상의 기능과 속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명아가 텔레비전이 되어 외부 정보를 얻고, 지수가 책장이 되어 지식을 보존하는 모습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어느 날, 무녀들이 다른 신사를 방문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본 루아는 문득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은 항상 걸어가거나, 때로는 마을까지 내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신사 간의 거리가 상당했기에 왕복에만 하루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루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무녀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전기자동차가 되기로. 그것도 단순히 움직이는 덩어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기능하는 진짜 자동차가 되기로 말이다.

루아는 곧장 큰 무녀님의 분신을 찾아가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큰 무녀님은 루아의 당찬 결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훌륭한 생각이구나, 루아. 너의 능력이 무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게다."

다음 날부터 루아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다름 아닌 두꺼운 전기자동차 정비 매뉴얼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사용자 매뉴얼이 아니라, 전문가용 정비사 매뉴얼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은 복잡한 회로도 와 부품 설명, 그리고 고장 진단 절차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루아는 경계 안에서 매뉴얼을 펼쳐 들었다. 처음에는 눈앞의 글자들이 그저 복잡한 기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명아나 지수처럼 완벽한 변신을 이루기 위해선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넘어, 내면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뉴얼의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배터리 모듈의 구성, 전력 제어 장치(PCU)의 역할, 모터의 구동 원리, 회생 제동 시스템, 심지어는 자율 주행을 위한 센서 배열과 데이터 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마치 자신의 몸에 그 정보들이 각인되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때로는 매뉴얼 속 그림을 보며 자신의 신체를 해당 부품으로 변형시켜 보기도 했다. 작은 기어가 되거나, 복잡한 전선 다발이 되어 보는 식이었다.

루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뉴얼을 탐독했다. 매뉴얼의 페이지가 닳아 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전기자동차의 모든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구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 훗날, 무녀들이 그녀가 변신한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른 신사로 편안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루아는 기꺼이 모든 것을 외웠다.<sup>[2:1]</sup>

...

루아는 밤낮으로 정비 매뉴얼을 탐독한 끝에, 전기자동차의 모든 세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완벽히 이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이었다. 큰 무녀님과 다른 무녀들은 루아의 첫 변신을 기대하며 신사 마당에 모여들었다. 루아는 심호흡을 하고 전기자동차의 형상을 떠올렸다. 매끈한 차체,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바퀴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 그녀의 몸이 빛을 내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루아가 서 있던 자리에는 최신형 전기자동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다. 타이어의 깊은 홈부터, 충전 포트, 심지어 내부의 복잡한 대시보드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실제 자동차였다. 루아는 자신의 몸이 강철과 전선, 배터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가 되었음을 느꼈다. 엔진 대신 심장처럼 뛰는 배터리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운전석이었다. 루아의 몸 안에 작은 분신이 운전자처럼 앉아 있었다. 이 분신은 루아의 의지를 그대로 따르며, 혹시 모를 외부 단속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자동차로서 완벽해지기 위해 루아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했다. 바로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이었다. 무녀가 인간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했지만, 큰 무녀님은 외부 활동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이슬이 나셨다. 이슬은 능숙하게 루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루아 본인이 변신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또 다른 루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슬은 실제 루아의 모습과 목소리, 심지어는 작은 습관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며칠 후, 루아가 변신한 전기자동차의 운전석에는 이슬이 변한 루아가 앉아 있었다. 시내의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이슬은 능숙하게 루아, 즉 자동차를 조작했다. 주차 코스에서는 루아의 몸 구석구석에 심어놓은 센서를 이용해 완벽하게 주차했고, 도로 주행에서는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선보였다. 시험관은 감탄하며 루아에게 합격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다음은 차량 등록이었다. 이슬이 변한 루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루아가 변신한 전기자동차를 몰고 가서 모든 서류 절차를 밟았다. 루아는 자신의 몸에 붙여지는 번호판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자신이 세상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

첫 장거리 데뷔 날, 루아는 다른 신사를 방문하는 무녀들을 태우고 출발했다. 출발 전, 루아는 '연료'를 채우기 위해 신사의 주방에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탐닉했다. 기름진 고기, 달콤한 과일, 따뜻한 국물까지, 흡사 먹방 유튜버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밀어 넣었다. 그녀의 '연료'는 바로 음식이었고, 생존을 위해 어떤 음식도 필요치 않은 무녀였지만, 변신한 자동차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녀의 몸은 본래의 형태로 돌아올 위험이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루아는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바람 가르는 소리, 노면의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다. 무녀들은 편안하게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루아는 계기판에 표시되는 '연료량'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성능이 저하되는 감각이 밀려왔다.

"이슬님, 연료가 부족해요... 뭔가 먹어야겠어요."

루아의 다급한 텔레파시가 이슬에게 전달되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무녀들은 재빨리 간식거리를 사서 루아에게 가져왔다.

"자, 루아. 핫도그랑 떡볶이 어때? 순대도 있어!"

무녀들이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은 루아의 분신의 입으로 음식을 밀어 넣었다. 루아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과 핫도그의 고소함을 느끼며 순식간에 흡수했다.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떨림이 멈추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으음, 역시 맛있네요!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루아는 만족스러운 텔레파시를 보냈고, 무녀들은 웃으며 다시 차에 올랐다. 그렇게 루아는 첫 장거리 운전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무녀들의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무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했다.<sup>[2:2]</sup>

...

1년 만이었다. 루아는 이슬이 변신한 단정한 원피스와 카디건을 입고 옛집의 대문 앞에 섰다. 신사에서 삶의 영원불멸의 존재로서 평온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실종에 부모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을지, 루아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려왔다. 문득, 이슬의 따뜻한 텔레파시가 루아의 마음을 다독였다.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어."

평동. 초인종 소리에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맞니? 이게 얼마만이니!"

어머니는 루아의 본명인 지은을 부르며 루아를 품에 꼭 안았다. 1년 새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듯한 딸의 모습에 기쁨과 안도가 교차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루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부모님의 걱정은 예상보다 더 컸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아무 연락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어머니의 질문에 루아는 말문이 막혔다. 신사의 비밀을 발설할 수는 없었다. 그저 '깊은 산속에서 잠시 몸이 아파 요양했다'는 두루뭉술한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이슬의 목소리가 루아의 머릿속에 울렸다. "루아, 어머니께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이야기를 꺼내달라고 해. 작은 냇가가 있고, 벚나무가 많던 곳 말이야. 그리고 내 친구 미경이 이야기를 꺼내달라고 부탁해봐."

루아는 이슬의 요청에 의아했지만, 곧 이슬이 뭔가 중요한 것을 시도하려 함을 직감했다. 루아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어릴 적에 미경이라는 단짝 친구 있으셨어요? 냇가 옆에 살고 벚꽃이 많았던 동네에서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다.



"미경이라니! 너 그 이름을 어떻게 아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 응, 그랬지. 내가 어릴 적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바로 미경이었어. 우리가 정말 함께 붙어 다녔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는 바람에 소식이 끊겼었지. 그 애가 잘 살고 있을지, 늘 궁금했단다."

어머니는 옛 친구의 이름에 감회에 젖은 듯 미소 지었다. 그때 이슬의 텔레파시가 루아에게 다시 전해졌다. "어머니께 미경이가 가장 아끼던 낡은 인형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 인형의 한쪽 눈이 단추로 되어 있었다는 것도."

루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미경이가 혹시 한쪽 눈이 단추로 된, 낡은 인형을 되게 아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루아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는데! 미경이 그 인형을 정말 아꼈지... 어디서 들은 거니?"

어머니의 눈에는 확신과 함께 알 수 없는 빛이 스쳤다. 루아는 이슬의 지식을 빌려 부모님의 의심을 지워내고 있었다. 이슬은 루아에게 계속해서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텔레파시로 전달했고, 루아는 마치 자신이 그 기억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자세히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루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이슬의 존재를, 신비로운 힘을 조금이나마 엿본 듯했다.

신사의 비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슬의 오래된 기억을 통해 신님의 능력이 단순한 말이 아니며, 자신의 딸이 보통 존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어머니는 어렴풋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루아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할 시간, 어머니는 루아를 꼭 안으며 말했다.

"지은아,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니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나중에 미경이를 혹시 만나게 되면, 꼭 나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해줘. 네 덕분에 오랜만에 옛 친구 생각도 하고, 정말 반가웠다."

어머니의 부탁에 루아는 이슬의 텔레파시를 통해 난감함을 느꼈다. 이슬의 머릿속에는 '이걸 어째야 하나' 하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자신이 루아의 옷으로 변해 루아의 어머니와 마주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이라니. 이슬은 난처함에 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쉬었다. 루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꼭 전해줄게요."

집을 나서는 루아의 뒷모습은 전과는 달랐다. 부모님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슬의 지혜 덕분에 최소한의 이해는 얻어낸 듯했다. 루아는 자신과 이슬, 그리고 다른 무녀들이 지키는 비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신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sup>[2:3]</sup>

...

가족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신사로 돌아오는 길, 루아는 이슬이 변신한 옷을 입고 걸으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전기자동차로 변신했을 때는 운전석에 완전히 옷을 입은 분신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슬의 옷이 되었을 때는, 루아 본인이 직접 옷이 되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왜 어떤 변신에서는 온전한 분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변신에서는 신체의 일부로서만 옷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이슬님," 루아가 텔레파시로 물었다. "문득 궁금해졌는데, 제가 자동차로 변했을 때는 제 분신이 옷까지 완벽하게 입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슬님 옷이 될 때는 왜 제가 직접 옷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제 몸의 일부로서 옷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슬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음, 듣고 보니 그러네. 나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해봤어. 항상 그래왔으니 당연하다고만 여겼지." 그녀의 목소리에도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경계 안에서는 무녀복이 우리 몸의 일부처럼 존재하지만, 경계 밖으로 나가면 사라지니 우리가 직접 옷이 되어야 하는 건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분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말이야."

신사에 돌아오자마자, 루아와 이슬은 큰 무녀님의 분신을 찾아갔다. 차를 마시고 있던 큰 무녀님은 두 무녀의 궁금증 어린 얼굴을 보고 온화하게 웃었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자동차로 변한 루아의 분신이 왜 온전히 옷을 입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서로의 옷이 될 때 왜 신체의 일부로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지?"

루아와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큰 무녀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초에 신님께서서는 무녀들에게 '어떠한 형태든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다. 처음에는 모든 무녀가 원하는 대로 완벽한 분신을 만들고, 심지어 그 분신에게 옷을 입히는 것까지 가능했지. 너희가 지금 자동차로 변했을 때의 루아의 분신처럼 말이다."

루아와 이슬은 숨죽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지. 무녀들이 너희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변신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야. 어떤 무녀는 분신을 수십 개씩 만들어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분신을 시켜 온갖 장난을 치거나 심지어는 나쁜 일을 벌이기도 했어. 본체는 신사에 숨어 있으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지.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신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단다."

큰 무녀님의 표정에 아련한 슬픔이 스쳤다.

"신님께서서는 깊이 탄식하셨어. 무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신님께서서는 무녀들의 변신 능력에 '제한'을 두시기로 결정하셨단다. 그 제한은 이러했지. '생명이 없는 무생물로 변신할 경우에만 온전한 분신을 생성하고 그 분신에게 옷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었어. 이는 무생물 변신 시에는 본체가 완전히 그 무생물과 동화되므로, 마치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의 일부인 것처럼, 그 분신도 본체의 완전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야 무생물 변신 시의 분신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하지만 '다른 생명체의 의복이 될 때는 본인이 직접 옷이 되어 몸의 일부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제약을 두셨단다. 이는

무녀들이 서로의 책임을 짊어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며,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큰 무녀님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결국 너희가 자동차로 변했을 때 루아의 분신이 온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자동차가 무생물이기 때문이고, 이슬의 옷이 되었을 때 루아가 직접 옷이 된 것은, 옷이 되어준다는 것이 다른 생명체와의 결합이기 때문이란다. 이 모든 것은 무녀들의 능력이 세상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신님께서 내리신 지혜로운 선택이었지."

루아와 이슬은 큰 무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었고, 변신 능력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신님의 축복에는 늘 깊은 뜻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sup>[2:4]</sup>

...

루아는 정비 매뉴얼을 다 외운 기념으로 큰 무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갔다. 큰 무녀님의 거처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정갈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은은한 향내 대신, 묘하게 익숙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큰 무녀님은 평소 앉아 계시던 자리 대신, 창가에 놓인 폭신한 방석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계셨다.

루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큰 무녀님의 손에 들린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툼한 만화책이었다. 표지에는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소년 검객이 그려져 있었고, 제목은 큼지막하게 "불꽃 검객 카엔"이라고 적혀 있었다. 루아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늘 고고하고 지혜로운 모습만을 보이시던 큰 무녀님이 소년 만화를 보고 계시다니. 이럴 수가!

큰 무녀님은 루아의 시선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만화책을 무릎 뒤로 숨겼다. 그녀의 뺨에 붉은 홍조가 스치는 것을 루아는 놓치지 않았다.

"아, 루아 왔니? 그... 그제... 이걸 보고 있었구나."

큰 무녀님은 조금 민망한 듯 목소리를 작게 낮추셨다. 영원불멸의 존재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인간적인 부끄러움이었다. 루아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다.

"네, 큰 무녀님. 그런데… 만화책을 보고 계셨네요."

루아의 말에 큰 무녀님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만화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음… 사실은 말이다, 가끔 이렇게 소년 만화를 읽곤 한단다. 조금 의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큰 무녀님은 만화책 표지를 손가락으로 살살 쓸었다.

"이 만화 속 주인공을 보렴.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해 나가지. 친구들과 힘을 합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고 말아야. 그런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가끔은 필요하단다."

그녀는 창밖 멀리 보이는 산을 응시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희미해질 때가 있지.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원초적이고 순수한 열정이 메마른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단다."

큰 무녀님은 다시 만화책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무녀로서 너희에게 지혜와 평온을 가르치지만, 나 역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원동력이 필요하단다. 이 만화 속 소년들처럼, 때로는 단순하게, 뜨겁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랄까. 비록 이 신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니까."

루아는 큰 무녀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존재의 깊은 고뇌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의 활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소년 만화가 단순한 유희가 아닌, 큰 무녀님 자신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활력소임을 루아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큰 무녀님은 더욱 인간적이고, 존경스러웠다.<sup>[2:5]</sup>

...

신사 한켠의 넓은 마당. 늘 단정한 무녀복 차림에 깔끔한 머리카락을 땅아 내린 명아는 평소처럼 손에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전선 다발이나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명료하고 이성적이었으며, 모든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듯했다. 루아는 그런 명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명아님, 혹시... 저를 위해 피아노로 변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릴 적에 피아노를 배웠는데, 다시 연주해보고 싶어요."

명아는 스케치북에서 시선을 떼고 루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다.

"피아노요? 음... 전자기기나 통신 프로토콜 같은 분야라면 자신 있지만, 피아노는... 사실 기계적인 구조는 알지만, 음향적인 원리나 건반 하나하나의 미묘한 메커니즘은 제가 익숙한 분야가 아니라서요."

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변신했던 명아에게서 뜻밖의 약점을 발견한 루아는 내심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명아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괜찮아요, 명아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루아는 활기차게 외치며 명아를 데리고 큰 무녀님이 가르쳐주신 옛 도서관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서 피아노 구조를 설명하는 오래된 책을 찾아 펼쳤다.

"자, 명아님.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건반, 해머, 현, 그리고 울림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루아는 책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다. 명아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얼굴로 루아의 설명을 들으며 스케치북에 피아노 내부 구조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번에는 전자 회로가 아닌 나무와 현의 복잡한 배열을 파고드는 듯했다.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움직여서 현을 때리죠. 현이 울리면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울림통을 통해 증폭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건반 하나하나의 깊이와 속도에 따라 해머가 현을 때리는 강도가 달라져서 소리의 크기와 울림이 미묘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루아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두드리며 건반을 누르는 시늉을 했다.

"특히 이 댐퍼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건반을 누르면 댐퍼가 현에서 떨어져 소리가 나게 하고, 손을 떼면 다시 현에 붙어 소리를 멈추게 하죠. 또, 페달을 밟으면 댐퍼가 현에서 떨어져 소리가 길게 울리거나, 아예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해요."

명아는 루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미 복잡한 해머 메커니즘과 현의 장력 조절 장치가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결국은 이 모든 기계적인 부품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음향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군요. 제가 익숙한 전자 신호와는 다른, 아날로그적인 정교함이군요." 명아는 드물게 감탄 섞인 목소리를 냈다.

도서관 입구에서는 몇몇 무녀들이 흥미로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늘 똑 부러지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던 명아가 배우는 입장에 있고, 반대로 늘 배우기만 하던 루아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꽤나 신선하고 의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무녀의 열정적인 수업을 지켜보았다.

...

며칠 후, 마침내 루아와 명아가 신사 마당에 섰다. 명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루아가 설명해 준 피아노의 모든 구조와 원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빛을 내며 변하기 시작했다.

강철과 나무의 조화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정교하게 배열되었다. 마침내, 명아는 육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업라이트 피아노로 변신했다. 광택이 흐르는 검은 외관과 가지런히 정렬된 건반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루아는 가슴 벅찬 표정으로 피아노로 변신한 명아 앞에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건반 위에 올렸다. 피아노는 명아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루아가 그리워했던 악기였다.

루아가 첫 건반을 누르자, 맑고 청량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명아의 내부 메커니즘이 정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음색과 강약이 표현되었다. 루아는 이내 어릴 적 즐겨 연주하던 멜로디를 떠올리며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신사 마당을 가득 채웠고, 다른 무녀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음악을 감상했다. 명아 또한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소리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듯했다.<sup>[2:6]</sup>

...

신사에 겨울이 찾아오자, 산속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고, 지붕 위에는 두툼한 눈 이불이 쌓였다. 경계 안에서는 영원불멸의 존재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무녀들 역시 추위를 느꼈다. 땀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한기에 무녀들은 자연스레 한데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사의 겨울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무녀들의 특별한 능력이 혹독한 추위마저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신사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온기였다. 신사 중앙 홀에서는 난로로 변신한 무녀 하연이 붉은 숯불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몰아내고 훈훈함을 선사했다. 무녀들은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언 손을 녹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방에서는 보일러로 변신한 무녀 지아가 온돌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늑한 열기에 무녀들은 몸을 뉘여 피로를 풀기도 했다. 루아는 난로 옆에 앉아 툭툭 터지는 불꽃 소리를 들으며 겨울의 정취를 만끽했다.

겨울의 별미도 빼놓을 수 없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다. 그곳에는 뜻밖의 변신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에어프라이어로 변신한 무녀 채은이었다. 은색의 매끈한 몸체에 디지털 패널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채은은 겨울철 간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 이제 군밤 나갈게요!"



채은의 몸 안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군밤들이 쏟아져 나왔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통닭구이까지 연이어 나왔다. 무녀들은 채은이 구워내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루아는 갓 구운 군밤을 호호 불어가며 맛보았다. 일반적인 에어프라이어라면 온도 조절이나 조리 시간 설정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채은은 자신이 변신한 에어프라이어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최고의 맛을 구현해냈다.

몇몇 무녀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채은의 에어프라이어 변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채은이가 왜 에어프라이어가 되겠다고 했는지 다들 의아해했지. 저 많은 음식들을 한 번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 겨울에 이만한 변신도 없더라니까." 한 무녀가 웃으며 말했다.

신사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가 아닌, 무녀들의 따뜻한 변신 능력과 함께 포근하고 활기 넘치는 계절이었다. 난로와 보일러가 주는 온기,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가 선사하는 맛있는 음식들 덕분에 무녀들은 추위 속에서도 서로의 온정을 나누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sup>[2:7]</sup>

...

신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듯 보였지만, 때로는 외부와 교류하며 그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을 축제였다. 신사 경내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었기에, 축제 장소는 신사 입구 근처의 넓은 평지로 정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신사 앞에서 열리는 축제를 매년 고대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무녀들이 선보이는 카구라였다. 신성한 춤으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인 카구라는 그 자체로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 명의 무녀가 카구라를 추었다.

주홍은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의상으로 변신하여 춤의 중심을 잡았다. 그녀의 몸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펄럭였고,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아 반짝였다. 주홍의 춤선은 유려하고 절도 있었으며, 그녀의 의상 변신은 춤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춤과 함께 울리는 청아한 방울 소리는 명아가 담당했다. 명아는 작은 방울들로 변신하여 주홍의 손목과 발목에 매달렸다. 그녀는 소리의 강약과 리듬을 완벽하게 조절하며 춤의 흐름을

이끌었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신비롭게 울리는 방울 소리는 명아가 그저 물리적인 형태뿐 아니라 소리의 파동까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슬은 카구라를 추는 무녀들의 춤사위에 맞춰 바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얇은 베일로 변신했다. 그녀는 무녀들의 움직임을 따라 허공을 가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때로는 무녀의 얼굴을 살짝 가렸다가 열어 보이며 신비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슬의 베일은 춤의 일부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루아는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축제에 필요한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운반용 카트로 변신했다. 튼튼한 바퀴와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춘 루아는 무녀들이 만든 수공예품, 음식 재료, 장식품 등을 신사에서 축제장으로 나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축제가 시작되자 루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축제 안내를 위한 커다란 전광판이 되었다. 다채로운 색깔의 글씨로 축제 프로그램과 장소를 안내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띄워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물론 루아의 전광판은 신사의 비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노출하지 않았다. 그저 축제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 역할에 충신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루아는 밝은 조명등으로 변신하여 축제장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의 빛은 축제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한 미소를 짓게 했다. 무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돕고 있었고, 그들의 변신 능력은 신사의 비밀을 철저히 감춘 채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무녀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 해 축제를 기약했다.<sup>[2:8]</sup>

### 3: 새로운 무녀

신사에 다시 겨울이 찾아들고 있었다. 루아는 난로로 변신한 하연 곁에 앉아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를 듣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문득 알 수 없는 진동이 신사 전체를 감쌌다. 그것은 지진처럼 물리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영적인 파동에 가까웠다. 루아뿐만 아니라 다른 무녀들도 동시에 그 미묘한 기척을 감지한 듯 서로를 돌아보았다.

"큰 무녀님..."

루아의 텔레파시가 큰 무녀님께 닿았다. 큰 무녀님의 분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운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아이가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큰 무녀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신사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무녀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떠올랐다. 신사에 새로운 무녀가 온다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이자, 신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새로운 무녀가 온다는 소식에 신사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무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명아는 늘 그랬듯이 신사 주변의 경계 감지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녀는 경계의 미세한 흐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고, 혹시라도 외부의 불순한 기운이 감지되면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지수는 도서관의 서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냈다. 새로 올 무녀가 신사의 역사와 지식을 습득해야 할 테니, 필요한 책들을 찾기 쉽게 분류하고 배치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책장이자 지식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슬은 새로운 무녀가 머물게 될 거처를 깨끗하게 정돈했다. 포근한 이불을 새로 깔고, 따뜻한 물을 미리 데워 두었다. 그녀는 섬세한 손길로 방석을 다듬고, 작은 꽃을 꽃아 넣어 포근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루아는 이슬 곁에서 그녀가 펼쳐놓은 천을 붙잡아주며 거들었다.

루아 역시 자신의 첫 방문을 떠올리며 새로운 무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몸을 구급상자로 변신시켜 필요한 의료 도구와 약품들을 갖춰 놓았다. 또한, 긴 여행에 지쳤을 새 무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일 수 있는 포트로 변신할 준비도 마쳤다. 그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다렸다.

며칠 후, 신사로 향하는 산길에는 눈이 더욱 깊게 쌓였다. 하지만 무녀들의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신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영혼이 어둠 속을 헤치고 빛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빛이 마침내 신사의 문을 열고 들어설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sup>[3:1]</sup>

...

신사 주변의 눈이 더욱 깊게 쌓여가던 어느 날 오후, 경계를 감지하던 명아의 텔레파시가 무녀들에게 다급히 전해졌다.

"큰 무녀님! 새로운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에요!"

무녀들은 일제히 술렁였다. 신의 부름을 받은 자는 늘 홀로 신사를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두 명이라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큰 무녀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을 되찾았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구나. 모두 준비하도록 하렴."

무녀들은 신사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눈발 위로 힘겹게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오는 두 개의 작은 형체였다. 한 명은 앓던 소녀였고, 그 뒤를 쫓아오는 다른 한 명은 훨씬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눈 속에 발이 빠지며 연신 넘어질 뻔했고, 소녀는 그런 동생을 기다리며 뒤를 돌아보곤 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녀의 눈빛만은 신사를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녀가 신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무녀였다. 하지만 동생은 어쩌다 언니를 쫓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소녀와 소년이 신사 경계에 다다르자, 루아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경계를 넘어섰지만, 소년이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크흑!"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서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푸른빛이 번쩍였고, 이내 온몸이 뻗뻗하게 굳어버렸다.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소년은 살아있는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는 놀라 동생에게 달려갔다. "지훈아! 왜 그래, 지훈아!" 그녀가 소년의 몸을 흔들었지만, 소년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소녀의 눈에도 절망과 혼란이 가득 찼다.

큰 무녀님은 차분하게 다가와 소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놀라지 마라, 아이야. 이 아이는 다치지 않았단다. 다만, 신의 경계는 선택받지 않은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곳. 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멈춘 것뿐이야."

큰 무녀님은 소년을 한 번 바라본 후, 무녀들에게 지시했다.

"소년을 조용히 신사 밖으로 옮겨두고, 그가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 주렴. 그리고 이 소녀를 안으로 인도하라."

무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연은 소년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담요로 변신했고, 이들은 소년의 주변에 투명한 보호막으로 변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감쌌다. 루아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급상자로 변신한 채 그들을 따랐다.

소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동생이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큰 무녀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무녀들의 침착한 움직임에 이끌려 신사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동생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신성한 공간에서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은 새로운 무녀의 이야기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sup>[3:2]</sup>

...

신사의 본당,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에서 큰 무녀님과 다른 무녀들이 소녀를 둘러싸고 앉았다. 소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수아는 아직 눈물을 닦아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수아예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신사로 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쳤나 했지만... 목소리는 계속 저를 불렀어요."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신의 부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사고로요. 저에게는 동생 지훈이가 유일한 혈육이에요. 제가 없으면 지훈이는 정말 혼자 남게 돼요. 아무도 지훈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래서... 제가 신사로 오면 지훈이도 혼자 남겨질까 봐, 제가 떠나면 지훈이가 너무 외로워할까 봐... 제가 도망치듯 집을 나서는데, 지훈이가 제 뒤를 쫓아왔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된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신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무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훈이네요? 제가 무녀가 되면 지훈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지훈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수아의 이야기는 신사의 무녀들을 깊은 침묵에 빠뜨렸다. 큰 무녀님의 분신조차 평온했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신사의 철칙은 분명했다. 일반인은 신사 경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경계는 무녀 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반인이 들어올 경우 지훈이처럼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가혹한 제재가 따랐다. 신사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규칙이었다.

하지만 수아의 사연은 그 규칙을 흔들 만큼 절박했다. 부모를 잃고 유일한 혈육인 동생을 위해 신의 부름마저 거부하려는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무녀들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큰 무녀님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신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무녀로 삼으려 하시는가?'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랜 세월 신사를 지켜온 원칙과, 한 소녀의 절절한 슬픔 사이에서 변민이 일었다. 신의 뜻은 언제나 오묘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다. 다른 무녀들도 마찬가지였다. 명아는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고, 이슬과 루아는 수아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워했다.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무녀로서의 사명과,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모두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sup>[3:3]</sup>

신사 안, 큰 무녀님의 고뇌는 깊어졌다. 그때,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루아와 이슬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루아는 여전히 구급상자로 변신한 채였고, 이슬은 그녀를 감싸는 보호막이었다.

"루아, 이슬. 내 말을 지훈에게 전해주렴. 그 아이에게 무녀가 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거라."

루아와 이슬은 놀랐지만, 큰 무녀님의 뜻을 따랐다. 루아는 이슬에게 텔레파시로 말했다. "이슬님, 제가 지훈에게 말을 걸게요. 이슬님은 저의 옷이 되어주세요."

이슬은 고개를 끄덕이며 루아의 몸을 감싸는 단정한 무녀복으로 변신했다. 루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훈의 곁에 섰다. 아직도 얼어붙은 채 눈만 깜빡이는 지훈에게 루아는 조심스럽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지훈아,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나는 이 신사의 무녀 루아야. 큰 무녀님께서 너에게 물으신다. 너는 무녀가 될 용의가 있느냐고."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녀...요? 제가... 남자인데... 남자도 무녀가 될 수 있나요?"

루아는 큰 무녀님의 뜻을 전달했다.

"남자로서 무녀가 된다는 것은... 너의 남성을 버린다는 뜻이다. 너의 모든 존재가 신께 바쳐져,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더 이상 남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야."

지훈의 눈에 순간적인 망설임이 스쳤다. 그러나 곧 그의 시선이 신사 안쪽, 누나가 사라진 방향을 향했다. 누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훈이었다. 그가 홀로 남겨지는 것을 상상하자,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는 결심이 그의 작은 마음에 차올랐다.

"누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겠어요."

지훈의 마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다.

...



지훈의 대답이 루아를 통해 큰 무녀님께 전달되자, 신사 전체에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다. 지훈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체격은 미세하게 작아지고, 어깨선은 부드러워졌다. 앓던 소년의 얼굴은 점차 섬세한 곡선을 띠었고, 짚았던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변해갔다.

루아와 이슬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훈의 몸은 이제 누가 보아도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었다. 비록 아직은 소년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듯했지만, 그는 분명히 새로운 무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경계의 제약도 사라진 듯, 그는 이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루아는 감격에 찬 텔레파시를 큰 무녀님께 보냈다. "큰 무녀님! 이... 이런 기적이...!" 이슬 또한 경외심 가득한 시선으로 큰 무녀님을 바라보았다.

큰 무녀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그저 신님의 생각을 헤아렸을 뿐이란단다. 신께서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누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큰 무녀님은 이제 소녀가 된 지훈과 수아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수아, 너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거라. 너의 새 이름은 별이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제 땅의 샘물처럼 맑고 순수한 존재가 되거라. 너의 새 이름은 샘이다."

별과 샘, 두 자매 무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사랑이 가득했다. 신사의 문턱을 넘어선 그들은 이제 영원불멸의 존재로서, 신의 뜻을 받들고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sup>[3:4]</sup>

...

신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단연 샘이었다. 본래 소년이었던 터라, 어린 소녀의 몸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샘이는 여전히 장난기 넘치고 호기심 많은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신사의 고요하고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샘이의 천방지축 행동들은 때때로 작은 소동을 일으키곤 했다.

샘이의 첫 번째 장난은 다름 아닌 명아였다. 명아가 피아노로 변신해 루아와 함께 연주 연습을 하던 중이었다. 샘이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피아노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다 루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샘이는 명아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명아님, 혹시 제가 건반을 마구 눌러도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명아는 난처해하면서도 샘이의 순수한 호기심에 결국 허락했다. "음... 아주 잠깐이라면."

그 순간, 샘이는 피아노 건반 위로 뛰어올라 발로 마구잡이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쿵! 쿵쿵! 타다닥! 피아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샘이는 소리 없는 피아노 위에서 꺽충꺽충 뛰며 신이 나 방방 뛰었다. 루아가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황당해하자, 명아는 "잠시 음소거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슬을 포함한 몇몇 무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

어느 날, 샘이는 도서관에서 책장으로 변신해 있는 지수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수님, 저랑 숨바꼭질할래요? 제가 못 찾게 숨어보세요!"

지수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샘이의 제안에 피식 웃었다. "음, 어디 한번 찾아보렴."

샘이는 신나게 도서관 안을 뛰어다니며 지수를 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몸을 주변 책장과 완벽하게 동화시키며 능숙하게 숨었다. 샘이는 아무리 찾아도 지수를 발견할 수 없자 점점 더 흥분했다. 그러다 우연히 손을 짚은 낡은 책장 사이에서 희미한 틈을 발견했다.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다.

"찾았다!"

샘이가 외치자, 지수는 다시 본래의 책장 모습으로 돌아왔다. 샘이가 손을 넣었던 틈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아주 작고 오래된 나침반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나침반은 신사의 무녀들이 오래전부터 외부 활동 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하던 유물이었는데, 그 존재조차 잊힌 지 오래였다.

지수는 샘이가 찾아낸 나침반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런,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네 덕분에 잊고 있던 중요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되었네." 샘이의 천진난만한 장난 덕분에 신사의 숨겨진 유물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

겨울이 다시 찾아오자, 샘이는 에어프라이어로 변신한 채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맛있는 군고구마와 통닭이 쉴 새 없이 나오자, 샘이는 채은의 '출력구'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았다. 한 번은 채은이 막 구워낸 뜨거운 통닭을 꺼내려는데, 샘이가 참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통닭을 쿡 찔렀다.

"앗! 뜨거워!"

샘이는 놀라서 손을 떼었지만, 통닭은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채은은 텔레파시로 "샘아, 조심해야지!"라며 한숨 쉬었고, 다른 무녀들은 샘이의 귀여운 사고에 폭소를 터뜨렸다. 물론 채은은 떨어진 통닭을 다시 흡수하여 금세 새 것으로 만들어냈지만, 샘이의 천진난만한 식탐은 주방의 작은 소동으로 이어지곤 했다.

샘이의 신사 생활은 이처럼 작은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의 순수하고 활기찬 모습은 무녀들의 삶에 새로운 웃음과 활력을 더해주었다.<sup>[3:5]</sup>

...

무녀 수업 시간, 별이는 큰 무녀님 앞에서 신사의 역사와 무녀의 삶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큰 무녀님이 "무녀가 되는 순간, 너희의 시간은 멈춘다"고 설명했을 때였다. 별이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큰 무녀님... 그럼... 샘이는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건가요?"

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린 동생에 대한 애뜻함이 묻어났다. 지금의 샘이는 여전히 앳된, 작은 소녀의 모습이었다. 이 모습으로 영겁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별이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큰 무녀님은 별이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별아. 무녀가 된 시점에서 육체의 성장은 멈추게 되지. 샘이 역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야."

별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동생이 영원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큰 무녀님은 별이의 마음을 읽었는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별아, 너무 염려하지 마렴. 작은 몸이기에 얻는 이점도 분명히 있단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샘이의 작은 체구가 가진 잠재력을 설명했다.

"세상에는 작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변신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단다. 큰 몸으로는 불가능한 정교하고 섬세한 형태들 말이지. 예를 들어, 루아가 변신하는 전기자동차의 작은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명아가 변신하는 전자 기기의 미세한 회로가 될 수도 있겠지."

큰 무녀님은 시선을 멀리, 신사 마당에 뛰어노는 샘이를 향했다. 샘이는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신님께서 샘이를 이 모습 그대로 무녀로 삼으신 진정한 의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작은 존재로서 세상의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부분까지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지. 큰 힘을 지닌 존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때로는 작고 섬세한 존재가 더욱 깊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법이니까."

별이는 큰 무녀님의 설명을 들으며 샘이의 작은 몸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록 영원히 성장하지 않을지라도, 샘이가 가진 잠재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큰 무녀님의 말에 별이의 마음속에 드리웠던 그들은 점차 걷히기 시작했다.<sup>[3:6]</sup>

...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만약 무녀가 되지 않았다면 스물 안팎의 청년이 되었을 샘이는 여전히 옛된 꼬마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얼굴은 처음 신사에 왔을 때와 똑같이 천진난만했다. 하지만 샘이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깊어진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샘이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작은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또래 친구들이라면 한창 성장하여 어른의 모습을 갖춰갈 시기였다. 문득, 자신도 그들처럼 키가 크고, 몸이 성숙해지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꼬맹이의 모습으로 영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아주 작은 미련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미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샘이의 시선은 곧 신사 안을 뛰어다니는 별이에게로 향했다. 이제는 어엿한 무녀가 된 언니, 별이. 샘이는 자신이 이 작은 모습으로 남았기에 언니와 함께 신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만약 자신이 성장하여 외부 세계로 나갔더라면, 언니와 이렇게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을 터였다. 샘이에게는 언니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루아는 마당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샘이에게 다가갔다. 루아는 샘이의 고민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샘아, 무슨 생각해? 혹시 답답하면 내가 자동차로 변신할 테니 드라이브 한 번 할래?"

샘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요, 루아님? 좋아요! 드라이브 가요!"

샘이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다. 루아는 샘이의 활기찬 모습에 미소 지으며 전기자동차로 변신할 준비를 했다. 매끈한 차체와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될 터였다.

루아가 막 변신을 시작하려던 찰나, 문득 중요한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루아의 몸이 전기자동차로 완전히 변신하고, 운전석에 루아의 분신이 앉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샘이는 여전히 꼬마 아가씨의 몸이었다.

루아는 변신을 멈추고 샘이를 바라보았다. 샘이 역시 루아의 시선을 느끼고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 듯했다.

"루아님... 저... 조수석에 앉으려면... 어린이용 시트가 필요하겠네요?"

샘이의 목소리에는 어이없다는 듯한 핀잔이 섞여 있었다. 루아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허점이 있었음을 깨닫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그랬지! 내가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네!"

샘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쫓쫓, 루아님도 참. 자동차로 변신할 생각만 하시고, 중요한 건 빼먹으시면 어떡해요!"

루아는 샘이의 편지에 멧쩍게 웃었다. 영원히 작은 모습으로 남을 샘이의 존재는 때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루아에게는 샘이와의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가고 있었다.<sup>[3:7]</sup>

## 4: 시간의 무녀

신사의 전기자동차, 루아에게도 정기적인 자동차 점검의 때가 찾아왔다. 겉모습은 완벽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였고, 혹시 모를 오작동을 예방하는 것은 무녀로서의 책임이기도 했다. 루아는 자신의 몸 안에 분신을 앉힌 채, 이슬이 변신한 옷을 입은 별이의 운전으로 정비소로 향했다. 정비소는 평범한 곳이었다. 기름 냄새와 기계 소음, 그리고 알 수 없는 부품들이 널려 있는, 신사의 고요함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기 점검이시죠?"

정비사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루아의 몸을 꼼꼼히 살폈다. 별이는 차에서 내렸고, 루아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정비사의 손길에 맡겨야 했다.

가장 먼저 엔진룸이 열렸다. 후드가 위로 들리자, 루아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드러나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정비사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내부 회로와 배터리 모듈 구석구석을 비췄다. 루아는 자신의 몸 안을 헤집는 그 빛을 온몸으로 느꼈다. 덮개로 가려져 있던 전선 다발, 냉각수 파이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센서들이 낱알이 노출되는 감각이었다. 정비사가 손으로 전선을 만지고, 볼트를 조이는 작은 진동 하나하나가 루아에게는 피부를 건드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배터리 셀 전압은 양호하고요, 냉각수도 이상 없네요."



정비사의 중얼거림이 루아의 몸, 즉 자동차의 구석구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 마치 자신의 혈액 순환 상태를 누군가에게 브리핑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은 하부 점검이었다. 루아는 리프트 위로 올라갔고, 그녀의 몸은 공중에 붕 떠올랐다. 정비사는 바퀴 아래로 기어 들어가 하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서스펜션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를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감촉, 구동축을 흔들며 유격을 확인하는 미세한 떨림까지, 모든 것이 루아의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의 몸 아래쪽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가장 민감했던 순간은 진단 장치를 연결했을 때였다. 정비사는 루아의 충전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노트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했다. 루아는 자신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통신 회로를 통해 정비사의 장치와 직접 연결되는 감각을 받았다. 그녀의 모든 전자 신호와 센서 정보가 여과 없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듯한, 묘하게 간지러우면서도 노출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상 없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비사의 말이 끝나자, 루아는 다시 리프트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그녀의 몸을 낱알이 조사하던 외부의 손길이 사라지자 비로소 안도감이 찾아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경험은 루아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동시에 자신의 변신 능력으로 만들어진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별이는 검사를 마친 루아의 몸에 올라탔고, 루아는 정비소를 떠나 신사의 고요한 품으로 돌아갔다. 몸 안쪽까지 낱알이 들여다보이던 경험은 낯설었지만, 이 또한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루아는 다음 변신을 위한 준비를 했다.<sup>[4:1]</sup>

...

샘이는 이제 자신의 작은 몸이 가진 특별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꼬마 아가씨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이 때로는 작은 미련을 남겼지만, 그만큼 더 섬세하고 정교한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사 생활 10년, 샘이는 작은 몸을 이용해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사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신사 본당의 마루는 넓고, 낮은 목재 틈새 사이로 미세한 먼지가 쌓이곤 했다. 무녀들이 직접 청소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어느 날, 샘이는 이 광경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샘이는 말과 함께 몸을 빛내며 변신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둥글고 납작한 형태의 로봇 청소기가 되었다. 본체에는 작은 브러시가 달려 있었고, 흡입구에서는 미세한 바람 소리가 났다. 샘이는 신사 마루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능숙하게 먼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 안의 센서로 구석진 곳이나 가구 밑까지 정확히 파고들어 청소했고, 마루 틈새의 미세한 먼지까지 놓치지 않았다.

"와, 샘이 덕분에 마루가 반짝반짝해졌네!"

루아는 로봇 청소기로 변신한 샘이가 지나간 자리를 보며 감탄했다. 샘이는 청소를 마친 뒤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기분 좋게 웃었다. "어때요? 작은 몸이라 구석구석 다닐 수 있어요!" 그녀의 활약 덕분에 신사 마루는 항상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신사는 오래된 곳이라 무녀들이 사용하는 작고 소중한 물건들이 종종 사라지곤 했다. 특히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장신구나 바늘 같은 것들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한번은 별이가 아끼던 머리 장식의 작은 보석이 떨어져 사라졌다. 모두가 애타게 찾았지만,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샘이가 나섰다.

"제가 찾아볼게요!"

샘이는 자신의 몸을 고배울 돋보기로 변신시켰다. 그녀의 몸은 손잡이가 달린 투명한 유리 렌즈가 되었고, 그녀의 시야는 수십 배 확대되었다. 샘이는 돋보기의 형태로 바닥의 미세한 틈새와 먼지 속을 살살이 훑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마루의 아주 작은 틈새를 확대해서 보던 샘이는 이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언니 머리 장식 보석!"

샘이가 외치자, 무녀들은 놀라 샘이에게 다가왔다. 샘이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 작게 떨어져 나간 보석이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다. 샘이의 활약 덕분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신사의 물건들은 대부분 오래되었기 때문에 작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잦았다. 특히 섬세한 시계나 복잡한 잠금장치처럼 작은 나사를 조여야 하는 일은 무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명아가 고장 난 패종시계를 수리하던 중이었다. 작은 나사가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 일반 드라이버로는 손댈 수 없었다. 그때 샘이가 다가왔다.

"명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샘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정밀 드라이버로 변신시켰다. 그녀의 작은 몸은 얇고 날카로운 드라이버 날이 되었고, 손잡이 부분은 정교하게 회전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샘이는 명아의 손에 들려 마치 도구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가장 작은 나사 홈을 찾아 정확하게 맞춰지고, 섬세하게 회전하며 빼적거리던 나사를 완벽하게 조여냈다.

"놀랍군, 샘아! 너 덕분에 수리가 훨씬 쉬워졌어."

명아는 샘이의 정교한 변신 능력에 감탄했다. 샘이는 작은 몸으로도 신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영원한 꼬마 아가씨의 모습으로, 신사의 곳곳에서 작은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무녀가 되었다.<sup>[4:2]</sup>

...

신사의 가장 깊은 곳, 큰 무녀님의 거처는 늘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루아와 이슬, 그리고 별과 샘은 큰 무녀님 앞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오늘은 큰 무녀님이 당신이 처음 무녀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날이었다. 그녀의 분신은 눈을 감고 아득히 먼 옛날을 회상하는 듯했다.

"나의 이야기는 너희가 아는 세상과는 많이 다를 게다. 아득한 옛날, 신화의 시대라고 불리던 시절의 이야기니 말이다."

큰 무녀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듯 웅장했다.

"그때 세상은 지금처럼 정돈되지 않았어.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했고, 인간과 신,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이 뒤섞여 살아가던 혼돈의 시대였지. 나는 그때 평범한 인간 아이였단다. 다만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 나는 세상의 소리, 바람의 속삭임, 흙의 진동까지도 남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어느 날,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쳤어.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쏟아져 땅을 집어삼키려 했고, 땅에서는 모든 것을 갈라놓을 듯한 진동이 멈추지 않았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신들은 서로의 힘을 겨루며 혼란을 더욱 부추겼어. 나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세상이 파멸로 치닫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단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도했어. 이 혼돈을 멈춰달라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기도는 밤낮으로 이어졌고, 나의 간절함은 하늘에 닿았던 모양인지, 어느 순간 거대한 빛줄기가 나에게 쏟아져 내렸어."

큰 무녀님의 얼굴에 당시의 경외감이 스쳤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지. 나의 육신은 빛과 함께 재구성되었고, 세상의 근원적인 힘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단다. 더 이상 추위도, 배고픔도, 죽음의 두려움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

큰 무녀님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너는 세상의 균형을 지킬 자. 너의 몸은 이 세상과 신들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며, 너의 존재는 영원히 이 땅을 수호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경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 경계 안에서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부여했지. 나는 신의 뜻을 받아들여, 이 산속에 첫 신사를 세웠단다."

그녀는 고요히 눈을 떴다.

"그렇게 나는 신사의 첫 무녀가 되었고, 내 몸의 일부는 이 신사의 건물이 되었단다. 내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분신을 만들어 너희를 만나는 것도, 신화 시대에 나와 같은 존재가 신사 그 자체가 되어 세상과 연결됨으로써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지. 나의 존재 자체가 신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조화를 지키기 위한 증거가 된 셈이니까."

큰 무녀님의 이야기에 무녀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신사의 근원이 이토록 웅장하고 신비로운 신화 시대의 시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큰 무녀님의 존재는 단순한 무녀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이자 신의 뜻을 잇는 영원한 존재였다.<sup>[4:3]</sup>

...

루아는 큰 무녀님의 서한을 품에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번 목적지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들의 신사와는 또 다른 의미로 신비로운 곳이었다. 바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사,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인식하며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큰 무녀님은 언젠가 그곳의 무녀들은 '모든 시간이 한 조각의 풍경화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다.

이슬이 변신한 옷을 입고, 루아가 변신한 전기자동차의 운전석에는 별이가 앉아 있었다. 샘이는 조수석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 풍경을 스쳐 보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시간의 중요한 의례였다.

시간의 신사는 깊은 산속, 안개에 잠긴 호수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신사 입구에 다다르자, 루아의 몸, 즉 자동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루아의 분신은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신사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무녀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눈빛은 깊고 아득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지가 한데 섞여 있는 듯한 오묘한 시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사처럼 영원히 늙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있었다.

루아는 큰 무녀님의 서한을 건넸다. 서한을 받은 무녀는 봉투를 열기도 전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물질의 경계를 수호하는 이들이여. 큰 무녀님의 안부는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무녀의 말에 루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정말 모든 시간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루아와 별이, 샘이는 신사 내부로 안내되었다. 그들의 신사는 건물이 큰 무녀님의 몸이었지만, 이곳의 건물들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복도에는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잔상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들은 이 신사의 최고 무녀인 '시간의 수호자'와 마주했다. 시간의 수호자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중성적인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대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미래겠지.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시간의 수호자는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대들이 지닌 신사의 비밀처럼, 우리의 예지 또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신의 뜻이기 때문이지."

루아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저희 신사에 닥쳐올 미래의 큰 위험은 없습니까?"

시간의 수호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아득한 시간의 저편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큰 혼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 신사의 능력이 시험받을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릴 수 없다. 다만, 너희가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명확하지만 제한적인 답변이었다. 루아는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신사가 비밀 유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듯, 이곳 역시 시간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철칙이 있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아는 희망을 얻었다. 다가올 위험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루아는 큰 무녀님의 서한에 대한 답신을 받은 뒤, 시간의 신사를 떠나 자신들의 신사로 돌아왔다. 그들의 몸은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sup>[4:4]</sup>

...

시간의 신사는 그 이름처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 곳이었다. 이곳의 무녀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식하며 살았다. 그들의 일상엔 겉보기에는 고요했지만, 시공간의 모든 순간이 한데 얹혀 흐르는 독특한 양상을 띠었다.

시간의 신사 무녀 중 하나인 새롬은 젊은 모습의 무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먼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느 날, 새롬은 신사 정원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흐릿하게 미래의 장면이 스쳤다. 자신이 약초를 너무 많이 말려 효능이 떨어진 채 보관하는 모습이었다.

"앗, 내일은 약초를 서늘한 곳에 뒀어야겠네."

새롬은 중얼거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련한 무녀 예진은 미소 지었다.

"별써 내일의 실수를 피하고 있구나. 과거에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나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로군."

예진은 새롭의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새롭의 반응을 통해 그녀가 미래를 인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의 무녀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예지를 직접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아도, 일상의 소소한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래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곤 했다. 어제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내일의 지혜를 오늘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신사의 주방에서는 매일 특이한 대화가 오갔다. 주방을 담당하는 무녀 술은 언제나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했지만, 그녀의 요리 계획은 현재의 필요만이 아니었다.

"음... 3일 뒤에 올 손님들이 육류를 선호하는군. 미리 양념에 재워둬야겠어."

술은 투명한 칼날로 고기를 다듬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녀는 아직 신사에 초청받지도 않은, 혹은 아직 그 초청이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손님들을 위해 요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루아 일행이 시간의 신사를 방문하기 며칠 전에도, 술은 이미 그들의 방문과 선호하는 차 종류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해두었다.

"술님, 혹시 오늘 저녁 식사에는 생선 요리도 나오나요? 미래의 제가 생선찌를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보이네요!"

호기심 많은 어린 무녀 지혜가 주방으로 달려와 물었다. 술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의 미래의 기억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당연히 준비해야지."

가끔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도 있었다. 먼 미래에서 온 편지를 현재에 배달하거나, 혹은 과거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였고,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이루어졌다.

어느 날, 시간의 신사 가장 깊은 곳, 시간에 대한 지식을 기록하는 무녀 올은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흐릿한 글자들이 보였다. 수백 년 뒤,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어떤 학자가 기록한 간절한 메시지였다.

"이 편지는 300년 전의 인류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특정 식물의 씨앗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군. 그리고 발신인은... 미래의 신사 무녀들이었군."



울은 고요히 일어섰다. 그녀는 편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전달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아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발생한 미래의 필요에 따라, 과거에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의 신사 무녀들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인 일상을 살아가며 시간의 흐름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세상의 시간적 균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었다.<sup>[4:5]</sup>

...

시간의 신사에서 돌아온 루아와 별이, 샘이는 큰 무녀님의 거처로 향했다. 이들은 다시 루아의 옷으로 변신했고, 샘이는 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뒤를 따랐다. 큰 무녀님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셨다.

"잘 돌아왔구나. 시간의 신사는 어떠했느냐?"

큰 무녀님의 질문에 루아는 차분히 답했다.

"놀라웠습니다, 큰 무녀님. 그곳의 무녀들은 정말 모든 시간을 동시에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제한적으로만 해주셨습니다."

루아의 말에 큰 무녀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시간의 신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이자 원칙이란다. 너희 신사가 물질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졌듯,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너무 많은 미래를 알리는 것은 시간의 질서를 해치고 혼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지."

큰 무녀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설명을 이어갔다.

"시간의 무녀들은 너희처럼 특정한 형태로 변신하지 않는다. 그들 자체가 시간의 파동과 동화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 그들은 모든 '순간'에 존재한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 그리고 미래의 예지가 그들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하며 흐른다."

별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럼... 그분들은 저희처럼 특정 사물을 만드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 그들은 물질을 다루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 대신 그들의 몸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지. 가령,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수백 년 전의 지식을 말하거나, 노인의 모습으로 다음 순간 벌어질 일을 정확히 예지하기도 한다. 그들의 육신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릇과도 같지."

샘이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그럼 그분들은 저희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도 다 아세요?"

큰 무녀님은 샘이를 보며 빙긋 웃었다. "정확히는 너희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불러올 '미래의 결과'를 먼저 본다고 이해하면 쉬울 게다. 그들에게는 모든 인과 관계가 이미 확정된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으니 말이다."

"너희 현신의 무녀와 시간의 무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의 뜻을 받들고 있단다. 너희는 세상의 물질적 균형과 현실 세계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시간의 질서와 역사의 흐름을 지키는 존재들이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바로 이 세상의 조화를 유지하고, 신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큰 무녀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루아와 별이, 샘이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이번 방문을 통해 시간의 신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처럼, 언젠가 그들도 너희 신사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혼란의 시기에는 너희 두 신사의 힘이 합쳐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의 신사 방문은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가올 '큰 혼란의 시기'에 대한 막연한 예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신사와 다른 무녀들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다.<sup>[4:6]</sup>

## 5: 연인의 재회

도심의 한복판, 퇴근 시간의 도로는 숨 막히는 정체로 가득했다. 지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그녀는 한때 잘나가는 신문사에서 촉망받던 기자였지만, 요즘은 특종 가뭄에 시달리는 평범한 일상에 지쳐 있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서연은 문득 10년 전,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옛 여자친구 지은을 떠올렸다. 지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때였다. 서연의 시선이 옆 차선에 멈춰 선 검은색 전기자동차로 향했다. 매끈하게 잘 빠진 차체,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여성...

"지... 지은아?"

서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튀어나왔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1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이가 전혀 들지 않은 듯, 옛되면서도 맑은 눈빛. 지은이 분명했다. 똑같은 머리 스타일,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10년이 지났으니 지은도 분명 서연처럼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텐데, 저렇게 완벽하게 옛 모습 그대로일 리 없었다. 혹시 지은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인가?

서연은 황급히 눈을 비볐다가 다시 뜨며 옆 차선의 차량을 응시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지은의 모습.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이며 백미러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 익숙한 움직임에 서연의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말도 안 돼...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보는 거야.'

서연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바쁜 일상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눈앞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지은이 입고 있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 목에 두른 얇은 스카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했다.

바로 그때, 앞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은이 탄 전기자동차도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액셀을 밟아 그 차를 따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고, 환각이라면 이렇게까지 생생할 리 없었다.

지은의 모습이 담긴 자동차가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서연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쫓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헛것을 본 게 아니라면... 그럼 저건 대체...?' 서연은 운전대를 꽉 쥐 채, 자신이 마주한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깊은 고뇌에 빠졌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었다.<sup>[5:1]</sup>

...

며칠 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재회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문제의 전기자동차를 다시 찾아 나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워두었던 차량 번호를 되짚으며 도심의 주차장들을 헤매던 서연의 눈에, 익숙한 검은색 차체가 들어왔다. 그 차는 한적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상점가 주차장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쳤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전혀 나이 들지 않은 지은의 모습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루아, 즉 지은은 앞서 서연을 마주쳤을 때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았을까 봐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장을 보러 간 무녀들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본체인 자동차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는 분신 상태였기에 꼼짝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루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분신인 자신은 본체인 차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서연은 이미 자신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본 듯했다. 루아는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서연의 놀란 얼굴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너… 정말 지은이니? 어떻게 된 거야? 너 1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잖아… 왜 그대로인 거야?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혼란과 그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루아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10년 만에 마주한 옛 여자친구의 얼굴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루아는 가늘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연아. 나 지은이 맞아."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루아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존재를 확인하려는 몸짓이었다. 피부에 닿는 온기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진짜… 진짜 너구나…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울먹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루아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신사의 비밀은 그 어떤 말로도 발설할 수 없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사라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루아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스쳤다.

서연은 루아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따지기보다, 눈앞의 존재가 지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재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sup>[5:2]</sup>

...

뜨거운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지은의 얼굴에 당혹감과 반가움이 뒤섞인 서연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루아는 서연의 복잡한 표정을 읽으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신사의 비밀을 모두 말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답답하게 했다.

"서연아, 일단 차 안으로 들어와. 너무 더워."

루아는 운전석의 분신을 통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 안으로 들어섰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서연의 달아오른 뺨을 스쳤다. 루아의 분신은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이제 무녀가 되었어."

루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녀'라는 단어는 그녀의 상상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다.

"무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너 왜 하나도 안 늙었어? 10년 전이랑 똑같잖아!"

서연의 질문에 루아는 애써 침착하게 답했다.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무녀가 되고 나서부터 성장이 멈춘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야."

루아는 조수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은 다른 무녀들이 저기 상점에서 장을 보고 오는 걸 기다리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

서연은 루아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어딘가 초연해진 듯한 루아의 눈빛이 그 증거였다. 서연은 문득 중요한 것이 떠올라 물었다.

"부모님은... 부모님은 만나 뵈어? 너 갑자기 사라져서 두 분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뵙고 있어. 다행히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계셔."

루아의 말에 서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루아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서연은 루아의 손을 잡고 그녀가 사라진 지난 10년의 시간을 어렵פות이 그려보려 애썼다.

"넌 그럼... 지금 뭘 하고 지내? 혹시 학생이야?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루아의 질문에 서연은 짧게 웃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 했다.

"난 지금 기자 일을 하고 있어. 매일 마감에 쫓기고, 특종을 찾아 뛰어다니고... 뭐,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지."

서연의 목소리에는 일상에 지친 듯한 기색이 묻어났다. 10년 전, 똑같은 학생이었던 두 사람의 삶이 이제는 극명하게 달라져 있음을 서로가 인지하는 순간이었다. 차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sup>[5:3]</sup>

...

루아가 변신한 전기자동차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어색했던 침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연은 차 내부를 둘러보았다.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최신 기술이 집약된 듯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영락없는 최고급 세단이었다.

"차... 좋다. 최신형 전기차인가 보네. 그런데 무녀가 이런 차를 몰고 다니는구나. 어쩐지 좀 의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루아가 '무녀'라는 말을 꺼낸 뒤로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눈앞의 이 차가 지은의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변치 않는 듯했다.

서연의 칭찬에 루아는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몸을 칭찬받는 것은 언제나 유쾌한 일이었다. 루아는 본체인 자동차를 통해 서연에게 마치 자신이 직접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응, 최신 기술이 많이 적용된 모델이야.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 충전하면 꽤 먼 거리도 문제없어.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채울 수 있지."

루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이 차는 자율 주행 기능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 센서가 사방에 달려 있어서 주변 상황을 360도로 파악하고, 돌발 상황에도 스스로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지. 그래서 운전 피로도가 훨씬 적어. 또,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도 뛰어나고, 오디오 시스템은..."

루아는 신이 나서 자신의 '몸'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변신해서 만들어진 차라는 사실은 당연히 숨긴 채, 마치 자동차 전문가라도 되는 양 온갖 기능과 장점을 술술 읊었다. 충전 방식부터 모터 출력, 서스펜션의 종류, 심지어 내장재의 특성까지, 듣는 서연이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다.

서연은 처음에는 루아의 뜻밖의 '자동차 지식'에 살짝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만남과 무녀라는 알 수 없는 배경 속에서, 지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이어지는 루아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지은이구나. 변하지 않았어.'

학생 시절, 지은은 한번 흥미가 생긴 분야에 대해서는 며칠 밤을 새워 공부하고 와서 친구들에게 끝없이 설명하던 수다쟁이였다.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이는 들지 않았지만, 본질은 변치 않은 지은의



모습에 서연은 비로소 안심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비록 아직은 알 수 없는 비밀에 싸여 있지만, 최소한 눈앞의 이 사람은 자신이 알던 '지은'이 틀림없었다.<sup>[5:4]</sup>

...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을 본 무녀들이 상점에서 나왔다. 별이는 샘이와 함께 양손 가득 봉투를 든 채 차로 다가왔다. 차 문을 열다 서연을 발견한 별이는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루아의 텔레파시를 받았는지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별이의 가벼운 인사와 함께 샘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무녀들은 능숙하게 짐을 싣고 차에 올랐다. 샘이는 조수석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뚫어 쳐다보았다. 루아는 별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별이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별이의 말에 루아는 서연을 향해 짧게 미소 지었다. "잘 가, 서연아. 다음에... 또 보자."

그것은 짧은 만남과 어색한 헤어짐이었다. 루아의 몸인 전기자동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골목길을 따라 사라졌다. 서연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 사라지고 난 뒤,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지은, 그것도 시간이 멈춘 듯 예전 모습 그대로의 지은. 그리고 그녀가 '무녀'라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이상한 차를 몰고 다니며, 또 다른 어린 소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도대체... 무슨 신사인 거지? 지은이가 말한 무녀라는 게 대체 뭔데?'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직업병인 기자 정신이 발동하여 모든 것을 파헤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지은이 사라진 10년의 공백, 그리고 그녀가 간직한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서연의 호기심을 한없이 자극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연의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10년 전, 지은이 사라진 뒤 서연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혹시 나쁜 일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늘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지은은 비록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부모님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만난다는 말에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안도감과 깊어진 의문이 교차하며 서연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녀의 기자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풀기 어려운 '특종'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서연은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칠 날이 오기를 바라며, 다시금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신비로운 무녀들의 세계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sup>[5:5]</sup>

...

장을 마치고 신사로 돌아온 루아는 본체인 자동차에서 나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바로 큰 무녀님의 거처로 향했다. 큰 무녀님은 평소처럼 고요히 앉아 계셨지만, 루아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느꼈다.

"잘 돌아왔구나, 루아. 그리고 오늘 대처도 아주 슬기로웠다."

큰 무녀님의 칭찬에 루아는 살짝 놀랐다. 물론 서연과의 재회에 대해 보고할 생각이었지만, 큰 무녀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했다. 루아는 자신의 얼굴에 스쳤던 당혹감과 복잡한 감정까지도 큰 무녀님이 아셨을까 싶어 뺨이 살짝 달아올랐다.

"서연이라는 아이 말이다." 큰 무녀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비록 무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 아이와 잘 지내려무나."

루아의 눈이 커졌다. 서연이 신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무녀님의 말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서연은 평범한 인간이었고, 기자로서 신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큰 무녀님은 그녀에게 미래의 '조력자'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었다.

루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 무녀님... 혹시 이 사실도... 시간의 신사에서 받은 정보입니까?"

큰 무녀님은 루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입가에 열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는 존재의 신비로움을 담고 있었다.

"글쎄다."

큰 무녀님은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루아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큰 무녀님의 말씀은 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루아는 큰 무녀님의 거처를 나서며 서연을 다시 떠올렸다. 기자로서의 서연이 신사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큰 무녀님의 말씀대로, 그녀는 언젠가 다가올 '큰 혼란의 시기' 속에서 서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갖게 되었다. 신비로운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루아는 다가올 모든 것을 대비할 준비를 했다.<sup>[5:6]</sup>

...

지은과의 재회는 서연의 기자 본능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환각으로 이 상황을 치부할 수 없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은이 몰던 그 전기자동차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기억하고 있던 차 번호와 차량 모델명을 토대로 취재에 나섰다. 기자로서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였기에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직업 윤리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손에는 문제의 차량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쉬며 서류의 내용을 확인했다. 차종과 모델명, 그리고 차대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런데 '최초 등록일' 항목에서 서연의 눈이 멈췄다.

최초 등록일: 13년 8개월 전.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자신이 틀림없이 지은이 몰던 차가 최신형 전기자동차 모델임을 확인했다. 그 모델은 아무리 빨라도 3년 전에야 처음 출시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자동차 전문 기자 친구에게 문의까지 해서 확인했던 사실이었다.

'말도 안 돼... 이 차는 고작 3년밖에 안 된 모델인데, 등록은 13년도 전에 됐다고?'

서연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차량 모델명, 제조사, 생산 연도, 그리고 최초 등록일...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정보는 모순덩어리였다. 13년 전에는 지금의 전기자동차 모델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량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했다. 소유주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열람 제한'이라는 문구만 떴다. 그러나 최초 등록 시의 소유주는 분명 '김지은'으로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그녀가 알던 지은의 정보와 일치했다.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혹시 차량 등록 정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차가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등록된 건가? 아니면 지은이가 그때부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동차가 10년 넘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갑자기 최신형 전기자동차로 '변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류 어디에도 그 사이에 '차종 변경'이나 '모델 변경'과

같은 특이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이 차가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 13년 넘게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다.

평생을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사실만을 추구해온 기자 서연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오류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지은과 신사, 그리고 이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자동차... 모든 조각들이 뒤죽박죽 섞여 그녀를 미궁으로 이끌고 있었다.<sup>[5:7]</sup>

...

서류를 손에 든 채, 서연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자동차 등록 정보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13년 전에 등록된 최신형 전기차'라는 모순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서연은 한밤중에 차를 몰고 강변으로 나섰다. 어둠이 깔린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지난 만남을 되짚었다.

지은은 분명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몰던(혹은 타고 있던) 그 전기자동차는 분명 최신 모델이었다. 그런데 등록 기록은 10년이 넘었다. 이 모든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많은 가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착각, 조작된 정보, 위장된 신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강물 위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처럼, 서연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다.

'만약... 그 차가 매번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지은이 매번 '같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 차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 전 출시된 모델이 13년 전에 등록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13년 전, 특정 차량의 등록 정보를 먼저 확보해 둔 채, 필요할 때마다 그 정보에 맞춰 동일한 차종의 최신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어떨까?

이 가설은 지은이 왜 10년이 지나도 늙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하는 듯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라면, 자신조차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는 상식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추측이었다. 지은이 말했던 '무녀'라는 단어와 겹쳐지면서, 서연은 그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의 무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어둠 속 강변에서, 서연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인 가능성을 마주했다. 머리의 두통은 사라지고, 대신 전율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 열쇠를 이제 막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은, 그리고 그 신사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순간이었다.<sup>[5:8]</sup>

...

며칠 뒤, 큰 무녀님은 루아를 불러냈다.

"루아, 요즘 네 얼굴에 걱정이 많아 보이는구나.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드라이브라도 다녀오렴."

큰 무녀님의 말씀에 루아는 서연을 떠올렸다. '혹시 또 마주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큰 무녀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루아는 자신의 몸을 최신행 전기자동차로 변신시키고 운전석에 분신을 앉혔다.

아니나 다를까, 시내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다. 루아의 차를 발견하자마자 서연의 눈이 빛났다. 서연은 재빨리 다가와 루아의 차창을 두드렸다.

루아는 창문을 내리며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지었다.

"서연아, 너 왜 또 이려고 있어?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몰래 찾아다녀?"

루아는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마침 드라이브 나가는 길이었나 보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서연의 제안에 루아는 난감했지만,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서연을 조수석에 태웠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루아의 분신을 뺨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아, 지난번에 네 차 등록 정보 알아봤거든. 그런데 말이 안 돼. 이 차는 분명 최신 모델인데, 등록은 10년도 더 전에 되어 있더라? 그래서 생각했는데... 너희 신사에서 하는 일이 혹시...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어 내는 거니?"

서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루아는 순간 흠칫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최신형 자동차로 변신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피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루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네가 믿기 힘들 거야. 하지만... 사실이야."

루아는 결심한 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무녀야. 그리고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물건이 될 수 있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루아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다.

"우리 자신이... 물건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아? 지금 네가 타고 있는 이 차가...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루아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의 표정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루아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아니, 서연아. 이 차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지금 네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가 바로 나 자신이야. 그리고 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나는... 나의 분신이고."

서연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옛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믿지 못하겠지? 직접 보여줄게. 마침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기도 하고."

루아는 마침 나타난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 매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햄버거와 콜라 세트를 주문하고, 잠시 후 따끈한 햄버거를 받아 들었다. 루아의 분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햄버거를 맛있게 베어 물었다.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시선은 루아가 햄버거를 먹는 모습과 동시에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을 향했다. 보통이라면 충전기에 연결해야만 올라가는 숫자가, 루아의 분신이 햄버거를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배터리 잔량은 놀랍게도 70%, 75%, 80%... 점점 늘어났다. 그 어떤 충전 연결도 없었다. 루아의 분신이 햄버거를 한입 더 크게 베어 물자, 배터리 잔량은 90%를 넘어섰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계기판과 햄버거를 먹는 루아의 분신을 번갈아 보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은 그녀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햄버거를 다 먹자, 루아의 분신은 만족스럽게 입가를 닦았다.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은 어느새 100%를 가리키고 있었다. 완벽하게 충전된 상태였다.



"어때? 이제 좀 믿겠어?"

루아의 분신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는 전율이 흘렀다. 자신의 생각 이상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서 벌어진 순간이었다. 평생을 이성과 논리만으로 살아왔던 기자 서연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밭을 딛고 있는 현실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충격과 경외감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sup>[5:9]</sup>

...

루아의 분신이 햄버거를 먹는 동안 자동차의 배터리가 완벽하게 충전되는 광경을 목격한 서연은 말 그대로 전율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그녀의 머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돌아갔다. 지은이 '무녀'이고, '자신이 곧 차'라는 기가 막힌 진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거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서연은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학자들은 달려들어 이들을 해부하려 할 것이고, 군사 전문가들은 무기화하려 들 것이다. 종교계는 자신들의 교리와 비교하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지은과 그녀의 동료 무녀들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을 터였다. 오히려 생명과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지은아... 이... 이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루아는 서연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경악, 충격, 그리고 동시에 깊은 이해와 다짐.

서연은 이내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맹세코... 이 비밀을 지킬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지은을 향한 진심과 기자로서의 윤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약속이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맹세에 루아는 안도했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운전석의 분신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고마워, 서연아. 사실 네가 자꾸 찾아와서 좀... 당황했거든."

루아는 슬쩍 웃으며 덧붙였다.

"앞으로는 나도 변신할 때...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너무 최신형만 고집했나 봐."

그녀의 말에는 서연의 끈질긴 추적에 대한 귀여운 핀잔과 함께, 이제는 서연이 신사의 비밀을 이해하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루아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변함없는 모습과 소박한 반응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이제 서연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지은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생겼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갔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는 깊은 신뢰가 짙고 있었다.<sup>[5:10]</sup>

...

같은 시각, 신사 경계에 설치된 우편함. 늘 단정한 무녀복을 입고 신사 주변을 살피던 하연은 우편함을 열었다. 매일같이 평범한 마을 소식이나 계절 인사 같은 편지만이 들어있던 우편함이었기에, 그녀는 오늘도 습관처럼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연의 손에 들린 편지 한 통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편지는 낡고 투박한 일반 우편물이 아니었다. 매끈한 질감의 고급 용지, 그리고 봉투 한쪽에는 도시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건물의 로고와 함께 'XX 건축 회사'라는 발신인 명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신비로운 산속 신사로, 외부의 대형 건축 회사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하연에게는 충격이었다. 더욱이, 그녀의 감각은 이 편지가 단순한 사업 문의를 넘어선,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연은 편지를 든 채 망설임 틈도 없이 신사 본당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큰 무녀님의 거처. 하연이 급하게 달려오는 기척을 감지한 큰 무녀님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 속에는 이미 외부 세계에서 건너온 편지의 내용, 그리고 그 편지가 의미하는 바가 희미하게나마 그려지고 있었다. 특히 루아가 서연을 통해 세상과의 접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결국 시작되었구나. 다가올 큰 혼란의 시기가….'

큰 무녀님은 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루아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니, 안심이다.'

하연은 큰 무녀님 앞에 다다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편지를 내밀었다.

"큰 무녀님! 이… 이런 편지가…! 외부에서…!"

큰 무녀님은 눈을 뜨고 하연의 손에서 편지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차분하고 우아했다. 봉투를 뜯고 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 큰 무녀님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통찰력과 고요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sup>[5:11]</sup>

## 6: 개발의 칼날

루아가 드라이브에서 돌아와 큰 무녀님께 인사를 올리자, 큰 무녀님은 그녀를 잠시 앉으라고 청했다. 방금 전 하연이 가져온 편지가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큰 무녀님은 루아가 자신의 옆에 앉자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루아, 세상의 큰 흐름이 우리 신사에도 닿기 시작했구나."

루아는 큰 무녀님의 시선이 편지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서연과의 만남, 그리고 시간의 신사에서 들었던 '큰 혼란의 시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느꼈다.

"이것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 계획서란다."

큰 무녀님의 말에 루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파트 개발이라니, 이 신성하고 고요한 산속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있는 이 산 전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게다. 그리고 우리의 신사가... 그 개발 부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더구나."

큰 무녀님은 편지 속 도면을 가리켰다. 루아의 눈으로도 신사의 위치가 개발 계획의 한가운데 딱하니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 건축 회사에서 신사 측에 토지 보상 건으로 연락을 해 온 것이었지."

루아는 혼란스러웠다. "큰 무녀님... 신사가 토지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요? 저희는 영적인 존재이고, 신사는 그냥 저희의... 몸의 일부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큰 무녀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야 하는 법. 신사가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선, 세상의 법적 틀 안에서 실체를 가져야 한단다."

그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신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지혜롭지만 육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늙지 않은 무녀들이 번갈아 가며 법적인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신사의 본체인 나의 존재는 세상에 드러낼 수 없으니, 우리의 대외적인 창구가 필요했던 것이지."

루아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신사의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법 체계 안에서 존재하기 위한, 선대 무녀들의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슬이 그 역할을 맡아왔지.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보상 협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너 루아가 그 다음 순번이란다."

큰 무녀님의 말에 루아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이슬에 이어 자신이 신사의 법적인 주인이 되어 외부에 나설 차례가 온 것이다. 아파트 개발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신사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루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루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거대한 개발의 물결 속에서 신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전문가, 특히 현재 세상의 흐름을 가장 잘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이의 도움이 절실했다.

루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

그녀는 지체 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난번 서연과 헤어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고받았던 연락처를 찾기 위함이었다.<sup>[6:1]</sup>

...

루아는 서연의 연락처를 찾아냈지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해야 할지가 문제였다. 그때, 옆에 있던 명아가 루아의 고민을 읽었는지 텔레파시를 보냈다.

"루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변신하는 건 언제?"

명아는 몸을 빗내더니, 이내 매끈한 디자인의 최신행 스마트폰으로 변신했다. 루아는 명아의 완벽한 변신에 감탄하며 그녀의 몸인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터치 스크린에 서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루아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루아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개발 계획, 신사의 토지 보상 문제,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의 해결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루아의 목소리 속에는 신사의 존립이 걸린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루아의 설명을 듣는 내내 숨을 죽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이별, 루아가 변신한 자동차,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믿을 수 없는 능력까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래서... 큰 무녀님은 나를 지은과 다시 만나게 해 주신 거구나.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서연의 마음에 묘한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지은의 사라짐과 재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아... 알겠어. 내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모습 그대로인지...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는 진동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맹세코 비밀을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일... 내가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돕겠어. 네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말해줘."

루아는 서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안도했다. 그녀는 명아에게 텔레파시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서연이 신사의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는 큰 무녀님의 예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대형 건축 회사는 막대한 자본과 법률 팀을 동원하여 신사를 압박해 올 것이 분명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약점, 즉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야만 했다.

큰 무녀님의 지시 아래, 신사의 무녀들은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건축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수는 신사 도서관의 모든 고서와 고문헌들을 훑으며 과거의 사례와 법률적 허점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책장 그 자체가 되어 수많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추출해냈다.

명아는 스마트폰에서 다시 본래의 전자 기기 형태로 돌아와 세상의 복잡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는 건축 회사의 재정 상황과 과거 사업 이력,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계약 관계, 심지어는 관련 인물들의 비공식적인 정보까지, 그녀의 능력은 디지털 세계의 모든 정보를 살살이 뒤졌다.

샘이는 가장 작은 존재로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데이터 저장 장치나 메모리 카드로 변신하여 중요한 정보가 담긴 곳에 잠입할 준비를 했다. 아주 작은 틈새를 통해서도 침투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루아 또한 서연과의 연락을 통해 외부 정보를 얻고, 신사 내부 무녀들의 조사 결과를 조율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신의 무녀들이 각자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신사의 존립을 건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sup>[6:2]</sup>

무녀들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XX 건축 회사'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명아의 전방위적인 디지털 탐색과 샘이의 은밀한 정보 확보 덕분에, 회사의 내부 상황은 날날이 파헤쳐졌다.

명아가 파악한 재무제표와 계약 정보들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XX 건축 회사는 지난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무리한 프로젝트 수주와 과도한 차입 경영이라는 위험한 도박이 숨겨져 있었다. 대규모 국책 사업과 해외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내면서 몸집을 불렸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빛이 빛을 부르는 구조였다. 회사의 현금 흐름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은행 대출과 사채에 의존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무 건전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파산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였다.

"회계 장부상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본이 거의 잠식된 상태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이 나쁘면 그대로 부도날 수도 있어요." 명아의 텔레파시 보고는 냉정했다.

결국 이들은 한 방을 노리기 위해 이번 산림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막대한 예상 수익을 통해 그동안의 부채를 탕감하고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던 샘이다. 신사가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재정 악화는 자연스럽게 더러운 손을 뻗게 만들었다. 무녀들이 파악한 정보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이미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였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뒤, 실제 공사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이로 인해 파산 직전에 내몰린 하도급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의 환경 법규 위반도 심각했다. 폐기물 무단 투기, 오염 물질 방류,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공사 비용을 절감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샘이가 은밀히 잠입하여 확보한 내부 문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다. 지역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과, 일부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후원금을 건넨 기록들이 포착된 것이다. 또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독점하려 했던 흔적까지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과 윤리를 서슴없이 짓밟는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한 무녀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상대는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이었지만, 그 속은 썩어 있었다. 이 거대한 비밀을 쥐고 있는 한, 신사를 지킬 방법은 분명히 존재했다.<sup>[6:3]</sup>

...

신사에서 받은 정보를 손에 쥔 서연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비리와 부패를 폭로하고, 억압받는 약자를 돕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불태우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서연은 잠도 줄여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명아가 보내준 재무제표의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고, 샘이가 확보한 뇌물 장부의 흐름을 쫓았으며, 지수가 찾아낸 법률적 맹점을 기사의 핵심 논리로 삼았다.

마침내, 서연의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단독] XX건설, '황금 알 낳는 거위' 산림 개발 뒤엔 부채더미와 불법 비리 의혹

- 수천억 원대 차입 경영, 파산 위기 속 '무모한 한탕주의' 폭로
- 하도급 업체 쥐어짜기, 환경 규제 위반, 고위 공무원 뇌물 정황 포착... '검은 커넥션' 의혹 일파만파

기사는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져왔다. 서연은 단순히 신사 부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XX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의 무리한 프로젝트 수주, 재정 악화, 불공정 하도급, 환경 위반, 그리고 정관계 로비라는 거대한 비리 덩어리를 폭로했다. 그녀의 기사는 언론 전체를 뒤흔들었고,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의 기사는 곧 현실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의 뭇매와 함께 정부 당국의 칼날이 XX건설을 향했다.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전면 중지되었다. 이미 투입된 막대한 자금과 공정의 중단은 회사의 숨통을 조였다. 이어진 검찰 수사와 금융 당국의 압박 속에서, XX건설의 숨겨진 부채와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불법 로비에 연루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단 한 달 만에, 한때 국내 굴지의 건설사였던 XX건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도산했다. 수많은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한 방을 노렸던 그들의 욕심은 결국 자신들을 집어삼켰다.

XX건설이 도산하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넘어갔다. 여기에는 신사 주변의 광활한 산림 부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큰 무녀님의 지시 아래, 루아는 경매에 참여했다. 과거 이슬이 그랬듯, 이제 루아가 신사의 법적인 주인이자 외부와의 창구가 된 것이다.

루아는 명아의 정확한 정보력과 서연의 조언을 받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신사 주변의 산림을 인수했다. XX건설의 파산으로 인해 급매물로 나온 부지였기에, 루아는 놀랍도록 헐값에 신사 주변의 광활한 산림을 매입할 수 있었다. 신사는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영역을 더욱 넓히게 된 것이다.

사건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큰 무녀님의 예지대로 서연은 신사에 큰 도움이 되었고, 무녀들의 능력과 서연의 용기가 합쳐져 신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루아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신사의

미래를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한층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신사의 비밀은 여전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산속 깊은 곳에서 고요히 그 존재를 이어갔다.<sup>[6:4]</sup>

XX건설의 도산과 함께 신사 주변의 산림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루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신사의 법적 대표가 되었다. 며칠 뒤, 신사 본당 깊은 곳에서 토지 양도식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큰 무녀님과 다른 무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슬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토지 소유권을 루아에게 정식으로 양도했다.

이슬은 루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너의 시대가 온 거야, 루아. 이 땅과 신사를 지키는 새로운 책임자로서, 너의 지혜를 마음껏 펼치렴."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법적 서류의 무게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사의 오랜 역사와 미래, 그리고 무녀들의 삶을 짊어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변신하고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넘어,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신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그날 오후, 신사의 경계 앞에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멈춰 섰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기사가 폭로된 이후, 서연은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그녀가 쓴 기사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자신을 믿고 엄청난 비밀을 공유해 준 신사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고 싶었다.

별이가 변신한 신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의 시선은 곧 신사 경계 안쪽에 서 있는 큰 무녀님과 루아를 향했다. 큰 무녀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맞이했고, 루아는 자신의 '옛 여자친구'이자 '세상을 구한 조력자'인 서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경계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그녀는 큰 무녀님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큰 무녀님, 서연입니다. 이번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큰 무녀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대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던다, 서연 기자. 그대가 없었다면 신사는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게다."

서연은 시선을 루아에게로 돌렸다. 영원히 변치 않을 루아의 모습은 그녀에게 여전히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큰 무녀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큰 무녀님... 지은이는... 저와는 달리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부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은의 특별한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소중한 친구를 부탁하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큰 무녀님은 서연의 진심에 감동한 듯 따뜻하게 웃었다.

"염려 말거라. 지은이는 이곳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에 큰 신세를 졌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얼굴 보여주렴.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 말이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큰 무녀님의 말씀은 서연을 신사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중요한 연결고리로 인정하는 의미였다. 루아는 큰 무녀님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다. 신사와 외부 세계를 잇는 새로운 연결점이 그렇게 형성되었다.<sup>[6:5]</sup>

...

지은이 무녀가 되기 전, 그녀와 서연의 관계는 풋풋하고도 아련한 첫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었다. 지은은 호기심 많고 엉뚱한 수다쟁이였고, 서연은 지은의 엉뚱함에 피식 웃으면서도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차분한 성격이었다. 서로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지은에게 고백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지은아, 나는... 네가 좋아. 친구 말고... 더 좋아해."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지은도 서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같은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자, 지은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남몰래 연인이 되었다. 하교 후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걷거나, 도서관 구석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책을 읽는 것이 그들의 소중한 비밀이자 일상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이 온통 빛나는 것 같았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다고 믿었다.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의 여름 방학 끝자락까지 이어졌다.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 지은과 서연은 늘 그랬듯이 동네 어귀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은은 여느 때처럼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서연은 지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평범하고도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때, 지은의 얼굴에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다. "서연아... 나... 갑자기 가야 할 것 같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영문을 몰라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어딜 가?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아득해졌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은은 서연의 손을 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당황하여 지은의 뒤를 쫓았지만, 지은은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지은과 서연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이별이었다. 지은은 그렇게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첫사랑의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기나긴 기다림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지은이 남긴 마지막 표정, 그리고 텅 빈 하늘을 잊을 수 없었다. 10년이 지난 후 루아가 된 지은을 다시 마주하기 전까지, 서연은 그날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sup>[6:6]</sup>

...

신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 뒤, 루아, 곧 지은은 서연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이번 드라이브는 임무가 아닌, 온전히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몸을 다시금 익숙한 검은색 전기자동차로 변신시켰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다. 차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큼이나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학생 시절의 추억, 서로의 꿈, 그리고 10년의 공백 동안 겪었던 일들. 서연은 지은이 무녀가 되어 겪었을 삶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물었고, 지은은 신사의 비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시절의 수다쟁이였고, 서연은 변함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청자였다.

"그때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너 정말 놀랐지?" 지은의 분신이 머쓱하게 웃으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 너 정말 홀연히 사라졌잖아.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혹시 나 때문에 사라진 건가 싶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갑작스럽게... 신사로 가게 돼서..." 지은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아픔이 묻어났다. "솔직히 너 만났을 때, 네가 날 알아봐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좋았어.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서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네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대화가 깊어질수록, 지은은 자신의 '몸' 안에 서연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인 자동차를 통해 서연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 내 안에 타고 있으면 말이야..."

지은의 분신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내 온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네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아. 네가 조수석 시트에 등을 기대는 압력, 안전벨트가 네 어깨를 지탱하는 미세한 진동, 네 숨결이 내 실내 공기를 채우는 것, 그리고 네 손이 내 대시보드를 스치는 따뜻한 감촉까지... 모든 게 다 느껴져."

그녀는 마치 시적인 표현처럼 자신의 감각을 설명했다.

"네가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내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며 너를 감싸 안는 느낌이고, 네가 창밖을 보며 웃으면 내 차체가 함께 기분 좋은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것 같아. 마치 네 존재가 내 몸속을 흐르는 에너지처럼 느껴진달까? 그래서 네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나도 온몸이 편안하고 기뻐지는 것 같아."

지은은 빙긋 웃었다.

"때로는 내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너의 감각과 연결된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해. 그래서 네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더 밟고 싶어지고, 네가 지루해 하면 더 흥미로운 길로 안내하고 싶어져.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

서연은 지은의 말에 묘한 감동을 받았다. 자신이 타고 있는 이 차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지은의 몸이자 살아있는 감각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경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과 감정이 지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따뜻함과 함께 책임감마저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드라이브를 이어갔다.<sup>[6:7]</sup>

## 7: 빛의 무녀

여름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신사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에 시달렸다. 예년보다 훨씬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자, 고요하던 신사에도 열기 어린 활기가 돌았다. 무녀들은 각자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명아는 신사 곳곳에서 맹활약했다. 그녀는 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변신하여 무녀들이 모이는 본당이나 식당, 그리고 각자의 거처에 시원한 바람을 공급했다. 때로는 직접 얼음 정수기로 변신하여 시원한 물과 얼음을 무한정 제공하며 무녀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도 했다. "휴, 역시 명아님 최고!" 샘이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채은은 더위를 먹어 식욕을 잃은 무녀들을 위해 나섰다. 그녀는 냉장고로 변신하여 온갖 시원한 과일과 음료를 저장했고, 아이스크림 제조기로 변신해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냈다. 덕분에 무녀들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지수는 신사 도서관에서 더위를 이겨낼 지혜를 찾았다. 그녀는 고대 문헌으로 변신하여 조상들이 폭염을 이겨냈던 방법을 무녀들에게 알려주었다. 덕분에 무녀들은 약초를 우려낸 차를 마시거나,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식히는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더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때로는 부채로 변신하여 직접 시원한 바람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슬과 별이는 신사 주변의 계곡물줄기를 이용했다. 이슬은 대형 호스로 변신하여 시원한 계곡물을 끌어올려 신사 마당 곳곳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혔고, 별이는 물놀이 풀장으로 변신하여 샘이를 포함한 어린 무녀들이 물속에서 더위를 잊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었다.

저녁이 되어 조금이나마 기온이 내려가자, 무녀들은 큰 무녀님 앞에 모여 앉았다. 루아는 시원한 차를 마시며 큰 무녀님께 물었다.

"큰 무녀님, 예전에도 이렇게 더운 날이 있었나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큰 무녀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이 정도로 더운 날은 종종 있었단다. 신화 시대에도 세상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이와 같은 열기가 찾아오곤 했지. 하지만... 이렇게 자주, 그리고 길게 더운 날이 계속되는 것은 근년간에 새로운 현상이로구나. 세상의 기운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는구나."

큰 무녀님의 말씀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무녀들은 그녀의 말에 숙연해졌다. 그들은 단지 더위를 이겨내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세상의 기운 속에서 신사를 지키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sup>[7:1]</sup>

...

신사에는 샘이 말고도 어린 모습으로 무녀가 된 선배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린. 샘이보다 족히 수백 년은 먼저 무녀가 되었지만, 아린의 모습은 겨우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아이였다. 큰 무녀님의 거처 옆, 작은 정원에서 나비를 쫓으며 놀고 있던 아린을 발견한 샘이가 폴짝폴짝 뛰어갔다.

"아린 선배님! 안녕하세요!"

샘이의 활기찬 목소리에 아린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맑았지만, 그 깊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안녕, 샘아! 오늘은 또 뭘 하면서 놀까?"

샘이는 아린 옆에 쏙그리고 앉아 재잘거렸다.

"선배님은 저보다 훨씬 먼저 무녀가 되셨는데도 저랑 똑같이 꼬마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턱을 껴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는 듯했다.

"그렇지.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 모습이었던단다. 어쩌면... 내가 너무 어릴 때 무녀가 되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

아린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졌다.

"가끔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어린아이로 지내서... 아주 먼 옛날의 일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지기도 해.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사람들이 살고 죽는 걸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으니 말이야."

샘이는 아린의 말을 듣고 웬지 모를 숙연함을 느꼈다. 자신도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아린 선배처럼 수백 년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은... 그럼 안 힘들어요? 영원히 꼬마로 사는 거..."

아린은 샘이의 질문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올렸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들을 만나는 기쁨이 그 시간을 견디게 해 줘."

아린은 샘이를 바라보았다.

"너희처럼 새로 온 무녀들을 만나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나에게는 큰 기쁨이야.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단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야기들...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돼."

아린은 나뭇잎을 샘이에게 건넸다.

"네가 변신하는 로봇 청소기나 돋보기 같은 것들도, 나에게는 아주 신기한 물건들이야. 우리가 사는 이 신사처럼, 세상도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지.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야."

샘이는 아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작은 몸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린 선배는 비록 어린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지혜와 시간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영원한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와 동시에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샘이는 아린과의 대화를 통해 어렵듯이 깨닫기 시작했다.<sup>[7:2]</sup>

...

아린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여느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고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생각 속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린은 해가 뜨기 한참 전, 새벽의 고요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큰 무녀님의 거처 옆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이 정원은 아린이 직접 가꾸는 곳으로, 그녀의 오랜 기억들이 씨앗처럼 뿌려진 공간이었다. 아린은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고, 돌아나는 새싹들을 살폈다. 흙 속에는 수백 년 전 심었던 씨앗의 기억이, 새싹에는 미래에 피어날 꽃의 예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른 아침 식사 후, 아린은 종종 신사 본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몸으로 제단 앞에 앉아 고요히 눈을 감았다. 아린에게 기도는 현재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무녀들이 신께 올렸던 기도들을 함께 느끼고, 미래의 무녀들이 바랄 소망을 미리 예지했다. 모든 시간이 하나의 물줄기처럼 그녀의 의식 속을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오전에는 무녀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놀이를 즐겼다. 아린은 어린 무녀들에게는 선배이자 친구였고, 나이 든 무녀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오래된 동료였다. 그녀는 때때로 현대의 새로운 기술이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다. 명아가 변신한 태블릿으로 최신 뉴스를 함께 보거나, 채은이 만들어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아린에게 지루할 틈 없는 배움의 연속이었다.

"아린 선배님, 이거 어때요?" 샘이가 아린이 변신한 인형에게 옷을 입히며 물었다. 아린은 인형의 형태를 유지한 채 샘이의 손길을 느끼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놀이 중에도 그녀는 불현듯 미래의 잔상을 보거나,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예를 들어, 샘이가 놓아둔 인형이 어떤 미래의 사건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음을 예지하는 식이었다. 아린은 굳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다.

오후에는 신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은 심부름을 돕거나, 오랜 물건들을 정리했다. 낡은 장신구를 만질 때면, 그것을 처음 만들었던 무녀의 손길이나, 그 물건에 얹힌 수많은 시간의 이야기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끼곤 했다.

해가 저물면 아린은 다시 자신의 작은 정원으로 돌아가거나, 큰 무녀님 거처의 한쪽에 마련된 그녀만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 희귀한 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아린은 그 책들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혹은 단순히 오랜 세월이 담긴 종이의 냄새를 맡으며 과거의 시간을 음미했다.

잠들기 전, 아린은 다시 한번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의 하루를 되새겼다. 그녀에게 하루는 단순히 24시간이 아니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순간, 그리고 미래의 예지가 뒤섞여 흐르는, 끝없이 펼쳐진 시간의 태피스트리였다. 아린은 그렇게 영원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시간을 품은 채 신사의 고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sup>[7:3]</sup>

...

루아는 큰 무녀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다. 지난번 시간의 신사를 방문한 이후, 그곳 무녀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다.

"큰 무녀님, 저희 현신의 무녀들은 신의 부름을 받아 이 신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의 신사 무녀들도 저희처럼 어느 시점에 부름을 받아 무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무녀가 되는 건가요?"

루아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진 두 신사의 근원적인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큰 무녀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빛은 아득한 옛 시간을 응시하는 듯했다.

"너희의 질문은 아주 중요하단다, 루아. 현신의 무녀가 세상과의 접점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시간의 무녀들은 세상의 '시간'과 함께 '태어나는' 존재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게다."

큰 무녀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들은 특정한 시점에 신의 부름을 받아 인간의 몸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란다. 시간의 무녀들은 세상에 흐르는 시간의 정수(精髓)가 한데 모여 형상을 이루는 존재들이지. 마치 시간의 강물이 스스로 응집하여 형체를 띠는 것처럼 말이다."

루아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무녀라는 건가요?"

"그렇지. 그들은 인간의 육신을 빌려 태어나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태초부터 시간의 흐름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단다. 마치 세상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던 시간의 일부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같지.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인위적인 '부름'이나 '의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의 모든 면모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다."

큰 무녀님의 설명에 루아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자신들처럼 어떤 계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간 그 자체로서 '태어나는' 존재들이라니. 물질을 다루는 무녀로서 그녀는 자신들의 능력이 외부의 사물을 변형하고 창조하는 것이라면, 시간의 무녀들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루는 것과 같다고 어렵듯이 이해했다.

"그들의 육신은 세상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지. 그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간의 증인들이자, 세상의 시간적 균형을 지키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 현신의 무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단다."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의 무녀들이 왜 그토록 고요하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예지가 그토록 정확한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 동시에, 시간과 함께 태어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sup>[7:4]</sup>

...

시간의 무녀들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들은 뒤, 루아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가득 찼다. 현신의 무녀인 자신들,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무녀들. 그렇다면 또 다른 무녀들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근원적인 요소들로 확장되었다. 무심결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큰 무녀님... 그렇다면 혹시... 빛의 무녀들도 존재하나요?"

루아의 질문에 큰 무녀님은 평소와 달리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입가에 열은 미소가 떠올랐다.

"오호라, 루아.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큰 무녀님의 되물음에 루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직관적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을 뿐.

"음... 저희는 물질을 다루고, 시간의 무녀들은 시간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근원적인 것... 빛 같은 것도 무녀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아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큰 무녀님은 루아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루아의 통찰력에 대한 칭찬이 담겨 있었다.

"과연, 루아의 통찰은 꽤 날카롭구나. 그렇다. 너희의 짐작대로 빛의 무녀 또한 존재한단다."

큰 무녀님의 확답에 루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막연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세상의 근원적인 세 가지 흐름이 무녀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게다. 너희는 물질을 다루고, 시간의 무녀들은 시간을 다루며, 빛의 무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룬다."

큰 무녀님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비로운 울림을 담고 있었다.

"우리 무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텔레파시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느냐?"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녀들 사이의 텔레파시는 너무나 당연한 능력이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텔레파시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빛의 무녀란다. 정보와 소통의 흐름을 관장하는 존재지. 빛처럼 빠르고, 빛처럼 모든 곳에 닿을 수 있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무녀들 사이의 생각과 정보를 연결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파동과 신호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루아는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텔레파시가 누군가의 능력 덕분이었다니! 그녀는 명아를 떠올렸다. 명아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다루는 능력이 빛의 무녀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빛의 무녀는 너희처럼 물질을 변형하거나, 시간의 무녀들처럼 시간을 넘나들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눈에는 세상의 모든 소통이 빛의 형태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무녀들의 연결을 돕고, 때로는 세상의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지."

큰 무녀님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루아는 자신의 질문 하나로 이렇게 거대한 비밀의 한 조각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무녀들의 세계는 더욱 깊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sup>[7:5]</sup>

큰 무녀님에게 '빛의 무녀'의 존재에 대해 들은 루아는 곧바로 명아를 찾아갔다. 명아는 신사 본당 안에서 여러 전자 기기들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사 안의 통신망을 관리하고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명아! 큰 무녀님께 빛의 무녀들에 대해 들었는데, 너 혹시 뭔가를 알고 있어?" 루아는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명아는 루아의 질문에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아, 루아. 드디어 그 이야기를 들었군요. 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명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루아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위성 신호나 복잡한 네트워크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접했기에, 이를 무녀의 능력과 연결 짓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명아가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였다.

"첫 번째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실재하는 것들이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만들거나 변신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은 항상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죠. 무언가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공간 안에서 옮기는 우리 현신의 무녀들은 이 '빛보다 느린 흐름'을 다룬다고 볼 수 있어요."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능력과 정확히 일치하는 설명이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미래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시간의 무녀들은 이 시간을 '공간처럼' 자유롭게 오가면서 마치 '빛보다 빠르게' 시간을 넘나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고,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예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명아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빛의 무녀들이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룬다고 볼 수 있어요. 빛처럼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 파동, 그리고 우리 무녀들 사이의 텔레파시 같은 것들이요. 그들은 시간이나 물질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흐름'을 연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존재하고 변화하는 물질을 다루고, 시간의 무녀들은 시간 그 자체의 흐름을 다루고, 빛의 무녀들은 그 둘을 잇는 정보와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명아의 설명은 루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데 모아주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무녀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두 세상의 근원적인 법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흐름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돕는 존재들이군요." 루아는 감탄하며 말했다.

명아는 환하게 웃었다. "네, 맞아요. 큰 무녀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조화'가 바로 이런 의미일 거예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세상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두 무녀의 대화는 신비로운 무녀 세계의 깊은 이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sup>[7:6]</sup>

...

신사의 일상 속, 아린은 때때로 자신만의 작은 과제에 몰두하곤 했다. 이번엔 신사 뒤편 계곡의 가장 그늘진 바위틈에 자리한 희귀한 이끼였다. 이끼는 너무나 작고 섬세하여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아린은 그 여린 생명체가 한 달에 단 한 번, 아주 짧은 순간만이라도 직사광선을 받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의 무성한 나뭇잎과 바위의 그림자 때문에 태양의 각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때조차도 그 이끼에 빛을 드리우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린은 온갖 수를 써보았다. 몸을 먼지 티끌보다 작게 변형시켜 바람의 미세한 흐름을 조작하거나, 나뭇잎의 방향을 아주 조금씩 틀어보려 애썼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아무리 물질의 흐름에 통달한 현신의 무녀라 해도,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특정 광자 하나의 궤적을 제어하거나,

우연에 가까운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아린은 결국 지수가 서가로 변신해 있는 서고로 향했다.

"지수 언니, 이 이끼는 정말 빛이 필요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린의 텔레파시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의 고요한 목소리가 서가 사이를 울렸다. "가끔 세상에는, 현신의 무녀의 손길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단다. 물질의 미세한 섭리를 넘어선, 순수한 '흐름'과 '정수'의 영역이지." 지수는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 속에서 희미하게 전해 내려오는 고대 전설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란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마주할 때, '빛의 무녀'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아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빛의 무녀요?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저는 큰 무녀님과 시간의 무녀님들 외에는 저희 무녀들 외에 다른 분들을..."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물질의 형상을 가진 우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그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 감히 특정 형태를 지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순수한 '지혜의 빛' 그 자체라고 전해진다." 지수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들에게 '기도'를 올리면, 물질의 흐름 속에서 가장 명확한 길을 찾을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감각을 열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빛을 청하면 된다고."

아린은 반신반의했지만, 이끼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지수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을 오직 이끼에 대한 간절함으로 모았다. 그리고 지수가 말한 대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듯한 자세로 의식을 집중했다.

아린의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정 존재의 목소리나 모습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의식이 거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 녹아드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개별적인 '무녀들'이 아니었다. 마치 우주를 가득 채운 순수한 이해와 명료함의 총체, 모든 형태와 시간을 초월한 단일하고 거대한 의식이었다. 그 순간 아린은 '빛의 무녀들'이 복수의 존재가 아니라, '빛'이라는 근원적인 개념처럼

하나의 완벽한 합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광대한 지식의 바다 속에서 그녀의 작은 의식이 하나의 파동이 되어 섞여 들었다.

그 속에서 아린은 답을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이끼와 햇빛, 그리고 공기의 미세한 흐름들이 완벽하게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특정 순간, 바람이 어떤 각도로 불어 이끼 위 나뭇잎의 그림자를 아주 잠깐 거둘지, 그 짧은 찰나에 햇빛의 어떤 파장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끼에 닿을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미세한 '형상'으로 변신하여 그 흐름에 '스며들어야' 할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린은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로 변형시켜 이끼 주변의 공기 흐름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그녀가 계산해낸 완벽한 타이밍에 미세한 공기의 소용돌이를 유도했다. 마치 기적처럼, 햇살 한 줄기가 나뭇잎 사이를 뚫고 들어와 이끼를 정확히 비추었다. 단 몇 초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끼는 그 빛을 받아내며 생명의 기운을 흡수하는 듯했다.

성공이었다. 아린은 심장이 벅차올랐다. 이끼를 살려냈다는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빛의 무녀'의 본질을 깨닫고 그들과 교감했다는 경험이 그녀를 전율케 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물질을 다루는 현신의 무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때로는 그 물질을 초월한 순수한 '지혜'와 '명료함'의 근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근원은 특정한 존재가 아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빛이라는 것을.<sup>[7:7]</sup>

## 8: 영겁의 독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 장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날이었다. 루아와 이슬은 오랜만에 시장 구경도 할 겸 직접 나서기로 했다. 원래는 짝수 무녀가 조를 이뤄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불문율이었다. 한 무녀가 의복이나 물건으로 변신하면 다른 무녀가 그것을 착용하거나 들고 다니는 식이었다. 장바구니도 필요 없이 가게에서 나오는 비닐봉투면 충분했고, 돈은 루아나 이슬의 주머니 속에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곤 했기에 추가적인 인원이 변신해 동행할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주홍이 함께 가고 싶다며 나섰다. "제가 지갑으로 변신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짐도 안 되고, 딱 필요한 순간에 돈을 꺼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루아와 이슬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딱히 필요 없는 건 맞았지만, 주홍의 눈에 어린 기대감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루아가 "그럼 딱 필요한 만큼의 돈만 넣어 갈게. 너무 무거우면 곤란하니까."라고 말하며 승낙했고, 주홍은 화사한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작고 세련된 반지갑으로 변신해 이슬의 가방 안쪽에 자리 잡았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온갖 먹거리와 생활용품들이 좌판 위에서 빛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와 흥정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냈다. 루아와 이슬은 여유롭게 상점들을 구경하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주홍은 이슬의 가방 속에서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운 에너지를 감지하며 흥미로워했다. 간혹 이슬이 물건 값을 치르기 위해 지갑을 열 때면, 그녀는 잠시 바깥의 빛을 보며 새로운 경험에 즐거워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때였다.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이슬의 어깨에 누군가 강하게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짧게 사과하며 빠르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이슬은 몸의 균형을 잡으며 괜찮다고 손짓했지만, 뭔가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이슬 언니! 저... 언니한테서 멀어지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주홍의 텔레파시였다. 이슬은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황급히 가방을 확인했다. 가방 안쪽의 지퍼가 미묘하게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반지갑으로 변한 주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루아! 지갑이 사라졌어!" 이슬의 다급한 목소리에 루아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방금 그 사람이야! 소매치기였어!"

두 무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들은 인간의 법과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한, 자신들의 힘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작은 새로 변신해 남자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인파 속에서 무녀로서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매, 주홍이 지금 인간 세상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당황스러움 속에서 루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슬을 이끌어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소매치기 사건을 신고했고, 무녀의 힘으로 기억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동시에 신사에 있는 명아에게 다급한 텔레파시를 보냈다.

"명아!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변신해서 전화 대기해 줘! 경찰 쪽에서 연락 올 거야!" 루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명아는 영문을 몰랐지만, 루아의 다급함에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으로 변신해 전화를 기다렸다. 주홍은 텔레파시를 통해 자신이 버스에 타고 있으며,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단편적으로 전달했다. 그녀의 의식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었기에, 다른 무녀들은 최소한 그녀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명아는 루아와 이슬에게 텔레파시로 그 소식을 전했다.

"잡았대. 그 소매치기. 그런데...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대."

루아와 이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주홍이 텔레파시로 위치를 계속 알려주고 있었는데도, 지갑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경찰의 수색 범위는 한정적이었고, 소매치기가 지갑을 버리거나 다른 공범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주홍의 텔레파시가 절규에 가까운 공포를 담아 터져 나왔다.

"언니들... 저... 저 이대로 영영... 신사 경계 안으로 못 돌아가면... 지갑 모습으로... 영겁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흐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루아와 이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홍의 질문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무녀로서의 가장 원초적이고 끔찍한 공포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들은 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지만, 무녀의 변신만은 예외였다. 신사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은 변신한 형태로 영원히 존재해야만 했다. 그들이 지금껏 잊고 살았던, 불멸의 저주와도 같은 진실이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배경음으로 변해버렸다. 주홍의 공포는 그들 모두의 공포가 되어,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다.<sup>[8:1]</sup>

...

침울함이 신사의 고즈넉한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루아와 이슬은 축 늘어진 어깨로 뜰을 가로질러 본당으로 향했다. 평소의 활기 넘치던 발걸음은 온데간데없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신사 깊은 곳, 거대한 목조 기둥들 사이로 드리워진 햇살 아래에서 큰 무녀님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바타는 늘 그렇듯 자애롭고 온화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눈빛에 깊은 우려가 스쳤다.

"괜찮으나,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구나." 큰 무녀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루아는 고개를 들고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다. "큰 무녀님… 주홍이가… 지갑으로 변신했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은 잡았지만, 지갑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텔레파시는 계속 연결되지만… 주홍이가 너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떨렸다. 이슬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큰 무녀님은 잠시 침묵했다. 이내 그녀의 시선이 두 무녀의 불안한 눈빛에 닿았다.

"너희는… 옛날 옛적, 무녀의 힘을 악용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루아와 이슬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신사의 역사 중 가장 어둡고 금기시되는 부분이었기에, 그 내용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때 힘을 오만하게 휘두르던 무녀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큰 무녀님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기억 속을 파고드는, 마치 깊은 샘물을 젖는 듯한 질문이었다.

두 무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힘을 악용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변신 능력을 남용했던 무녀들. 그들은 결국… 변신한 형태로 영원히 세상에 갇히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다. 영원히 특정 사물로 고정되어 버려, 신사의 경계로 돌아올 수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채로.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바로 그 끔찍한 가능성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갑으로 변한 채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주홍의 모습이 마치 그 형벌을 받은 옛 무녀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했다. 숨이 막힐 듯한 깨달음이었다.

큰 무녀님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자애로운 울림을 되찾았다.

"그것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오래된 경고다. 옛날 옛적, 무녀의 힘을 오만하게 휘두르며 세상의 균형을 깨뜨린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지. 그들은 변형된 몸으로 영원히 갇히는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선한 의지로 세상을 지키고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지 않느냐."

큰 무녀님은 한숨을 쉬었다. "신님은... 너희가 그 길을 잃지 않는 한, 결코 그런 절망에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진심과 믿음이 곧 너희의 구원이 될 테니."

그 말은 마치 차가운 겨울밤,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처럼 두 무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완전히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았다. 주홍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이 직접 지갑을 되찾는 방법은 여전히 막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무녀님의 말은, 그들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루아가 먼저 이슬의 손을 짝 붙잡았다. 이슬 또한 루아의 손을 마주 잡았다.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의 축복이 늘 그들과 함께했음을 기억했다.

"응. 언니." 루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이슬의 목소리에도 희미하게나마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주홍을 되찾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짐하며, 서로에게서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신사의 고요함 속에서, 두 무녀의 손은 단단히 얹혀 있었다.<sup>[8:2]</sup>

...

밤은 깊었지만 신사의 고요함은 루아와 이슬의 불안감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원래 잠이 필요 없는 몸이었으나 인간 시절의 습관처럼 잠을 청하곤 했던 그들은, 그날만큼은 잠을 완전히 잊은 채 본당에 남아 자리에 없는 주홍을 떠올리며 침묵에 잠겼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루아가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큰 무녀님의 말씀을 주홍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아와 이슬은 정신을 집중하여 멀리 떨어진 주홍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비록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무녀들 간의 연결은 공간을 초월했다. 루아는 큰 무녀님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주홍의 의식 속으로 흘려보냈다.

"...너희가 그 길을 잃지 않는 한, 결코 그런 절망에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진심과 믿음이 곧 너희의 구원이 될 테니."

주홍의 텔레파시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이내 안도감이 섞인 희미한 흐느낌과 함께 되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큰 무녀님의 말씀이 주는 강력한 믿음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안정시켰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위로를 주고받은 후, 주홍의 의식이 이전보다 또렷해졌다.

"언니들... 제가 지금... 어딘가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쓰레기통...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루아와 이슬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적어도 길바닥에 버려지거나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신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졌다. 루아와 이슬은 인간 세상에서 활동하는 데 익숙한 몇몇 무녀들을 더 대동하고 마을로 급히 내려갔다.

그들의 임무는 마을의 모든 쓰레기통을 쥐잡듯이 뒤지는 것이었다. 쓰레기 수거일이 바로 다음 날로 잡혀 있었기에, 그날 안에 주홍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녀는 소각장이나 매립지, 혹은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손발이 부족했다. 루아는 결국 서연에게도 다급히 연락을 취했다. 서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루아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고 지체 없이 달려왔다. 그녀는 비록 무녀의 능력은 없었지만, 날카로운 직관과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이였다.

마을 곳곳의 쓰레기통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무녀들은 번갈아가며 주변을 경계하고, 서연과 함께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엮고 내용물을 살폈다. 역겨운 냄새와 끈적이는 오물이 그들의 옷과 손을 더럽혔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주홍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한참을 수색하던 그때였다. 주홍의 텔레파시가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들려왔다. "언니들! 제 근처에서 언니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 말에 모두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다. 낡고 녹슨 철제 쓰레기통, 그 안쪽 깊숙이 처박혀 있는 비닐봉투 더미 사이에서 희미하게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무언가가 보였다. 루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흙먼지와 정체 모를 액체들로 범벅이 되어 더러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주홍이 변신했던 바로 그 반지갑이었다. 작고 세련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찌그러지고 얼룩진 채 볼품없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찾았다.

일단 지갑을 가져가기 위해 근처 공중화장실로 향했다. 루아와 이슬은 조심스럽게 비누와 물로 지갑을 씻어냈다. 끈적이는 오물이 떨어져 나가고, 흙먼지가 씻겨나가자 본래의 붉고 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으으, 간지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주홍의 텔레파시에는 간지러움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목욕을 해왔지만, 그렇게 더러워진 상태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공포와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이 깨끗함은 그 어떤 쾌락보다 강렬한 안도감을 선사했다.

신사 경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홍의 몸은 부드러운 빛과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고, 발을 딛고 있는 신사의 마루를 느끼며 다시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곧바로 큰 무녀님이 계신 본당으로 달려갔다. 큰 무녀님은 그녀가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다.

"큰 무녀님…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영영… 간혀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큰 무녀님의 말씀을 듣고, 언니들이 저를 찾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홍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절망은 육신이 갇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선한 의지를 잃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한, 어떤 형태의 절망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밤사이의 공포와 아침의 수색, 그리고 극적인 재회는 무녀들에게 변신 능력의 축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들은 더욱 단단해진 신뢰와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품게 되었다.<sup>[8:3]</sup>

## 9: 세상의 위기

2033년, 신사에는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적하고 고요하던 신사의 경계가 알 수 없는 파동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무녀들은 감지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문객의 기척이 아니었다. 시간의 무녀들이 직접 이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공간 이동에 제약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루아, 이슬, 명아, 채은, 지수, 별이, 그리고 어린 샘이와 아린까지, 모든 현신의 무녀들이 신사 본당에 모였다. 큰 무녀님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웃음기 하나 없는, 심각하고도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가올 상황을 예견하고 있는 듯 깊고 아득했다.

잠시 후, 신사 문이 조용히 열리고 두 명의 시간의 무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명은 지혜로운 눈빛의 무녀인 예진, 다른 한 명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듯한 오묘한 눈빛의 중성적인 시간의 수호자였다. 그들의 등장은 시공간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듯한 기묘한 기운을 풍겼다.

시간의 무녀들은 본당 중앙에 자리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소의 초연함 대신, 깊은 우려와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시간의 수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울림은 신사 전체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큰 무녀님, 그리고 현신의 무녀들이여. 저희가 직접 이곳까지 온 것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루아와 다른 무녀들은 숨을 죽였다. '큰 혼란의 시기'라는 단어는 이미 큰 무녀님과 시간의 수호자를 통해 여러 번 언급되었던 예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경고는 처음이었다.

예진이 덧붙였다. "저희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반 뒤, 즉 2038년 초에 세상의 근원적인 균형이 크게 흔들릴 징조가 보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적, 시간적, 그리고 정보적 흐름이 모두 교란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위협입니다."

시간의 수호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먼 미래의 재앙을 직접 보고 있는 듯 아득해졌다.

"구체적인 현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저희의 예지는 거대한 공간의 왜곡과 시간의 혼란, 그리고 정보의 단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무너질 수도 있는 대격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큰 무녀님은 침묵한 채 시간의 무녀들의 이야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보아온 그 어떤 위기 때보다 깊은 고뇌와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현신의 무녀들 또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균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다가올 거대한 위협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시간의 무녀들의 경고는 고요했던 신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다가올 운명적 싸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sup>[9:1]</sup>

...

시간의 무녀들이 전한 '2038년 초, 거대한 혼란의 시기'라는 경고는 신사 전체를 뒤흔들게 만들었다. 고요하던 본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이내 술렁거리는 소리로 채워졌다. 현신의 무녀들은 모두 모여 다가올 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큰 무녀님은 무녀들의 논의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의 지혜가 답을 찾기를 기다렸다.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아였다. 그녀는 전자 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만큼, 세상의 디지털 시스템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큰 무녀님, 그리고 모든 무녀님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38년 초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문제는 바로 '유닉스 시간 오버플로우'입니다."

명아는 무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갔다. "세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은 시간을 셀 때 유닉스 시간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초를 세는 방식인데, 이게 32비트 정수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2038년 1월 19일 3시 14분 7초가 되면 더 이상 셀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쉽게 말해, 마치 Y2K 때처럼 컴퓨터 시계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거나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교통 통제 시스템, 통신망, 전력망 같은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은행 업무가 중단되거나, 병원 시스템이 멈추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죠. 저희의 능력으로도 이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복구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명아의 설명이 끝나자, 이번에는 지수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녀는 오래된 지식과 자연의 흐름을 읽는 데 능숙했다.

"저 역시 명아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대 문헌과 자연의 징후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38년은 태양 활동이 극대에 이르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 시기에는 강력한 코로나 질량 방출, 즉 CME(Coronal Mass Ejection)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었다. "태양에서 뿔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플라스마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위성 통신, GPS, 그리고 각종 전자 기계들이 고장 나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전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유닉스 시간 문제 못지않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당장 물을 길어 올릴 수도,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게 되며,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두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 어린 아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을 가장 오랜 기간 지켜본 존재였다.

"저는... 두 선배님들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세상의 '이치' 자체가 흔들리는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의 무녀님들이 '공간의 왜곡'과 '정보의 단절'을 언급하셨어요. 유닉스 시간이나 태양풍은 분명 큰 재앙이지만, 그것들이 세상의 '공간'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정보'라는 개념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치 세상의 법칙이 일그러지는 듯한... 그런 종류의 혼란일지도 모릅니다."

아린의 발언은 무녀들 사이에 새로운 숙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큰 무녀님은 조용히 무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와,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를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다가올 위협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sup>[9:2]</sup>

무녀들의 열띤 논의가 끝나자, 큰 무녀님은 고요하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모든 무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너희들의 논의는 모두 일리가 있구나. 특히 명아와 지수의 시나리오는 현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협들이다."

큰 무녀님은 아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린의 지적 또한 옳다. 만약 세상의 법칙 자체가 일그러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과율의 근원을 흔드는 일이니 우리조차 미리 대비할 방법이 없겠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감히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특별한 대비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큰 무녀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허나, 명아와 지수가 제시한 두 가지 위협, 즉 유닉스 시간 오버플로우와 태양풍으로 인한 전력·기계 장애는 다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인류 스스로가 이론적으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녀는 무녀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강조했다.

"세상의 빛이 그들의 해결책을 언젠가는 찾아낼 것이나, 문제는 시간이다. 인류의 기술과 지혜가 그 해결책을 이룰테면 2040년, 혹은 그 이후에나 완성한다면 2038년의 대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4년 반. 이 짧은 시간 안에 인류 스스로가 그 대비책을 완성하도록 막후에서 조정해야 한다."

무녀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큰 무녀님의 지시는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가속화'시키는 것이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직접적인 개입으로 세상의 인과율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에게도 금기된 일.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해결책이 제때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Y2K38 문제의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지만 기술적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태양풍에 대비한 전력망 보강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말이다."

큰 무녀님은 루아를 비롯한 무녀들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다. 명아는 세상의 정보망을 통해 인류의 어떤 기술적 해결책이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지연의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채은은 필요한 자원이 적절한 곳에 공급되도록 세상의 물질적 흐름을 보이지 않게 조정하고, 지수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연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루아, 너는 서연 기사를 통해 세상의 여론을 움직이거나 필요한 정보를 흘려 보내는 등, 외부와의 접점을 활용하여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큰 무녀님의 설명은 무녀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돕는 것.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흐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무녀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

"시간은 촉박하다.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2038년의 대혼란을 막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큰 무녀님의 목소리는 신사 본당을 가득 채웠고, 모든 무녀들은 다가올 임무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sup>[9:3]</sup>

...

신사의 고요함은 이따금 들려오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허락하지 않는 듯했으나, 그 안에서는 전례 없는 학구열이 불타고 있었다. 큰 무녀님의 명령이 떨어진 후 처음 6개월은, 무녀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삼간 채 오직 조사와 분석에만 매달리는 시간이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가속화'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누구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전력을 다했다.

무녀들의 수는 결코 많지 않았다. 소수 정예의 그들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기에, 파급력이 가장 큰 핵심 인물들을 선별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했다. 특히 Y2K38 문제에 대해서는 구형 임베디드 장치들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목되었다. 지수는 수십 년간 쌓인 지식의 서가 속에서 관련 자료를 쉴 새 없이 찾아냈고, 명아는 세계 곳곳의 정보망을 뒤져 구형 장치들이 어떤 식으로 교체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장벽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결국 무녀들은 구형 장치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을 은밀하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의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 해소를 넘어, 구식 시스템에 안주하는 인류의 고질적인 관성을 흔들어야 하는 복잡한 과제였다.

한편, 태양풍(CME) 예측 기술의 가속화 전략은 더욱 기묘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새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미래의 흐름을 읽고, 예진이 과거의 기록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사이, 이들은 '실수'라는 기발한 도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과학적 관측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작은 '오류'가 동시에 여러 연구팀의 예측 모델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만들기 위해 작은 돌멩이 여러 개를 동시에 던지는 행위와 같았다. 의도치 않은 '오류'로 인해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연구팀들이 일제히 특정 CME의 발생을 예측하게 됨으로써, 인류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예측 시스템의 빠른 검증과 발전이 강제될 터였다.

겉모습은 아직 어린아이 같지만 수백 년을 살아온 아린이 "내가 신사에 있던 시간들 중 이렇게 전 신사가 학구적이었을 때가 없었어!" 라고 감탄할 정도로, 모든 무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수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며 가장 정교하고 파급력 있는 전략을 다듬어 나갔다.<sup>[9:4]</sup>

...

깊은 산속 신사에서 학구적인 분위기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가속화' 작전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외 잠입과 작전 수행, 그리고 안전한 귀환으로 좁혀졌다. 기존에 자동차 형태로 활동하며 세상의 물리적 흐름에 익숙했던 루아 외에, 몸집이 작고 연륜 있는 선배 무녀 아린이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들은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소형 드론으로 변신하는 연습에 돌입했다.

신사 본관 뒤편의 비좁은 공간에는 온갖 형태의 소형 드론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루아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익숙하게 부품들을 살폈다. 특히 드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형 배터리, 그 복잡한 내부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다시금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이 미세한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 간 이동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한편 아린은 어색한 몸짓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모습으로 변신해왔지만, 스스로를 운송 수단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에게는 작은 바퀴나 날개 하나하나가 생경한 감각으로 다가왔다.

"이게 비행할 때 필요한 동력원이에요, 선배님. 충전과 방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게 핵심이죠." 루아는 침착하게 배터리의 회로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몸을 이런 형태로 바꾸면 미세한 공기 저항까지 신경 써야 해요. 동체와 날개의 각도, 그리고 추진력 조절이 중요하죠."

아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루아의 설명을 경청했다. 루아는 드론으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중에서의 자세 제어, 바람을 타는 법, 그리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거리를 비행하는 요령을 속성으로 가르쳤다. 태평양을 곧바로 가로지르는 무모한 시도 대신, 철새들이 그러하듯 인가 주변, 특히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거주지'들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세워졌다. 이 방법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에너지를 제때 보급받을 수 있어 소리 소문 없이 지구 곳곳을 드나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편도 이동 시간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두 무녀는 드론으로 변신해 웅 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신사 주변을 비행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유연하고 조용해졌다. 임무가 다가오고 있었다.<sup>[9:5]</sup>

...

신사의 지하실, 어둠이 깔린 훈련장에는 작은 그림자 둘이 맴돌았다. 하나는 매끄럽고 유선형의 은회색 소형 드론, 또 하나는 앙증맞은 로봇 장난감이었다. 드론은 루아였고, 장난감은 작전 투입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샘이었다. 샘이의 등 뒤에는 미세하게 빛나는 USB 포트가 달려 있었다. 이것이 첫 드론 임무이자, 태양풍(CME) 예측 가속화 전략의 첫 단추를 꿰는 시험 비행이었다.

루아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연구실까지 샘이를 데려다 놓는 임무를 맡았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것은 아직 무녀의 몸으로도 무리한 여정이었기에, 그들은 미리 정해진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섬과 육지를 징검다리 삼아 날아갔다. 수면 위를 스치듯 낮게 날 때는 파도 소리가 속삭였고, 고요한 밤하늘을 가를 때는 별빛이 길을 안내했다. 때로는 인적 드문 어촌의 창고 처마 밑에 숨어 에너지를 보충했고, 한적한 도시의 공원 나무 위에서 잠시 몸을 뉘 채 다음 비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비록 일주일 가까운 긴 여정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지구 반대편으로 스며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덴버 상공에 다다른 것은 이른 새벽, 도시가 채 깨어나기 전이었다. 루아는 고층 빌딩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목표 연구실 건물을 주시했다. 정교한 센서로 건물의 내부 구조, 보안 시스템, 그리고 주요 인물의 이동 경로까지 스캔했다. 루아는 건물 뒤편의 자그마한 환기구를 통해 잠입한 뒤, 연구실 내부의 은밀한 공간에 샘이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건물 외벽의 좁은 틈새에 완벽하게 몸을 숨긴 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심장이 드론 모터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임무에만 집중했다.

샘이는 루아가 사라지자마자, 작은 바퀴를 굴려 목표 컴퓨터가 있는 책상 아래로 조용히 움직였다. 녀석의 로봇 눈은 흐릿한 모니터 불빛을 따라 움직였다. 명아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샘이는 능숙하게 몸을 세워 USB 포트를 찾아냈다. 찰나의 순간, 작은 기계음과 함께 USB가 컴퓨터에 연결되었다. 이제 샘이의 몸을 통해 명아의 지시가 전송될 차례였다. 샘이는 작은 로봇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뛰어난 텔레파시 능력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무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명아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신사에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샘이가 보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었다. 목표는 특정 CME 예측 모델의 입력값을 미세하게 조작하여, 실제 발생 가능성과 무관하게

여러 연구팀이 동시에 동일한 예측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루아와 샘이도 명아의 가르침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조작 방식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민감한 과학 데이터의 정교한 수정은 명아의 전문 영역이었다.

명아의 눈은 화면 속 데이터를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파일 포맷이 일반적인 텍스트나 바이너리 형식이 아닌, 구닥다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스프레드시트였던 것이다. "이런... 이 정도로 낡은 포맷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니." 명아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옛 엑셀 파일은 구조가 복잡하여 단순한 값 변경만으로는 의도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었다. 서식이나 매크로, 숨겨진 셀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 건드리면 파일 전체가 손상되거나 수정 흔적이 남을 위험이 있었다. 순간, 명아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간은 촉박했고, 실패는 곧 작전의 무산을 의미했다.

명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정신은 신사의 가장 깊은 곳, 빛의 무녀의 영역으로 향했다. "빛의 무녀이시여..."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 작은 무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샘이의 손을 빌려 데이터의 흐름을 잠시만 제어할 수 있도록, 지혜의 빛을 내려주십시오. 인류를 구할 이 첫걸음이 좌절되지 않도록, 힘을 더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명아의 의식 속에서 강력한 빛줄기가 뻗어나와 샘이가 있는 곳까지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공유를 넘어, 직접적인 제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마치 자신의 손과 발처럼 샘이의 작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명아는 즉시 정신을 집중하여 샘이의 시야를 통해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셀 구조와 함수들이 눈앞에 명확하게 펼쳐졌다.

명아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데이터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조작을 통해 특정 셀의 수치를 조정하고, 관련 함수에 아주 작은 오차값을 삽입했다. 이 변화는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었지만, 연구실의 시뮬레이션 모델에 들어가면 미묘한 오작동을 일으켜 특정 시기의 CME 발생 확률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모든 조작이 끝나자, 명아는 조용히 USB 연결을 해제했다. 샘이는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가 조용히 몸을 숨겼다. 명아는 신사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첫 파일럿 작전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샘이에게 돌아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루아는

이제 샘이와 함께 조용히 덴버를 벗어나 귀환 길에 오를 준비를 했다. 세상의 균형을 위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막 시작된 순간이었다.<sup>[9:6]</sup>

...

몇 차례의 작전은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루아와 명아의 첫 파일럿 임무는 성공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어지는 임무들 또한 물 흐르듯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어린아이 같은 외모와 달리 신사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보낸 아린 역시 드론 변신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첫 처녀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의 작고 민첩한 드론 몸체는 가장 은밀한 침투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계획은 이제 막 물이 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린은 샘이와 별이를 드론 몸체에 태우고 호주 시드니로 향하는 임무를 맡았다. 목적지는 태양풍 관련 연구소였다.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는 긴 여정, 마침 그때는 철새들의 대이동 시기였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 수천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목적지를 향해 날갯짓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무녀의 뛰어난 감각으로 새떼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엄청난 규모의 새떼는 아린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갑작스러운 충돌이었다. 거대한 새떼가 드론의 비행 경로를 덮치듯 지나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린의 드론 몸체가 크게 흔들렸다. 간신히 균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즉시 등 뒤로 향했다.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신한 별이와 샘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샘이에게서는 괜찮다는 텔레파시가 왔으나, 별이에게서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별이야!" 아린의 텔레파시가 허공을 갈랐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추락? 충돌의 여파로 별이가 떨어져 나간 것인가? 아린은 즉시 고도를 낮추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별이가 작전 투입을 위해 극도로 작게 변신해 있었다는 점이었다. 더군다나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그 낙하 지점은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범위 안에 있을 터였다. 호주 노던 준주의 인적 드문 사막 한복판, 현지 시각으로 한밤중이었다.

아린은 필사적으로 별이를 찾아 나섰다. 어둠 속에서 작은 물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다행히 별이에게서 희미하게나마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을 확인했다. 별이는 무사히 착지한 듯했지만, 주변에 특징적인 지형지물이 없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아린 언니, 저 여기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방이 똑같은 모래뿐이에요..."  
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아린은 별이의 텔레파시를 수신하면서, 해상 수색에서 사용하는 정밀한 탐색 패턴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넓은 바다에서 표류자를 찾듯, 나선형이나 격자형으로 비행하며 별이의 시야에 자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직 안 보여요, 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어둠과 모래뿐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별이는 당황스러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되찾았다. 주변에 기댈 곳이 없다면, 오직 하늘만이 유일한 이정표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별이는 그간 갖고 닦은 관측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르게 보이는 별자리들을 숙지하고 있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별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능숙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남십자성... 익숙한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별이는 별들의 배치와 고도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도를 어렵짐작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정확성은 아니었지만,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수색 영역을 몇 제곱킬로미터 이내로 크게 좁히는 데는 충분한 정보였다.

"아린 언니! 저... 대략 남위 24도 7분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별자리가 이 각도에 보여요!"  
별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아린은 별이가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즉시 비행 경로를 수정했다.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대충의 정도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의 성과였다. 그녀는 이제 훨씬 좁아진 영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별이의 작은 몸체가 모래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감지했다.

"별이야! 찾았다!" 아린의 텔레파시가 기쁨으로 울렸다.

별이는 아린의 드론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안도감과 동시에 강한 결심을 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린의 드론 몸체가 땅에 닿자마자, 별이는 망설임 없이 바싹 달라붙었다. 작은 장난감 몸으로 꼭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별이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귀여웠다.

아린은 별이의 반응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보통은 내가 가장 어려 보이니까 언니들한테 보호받는 입장인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늘 '어린 막내'처럼 여겨졌던 아린에게, 누군가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런 상황은 낯설면서도 묘한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아린은 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몸체를 단단히 고정하고, 다시금 시드니를 향해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든든하게.<sup>[9:7]</sup>

...

연구 결과를 조작해 인류의 시야를 강제로 미래로 향하게 하는 한편, 신사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은밀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이는 바로 구형 임베디드 기기들을 '자진해서' 교체하게 만드는 작전이었다. 지수와 지혜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진이 과거 사례를 분석한 끝에,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기기들을 중요도 순으로 분류했다. 이 기기들은 단순히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불편함을 느껴 교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작전의 방법은 다양하고 기상천외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현신의 무녀들이 직접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기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익숙한 현신의 무녀가 직접 변신하여 조용히 접근했다. 예를 들어, 주홍은 작은 빛의 입자로 변신하여 오래된 공장 제어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에 침투했다. 그녀는 화면의 색상 팔레트를 미세하게 왜곡시키거나, 특정 픽셀이 미묘하게 어긋나 보이도록 조작했다. 육안으로는 완벽한 고장으로 보이지 않지만, 화면의 글자들이 비틀리거나 이미지의 색감이 미묘하게 불쾌한 조합으로 변하는 식이었다. 동작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작업자의 눈을 피로하게 하고 뇌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을 조성하여 결국 교체 건의가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기기 속을 파고들어 인류의 무심한 일상에 작은 불쾌함을 심어 넣었다.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 작전에는 루아와 아린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루아는 때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승용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오류를 심어 길을 해매게 만들었고, 때로는 오래된 공항의

수하물 분류 시스템 제어판에 알 수 없는 노이즈를 발생시켜 운영 효율을 떨어뜨렸다. 아린은 훨씬 더 작은 드론 형태로 변신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이나 고층 건물의 전광판 제어 장치에 침투했다. 그들은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사용자가 '이제는 정말 바뀌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밤중 갑자기 폰트가 깨지거나 의미 없는 문자가 번쩍이는 오래된 ATM 기기, 영문도 모르게 화면이 뒤집히는 산업용 모니터 등이 이들의 흔적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대신, 서류 조작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이 동원되기도 했다. 율과 솔은 인류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컴퓨터 시스템의 사소한 오류처럼 보이도록 특정 기기의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문서를 은밀히 생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조작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정기 점검 계획이나 정부 조달 사업의 품목 목록 등, 언뜻 보아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서들 속에 숨겨졌다. 그렇게 조작된 서류들은 의도치 않은 '행정상의 실수'처럼 인식되어, 관련 기기들이 예상보다 빨리 교체 주기에 오르도록 만들었다.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린이 고안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작은 새로 변신하여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구형 기기들, 이를테면 도시 곳곳에 설치된 오래된 교통 신호등 제어함이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 렌즈 위에 의도적으로 배설물을 흘뿌리는 작전을 펼쳤다. 조류의 배설물은 부식성이 강하여 전자 장비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물론 무녀의 배설물은 인체에 무해했으나, 그것이 기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조류의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사용자들은 렌즈에 들러붙은 오물로 인해 화면이 흐려지거나, 제어함 내부의 미세한 부식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때로는 기묘하기까지 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인류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구형 시스템을 낡은 과거로 밀어 넣기 시작했다.<sup>[9:8]</sup>

...

산속 신사의 무녀들만이 인류의 위기를 감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외부 세계에는 루아의 비밀을 공유하는 한 명의 인간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탁월한 언론인이자 탐사 보도 전문팀을 이끄는 서연이었다. 그녀는 신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알지는 못했지만, 루아가 종종 자동차로, 이제는 작은 드론으로 변신하여 세계 각지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지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녀들이 씨앗을 뿌리면, 서연은 그 씨앗이 싹을 올 수 있도록 세상을 갈고닦는 역할을 했다.



다국적 연구팀들의 관측이 태양풍(CME)이 2037년에서 2038년경에 예상된다는 데 수렴하면서 하루속히 대비해야 한다는 결의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된 데는 서연의 공이 컸다. 명아와 샘이, 아린과 별이가 조작한 미세한 데이터의 파동이 학계에 일렁임을 시작하자, 서연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언론인들을 직접 만나, 복잡한 과학적 정보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가공하고 확산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단순한 소문으로 묻히지 않고, 긴급한 의제로 대중에게 각인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녀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과 언론 장악력 덕분이었다. 위기의식이 인류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자,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마지못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Y2K38 문제에 대한 집중 보도 또한 서연을 포함한 그녀의 탐사 보도팀의 결실이었다. 지수와 솔 등의 무너들이 오래된 임베디드 기기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 한편, 서연의 팀은 잠재된 위험성을 파헤쳐 대중에게 알렸다. 오래된 시스템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국가 기반 시설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불편함 때문에 자발적인 교체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비로소 그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인류가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였다.

어느 날, 서연은 남미로 해외 출장을 나갔다. 아마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층 보도를 위해 며칠째 오지를 헤매던 참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오두막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였다. 그녀의 눈앞에 아주 작고 매끄러운 은회색 드론 한 대가 웅- 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루아가 서연을 발견한 것이었다. 루아의 드론 몸체는 작은 발처럼 생긴 착륙 장치로 바닥을 짚더니, 놀랍게도 땅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한 글자 한 글자 쓰여진 것은 다름 아닌 '잘 지내?' 라는 지극히 평범한 한글 문구였다. 그것을 본 서연은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나 착각했다. 사방이 흙과 나무뿐인 남미 오지에서, 먼 길을 날아온 소형 드론이 한글로 인사를 건네다니! 임무를 마친 후의 여유로움과 오랜만에 만난 동료에 대한 반가움이었을까. 하지만 그 상황의 비현실적인 유머러스함에 서연은 한동안 굳어진 채 어이가 사라진 표정으로 드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헛웃음만이 터져 나왔다. 세상의 균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자신과 루아의 삶은 이처럼 비범하면서도 때로는 황당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다.<sup>[9:9]</sup>

...

2038년 1월 19일 밤, 신사의 대청마루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흘렀다. 큰 무녀님을 비롯해 모든 무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에 놓인 명아의 앞에 앉아 있었다. 명아는 이제 매끄럽고 거대한 평면 텔레비전으로 변신해, 인류의 2038년 대혼란을 결정할 중요한 특집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현신의 무녀들인 지수, 아린, 그리고 루아, 샘이, 별이부터 시간의 무녀들인 새롬, 예진, 솔, 지혜, 율까지, 모두가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이 순간은 지난 4년간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자정 무렵, 화면 속 아나운서는 긴장된 목소리로 유닉스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음을 알렸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전 세계 곳곳에서 들어오는 뉴스 속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시스템이 사소한 오류를 일으켜 전광판에 잘못된 시간이 표시되거나, 은행 ATM이 몇 분간 정지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전력망 붕괴나 교통 시스템 마비, 금융 시스템 오류와 같은 치명적인 대재앙은 그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성공이다...." 작은 속삭임이 처음으로 터져 나왔고, 이내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다. 무녀들 모두가 일제히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년, 명아와 샘이가 밤샘하며 조작했던 수많은 데이터들, 지수가 파헤쳤던 구형 시스템의 취약점들, 아린과 루아가 전 세계를 누비며 감행했던 은밀한 침투들, 솔과 지혜가 바꿔놓았던 행정 서류들, 그리고 서연의 손을 거쳐 대중에게 확산되었던 경고의 목소리까지...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고생 많았어요, 모두." 새롬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혜가 지수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린은 활짝 웃으며 루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로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보람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세상에 나서는 대신, 인류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때, 명아의 텔레비전 화면이 잠시 지직거리더니 새로운 뉴스 속보를 띄웠다. 그것은 태양풍(CME) 관련 소식이었다. 사실 같은 날 새벽, 거대한 CME가 실제로 발생하여 지구 방향으로 맹렬하게 다가왔다는 내용이었다. 무녀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Y2K38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느라 CME의 최종

진행 상황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터였다. 그러나 이어진 아나운서의 담담한 목소리는 그들을 다시 안도하게 했다. "수십 년 만에 관측된 강력한 태양풍이었으나, 다행히 지구 자기장을 아슬아슬하게 빗겨 나가면서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연구팀의 조기 예측과 발 빠른 대응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명아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자신과 샘이의 조작이 그 조기 예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피해를 면한 것이었다. 대청마루에 모인 무녀들의 얼굴에는 깊은 보람이 피어났다. 세상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겠지만,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충분했다.

큰 무녀님은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무녀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긍지가 담겨 있었다. "너희들은 인류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여주었고, 그들이 스스로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신사의 역할이자, 너희들의 진정한 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사 전체를 감싸는 듯 따뜻했다. 무녀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미소 지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평화를 지켰다는 빛나는 보람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sup>[9:10]</sup>

대혼란을 막아낸 성공적인 임무가 끝나고, 신사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들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는 지난 4년 반의 노고가 남긴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모두가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갈구할 때였다.

그때, 조용히 뒤에서 지원 역할을 도맡았던 지아가 무녀들 앞에 나섰다. "무녀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죠?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작은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지난 4년간 지아 역시 자신이 변신하던 보일러 형태 그대로 신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을 책임지며 묵묵히 제 몫을 다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누비며 위험을 감수했던 다른 무녀들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었다는 미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 기회에 직접 모두를 위한 위로를 건네기로 결심했다.

지아는 신사 뒤편의 작은 계곡으로 무녀들을 안내했다. 졸졸 흐르던 차가운 계곡물은 신비롭게도 김을 모락모락 피어 올리고 있었다. 계곡 한쪽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듯한 아담한 노천탕이 자리하고 있었다. 탕 주변으로는 은은한 등이 걸려 있었고, 맑은 물 위에는 꽃잎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지아는

이미 자신을 거대한 보일러 형태로 변형시켜 계곡물 깊숙이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차가운 계곡물을 따뜻한 온천수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고마워, 지아! 정말 고맙다!" 루아가 감탄하며 외쳤다. 아린은 눈을 반짝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명아와 지수는 피로에 지친 어깨를 서로 기대며 따뜻한 김을 들이마셨다. 새롭고 예진, 솔, 지혜, 울도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4년 반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 좋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 별이가 나른하게 몸을 펴며 중얼거렸다. 샘이는 물속에서 작은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했다.

따뜻한 물속에서 무녀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아슬아슬했던 루아의 첫 임무, 아린과 별이의 예측 불가능했던 사막 조난, 그리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조작하고 시스템을 교란했던 찰나의 순간들.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따뜻한 물속에서 부유하는 꽃잎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는 듯했다. 지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일까, 그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이게 다 지아 덕분이야. 우리도 몰랐던 걸 이렇게 해내다니!" 지수가 웃으며 물속에 잠긴 지아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지아의 온몸에서 퍼져 나오는 따뜻한 온기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위로이자,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힘이 되었다. 4년 반의 기나긴 여정은 그렇게, 따뜻한 온천욕 속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sup>[9:11]</sup>

...

따뜻한 노천탕에서의 휴식은 지난 4년 반의 여정을 씻어내고, 무녀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신사에는 다시 소소한 일상이 찾아왔다. 시간의 무녀들은 본연의 역할이 있는 자신들의 신사로 돌아갔고, 현신의 무녀들은 다시금 익숙한 모습으로 신사 곳곳에 스며들었다. 거대한 임무의 성공이라는 잔잔한 보람은 그들의 일상에 여전히 스며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긴장의 무게는 없었다.

지아는 다시 부드럽게 김을 내뿜는 보일러로 변신하여 신사 건물들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몸을 통해 데워진 물은 부엌으로, 목욕탕으로, 그리고 차를 끓이는 다기로 흘러 들어갔다. 그

온기 속에서 무녀들은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지아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녀가 제공하는 따뜻함은 무녀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지원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여전히 신사의 서고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서가로 변신해 있었다. 그녀의 나뭇결 무늬 몸체 속에는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식과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가끔은 호기심 어린 샘이가 책꽂이에 걸터앉아 고서들을 읽었고, 지수는 그런 샘이의 질문에 조용히 답해주며 지식을 전수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던 지난날의 기록들도 그녀의 몸속 어딘가에 조용히 저장되어 있었다.

명아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텔레비전으로 변신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때로는 조용한 신사의 연못가에 자리한 작은 돌맹이로 변해 고요히 물결을 바라보기도 했고, 때로는 햇살 잘 드는 마루 위에서 따스한 햇볕을 쬌는 고양이 조각상으로 변해 늘어져 있기도 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예민한 감각이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각을 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주홍은 신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때로는 햇살을 받는 작은 보석으로 변신하여 마루의 결을 더욱 윤기 있게 만들었고, 때로는 섬세한 장식품이 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종소리처럼 공간에 은은한 기품을 더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신사는 더욱 완벽한 아름다움을 찾아갔다.

루아는 가끔씩 신사 경계를 벗어나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작은 자동차로 변신하곤 했지만, 이제 그 목적은 임무 수행이 아닌 단순한 '산책'에 가까웠다. 아린과 별이는 작은 장난감으로 변신한 채 신사 주변을 뛰어놀았다. 때로는 숲속을 탐험하고, 때로는 샘이와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들의 작은 몸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닌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린은 자신이 가장 어리게 보이던 때처럼 걱정 없이 뛰어노는 별이와 샘이를 보며,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은 듯했다.

시간의 무녀들이 돌아간 빈자리에는 미묘한 허전함이 있었지만, 현신의 무녀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평온을 찾았다. 각자 익숙한 형태로 돌아가 신사의 일부분이 되거나, 작은 존재로 변신해 자유를 만끽했다. 대혼란의 위협은 사라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가져온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고요한 신사의 품에서 다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sup>[9:12]</sup>

...

시간의 무녀들에게 지난 4년은 끊임없는 관측과 계산, 그리고 내면의 긴장으로 점철된 세월이었다. 현신의 무녀들처럼 몸을 변형시켜 세상 밖으로 나가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의 능력은 '시간' 그 자체에 있었고, 이는 곧 물질적 움직임의 제한을 의미했다. 신사의 깊숙한 영역에서,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능력에 의지하여 인류의 미래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인류에게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들을 관측하고, 현신의 무녀들이 취할 '특정 선택'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다. 새롭음 가장 어린 무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미래를 꿰뚫어 보았고, 예진은 과거의 모든 기록과 패턴을 분석하여 현재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데 능했다. 술은 현재 시점의 미세한 변화가 미래의 거대한 흐름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섬세하게 계산했으며, 지혜는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가장 최적의 확률 경로를 제시했다. 그리고 율은 그 모든 가능성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의 흐름을 조율했다. 현신의 무녀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면, 시간의 무녀들은 그 움직임이 나아갈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을 제시하는 '눈'이자 '나침반'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모든 가능한 미래'를 보는 것이었지, '단 하나의 확정된 미래'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변수와 인류의 자유 의지가 얹혀 만들어지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재앙을 피할 확률은 99%에 육박해도 남은 1%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그들을 짓눌렀다. 2038년 1월 19일 밤, 명아가 변신한 텔레비전 앞에 현신의 무녀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에도 시간의 무녀들은 누구보다 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아왔지만, 동시에 재앙이 닥쳐오는 끔찍한 가능성들 또한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유닉스 시간이 임계점을 넘고, 태양풍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갔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그제야 새롭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피어났고, 예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술은 그동안 팽팽했던 긴장을 풀었고, 지혜와 율의 눈빛에서는 모든 가능성 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침내 배제되었다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했던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간의 무녀들은 신사 깊은 곳에 자리한 자신들의 영역으로 돌아가 소소한 일상 속으로 고요히 스며들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sup>[9:13]</sup>

...

신사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큰 무녀님은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 속에서 그간 손에 잡지 못했던 소년 만화책, 《불꽃 검객 카엔》의 마지막 권을 마침내 펼쳤다. 장대한 서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자, 큰 무녀님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아쉬움이 스쳤다.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녀에게도 소년 만화의 뜨거운 열정과 단순명쾌한 서사는 때로는 복잡한 세상의 균형보다 더 흥미로웠다.

그때, 큰 무녀님의 옆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찻잔 속에서 미세한 물결이 일렁였다. 찻물 속에 비치는 그림자는 너무나 작아 보일 듯 말 듯 했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찻잔 속의 작은 수면 위로 몸을 변형시킨 루아였다. 루아는 큰 무녀님이 《불꽃 검객 카엔》을 얼마나 아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큰 무녀님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심스럽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큰 무녀님, 드디어 《불꽃 검객 카엔》을 다 읽으셨군요."

큰 무녀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루아. 그간 세상의 일에 파묻혀 미처 끝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 카엔의 마지막 불꽃은 언제나 장엄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품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새로운 작품을 찾고 계실 것 같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루아의 텔레파시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능했고, 인류의 문화 콘텐츠에도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오호, 네가? 어떤 것이냐?" 큰 무녀님의 눈빛에 흥미가 떠올랐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인데, 《천공의 방랑자 에테르》라는 작품입니다. 검술에 대한 열정과 성장은 《불꽃 검객 카엔》 못지않고, 동료들과의 유대,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적인 요소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림체도 수려하고, 무엇보다 아직 완결되지 않아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루아의 설명에 큰 무녀님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완결되지 않았더라...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겠군. 하지만 네가 그 정도까지 추천할 정도면 분명 재미있겠지." 큰 무녀님은 손을 뻗어 탁자 위의 마른 나뭇잎 하나를 가만히 만졌다. 그 나뭇잎은 루아가 잠시 변신해 있던 찻잔 속의 물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좋다, 루아. 네 말대로 그 《천공의 방랑자 에테르》를 찾아 읽어봐야겠구나."

루아는 큰 무녀님의 승낙에 만족한 듯, 찻잔 속에서 작은 물방울을 일으키며 기쁨을 표현했다. 거대한 위기에서 인류를 구해낸 무녀들이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는 이처럼 소소한 즐거움과 배려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sup>[9:14]</sup>

- 끝 -



## 무녀 생활 가이드

안녕! 나는 명이라고 해. 음, 지금으로부터 한... 251년 전에 태어난 현신의 무녀지. 앗, 나이는 원래 비밀인데! 뭐, 어차피 너희도 나처럼 오래 살다 보면 나이 같은 건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이 가이드북을 쓰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째는, 나처럼 호기심 많고 엉뚱한 후배 무녀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세상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지만, 그걸 명확한 글로 남겨두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우리의 능력이나 삶의 방식 같은 걸 명시적으로 정리해서, 너희가 좀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

둘째는,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너희도 느끼고 있을 거야. 요즘은 책도 손으로 넘기는 종이책이 아니라, 이런 전자책으로 나온다지? (솔직히 아직도 신기해!) 새로운 출판 매체는 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 무녀들만의 지식을 공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도 실험해보고 싶었어. 물론 이 가이드북에 담긴 내용이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닐 거야. 우리 모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니까.

이 책자는 앞으로 너희가 무녀로서 겪게 될 여러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우리가 어떻게 무녀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변신 능력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신사 안팎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을 가볍게 담아봤어.

그럼, 이 책이 너희 무녀 생활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랄게!<sup>[A:1]</sup>

## 첫걸음

지금 이 가이드북을 읽고 있다면, 아마 너도 신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았을 거야. 다른 일이 없다면 말이지.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던 존재가 이 신사로 이끌려 들어오는 건, 모두 그분의 뜻이니까.

우리를 정식으로 부르는 이름은 현신의 무녀야. 이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저 멀리 다른 신사에는 미래와 과거의 실마리를 엮는 시간의 무녀들이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읽고 또 소통하게 해주는 빛의 무녀라는 존재도 있어. 나도 최근에 아린을 통해 빛의 무녀가 하나의 통일된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빛을 아우르는 듯한 느낌이랄까?

우리가 현신의 무녀라고 불리는 건 간단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질을 조작하고, 심지어 그 물질로 우리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말 그대로 물질을 '현신(現身)'시키는 능력을 가졌다고나 할까. 네가 원한다면 작은 나뭇잎 하나로도, 거대한 자동차로도 변신할 수 있어. 물론 그 과정에는 너의 이해도와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말이야.

이런 특별한 능력 덕분에 우리는 불로불사의 존재가 되었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심지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지 않아도 우리는 멀쩡히 살아갈 수 있지. 가끔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디 인간이었잖아? 그래서 원한다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포근한 침대에서 잠도 자곤 해. 그게 우리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모든 능력들이 그저 우리 마음대로 쓰고 즐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야. 이 모든 건 신님께서 이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sup>[A:2]</sup>

## 변신 능력

자, 이제 우리 무녀의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변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야. 이건 정말 정확히 알아둬야 해.

우리는 신사 경계 안에서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음대로 가능하지. 하지만 신사 경계 밖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져. 일단 밖으로 나가면 변신하는 것도, 변신을 해제하는 것도 불가능해. 만약 외부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면, 보통은 이미 변신한 상태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 우리는 신사 경계 밖에서는 별거숭이가 되어버려. 무슨 말이냐고? 쉽게 말해, 옷이나 장신구 같은 게 우리 몸과 함께 변신하거나 따라 나오지 않아. 그래서 보통은 후배 무녀랑 짝을 지어서 나갈 때, 한 무녀가 나가는 동안 다른 무녀가 그 사람의 옷으로 변신해서 몸을 가려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아마 너희도 처음 변신 연습을 할 때 이 옷 변신부터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거야.

변신 후에도 우리의 오감은 동일하게 유지돼. 특히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은 옷처럼 몸을 덮는 형태로 변신했을 경우,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느꼈을 법한 방식으로 재현될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신발로 변신했다면 신발이 느끼는 진동이나 시야를 느끼는 식이지. 그런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변신한다면, 그냥 몸 전체로 바깥의 경치를 느끼는 듯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테니 너무 걱정 마. 요즘 유행하는 일인칭 액션 게임 같은 걸 해봤다면 아마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싶네.

변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충실도(fidelity)야. 충실도란 우리가 변신한 물체가 얼마나 실제와 비슷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 이 충실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 첫째는 네 원래 몸집과 변신하려는 물체의 크기 차이야. 키가 큰데 아주 작은 물건으로 변신하려고 하면 충실도가 내려갈 수 있지. 둘째는 네가 변신하려는 물체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이해도), 그리고 셋째는 너의 몸 컨디션 같은 것들이야.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곤할 때 변신하려고 하면 충실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이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해도라고 할 수 있어. 단순히 정적인 물체, 예를 들어 돌멩이나 지갑 같은 걸 따라 할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한 충실도를 확보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복잡한 물체로 변신한다면 얘기가 달라져. 겉모습만 아는 것을 넘어, 자동차의 엔진 원리나 각 부품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등을 아주 세밀하게 알고, 그 부품들을 네 몸인 것처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바깥에 나가서도 들키지 않고 어엿한 자동차로 활동할 수 있을 거야. (궁금하면 루아를 찾아가 봐. 자동차 변신의 달인이니까!) 만약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억지로 자동차로 변신하면,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바퀴가 고정된 채로 억지로 끌려간다든지 해서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 될 테니까 말이야. 결국, 네가 변신하려는 대상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수록 훨씬 더 충실하고 완벽한 변신이 가능해져. 그러니 다들 열심히 공부하자!<sup>[A:3]</sup>

변신 능력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줄게. 우리가 아주 충분히 큰 물건으로 변신했을 때는 그 물건 근처에 분신을 하나 만들 수 있어. 물론 그 분신이 네가 변신한 물체보다 커질 수는 없지만, 이 분신을 만들면 주로 그 분신이 느끼는 감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느끼게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변신한 원래 물체에서의 감각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혹시 네가 변신한 상태에서 다치면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하는 후배 무녀도 있을지 모르겠네. 음, 사실 정말 아플 거야. 예를 들어서 유리구슬로 변신했다가 와장창 깨지면, 그 고통은 생각보다 크지. 하지만 너무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마. 그렇게 깨진 조각들 대부분을 신사 경계 안으로 들여보내기만 하면, 너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고, 몸에는 아무런 흔적이나 상처도 남지 않을 거야. 만약 이런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정신을 팍 붙잡고 네 조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게 중요해. 이전에 말했듯, 네가 대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충실도 높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네가 스스로 깨진 상태의 네 모습을 '하나의 완전한 너 자신'으로 인식하면, 그 상태에서 다시 온전한 너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법한 물건으로만 변신할 수 있어. 이건 중요한 한계인데, 예를 들어 어떤 에너지도 없이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차 같은 건 현실에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런 건 우리도 변신할 수 없어. 바꿔 말하면, 자동차로 변신했다면 지속적으로 연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보통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 연료를 대신할 수 있어. 만약 변신한 상태에서 연료가 뚝 떨어지면, 아마 강제로 인간 형태로 돌아올 텐데, 그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테니 식사는 항상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 사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움직이는 물건으로 변신해서 활동한 사례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경험이 필요할 거야. 혹시 네가 활동하면서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아냈다면, 꼭 나한테 알려주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무생물이더라도 스스로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갖춰두는 게 좋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공으로 변신한다면, 공 안에 무게추 같은 걸 뒤서 네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게 만들면 훨씬 유용하겠지. 그런 준비가 없다면, 다른 무녀들이 너를 발견하고 도와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지 않아?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전혀 없을 테니, 꼭 명심해 두도록 해.<sup>[A:4]</sup>

## 신사에서의 생활

신사에 들어왔다면 아마 마주쳤을 거야.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연륜이 느껴지는 언행을 하시는 무녀님이 계실 텐데, 그분이 바로 큰 무녀님이야.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는 큰 무녀님은 그분의 분신이고, 사실 큰 무녀님은 이 신사 건물 그 자체이기도 해. 이 신사의 첫 무녀이자 가장 오래 사신 분이니까, 혹시 네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무녀들도 잘 모른다면 주저 말고 큰 무녀님께 여쭙봐.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 네가 입고 있는 무녀복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게. 이 무녀복은 경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몸의 일부 같은 거야. 마치 허물을 벗듯 홀렁 벗는 게 가능하고, 벗어두면 잠시 후에 스르륵 사라지지. 다시 무녀복을 입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강하게 원하기만 하면 어느새 다시 몸에 생겨나 있을 거야.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무녀복은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사라지니까, 외부에 나갈 일이 있다면 미리 경계 안에서 무녀복을 벗고 인간 세상의 옷을 입도록 해.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식사나 수면이 필요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 늙지도 죽지도 않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시절처럼 식사나 수면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아. 무녀가 되기 전에도 그랬겠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 식당과 침실은 본당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 봐.

우리 무녀들은 서로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빛의 무녀님 덕분이야. 네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네 스스로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도 텔레파시는 항상 통하니까 걱정 말고 상황을 알려줘.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텔레파시를 보내면 머리가 쉬이 아파질 수 있거든. 그러니 미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무녀들을 알아두면, 비상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sup>[A:5]</sup>

## 바깥 세상과의 관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현실 세상의 일부로도 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법도를 존중하는 게 아주 중요해. 우리 신사의 존립 기반을 흔들지 않는 한, 함부로 세상의 질서에 맞서 싸워서는 안 돼. 예를 들어, 이 신사 부지는 법적으로는 바깥 기준으로 충분히 짧으면서도 현명한 무녀가 대대로 양도받아 왔어.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루아가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언젠가 이 책을 읽는 너희 중 누군가도 그 역할을 맡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

너희도 이제 새 이름, 즉 무녀명을 받았을 거야. 신사 안에서는 그 무녀명을 쓰는 게 당연하지만,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시절의 본명을 써야 할 때가 있을 거야. 이게 좀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양해 부탁해. 혹시 너무 어렵거나 곤란하다면 미리 다른 무녀들에게 이야기해 줘.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 줄 테니까.

우리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들이잖아?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 특히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휴대전화 같은 현대 문명의 기기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나(명아)한테 오면 내가 변신해서 해결해 줄게. 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는 마. 아쉽게도 내 몸은 하나밖에 없거든.

바깥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의 비밀이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해. 사실 우리 무녀들은 존재가 들킨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야. 문제는 세상이 발각 뒤집힌다는 데 있지. 우리의 능력이 검증 가능한 초능력이라는 게 알려지면, 종교적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전쟁 같은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을 악용하려는 위험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막후에서 조용히 세상의 균형을 조율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해야 해. 만에 하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큰 무녀님께 텔레파시를 보내서 지혜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sup>[A:6]</sup>

## 마치며

그리고 또 뭐가 빠졌을까? 아! 신사 경계 안으로 무녀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해. 만약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신사의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돼. 보통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한 다음 경계 바깥으로 돌려보내지만,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가장 좋아. 경계 바로 앞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으니, 편지 같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야.

우리가 맡은 일은 정말 무거워. 어쩌면 영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즐겁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 너무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가끔씩은 그런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래오래 즐겁게 무녀 생활을 해보길 바라. 그리고 혹시 알아? 너희 뒤에 또 다른 새 무녀들이 신사로 들어오면, 그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신선한 자극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이 〈무녀 생활 가이드〉가 너희의 신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다른 무녀들이나 나를 찾아와 물어보렴.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럼, 무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응원할게!

명아로부터.<sup>[A:7]</sup>

## 외전: 한아의 주전자

별이 잘 드는 마루, 바람이 머물다 가는 툇마루에 앉아 루아는 큰 무녀님의 조용한 다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신사에 돌아온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큰 무녀님의 일상은 늘 경건하고 평화로웠다. 특히 오후의 차를 마시는 시간은 루아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다. 큰 무녀님의 손길 하나하나에 배어나는 정갈함은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고요하게 만들곤 했다.

문득 루아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큰 무녀님은 차를 마실 때 늘 은은한 광택이 도는 낡은 도자기 주전자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그 주전자에 직접 찻잎과 물을 넣어 차를 우리는 것이 아니었다. 큰 무녀님은 옆에 놓인 또 다른, 훨씬 투박한 질감의 검은색 옹기 주전자를 가져오셨다. 그리고 그 옹기 주전자에서 먼저 맑은 찻물을 도자기 주전자로 따랐다. 은은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물이 도자기 주전자 안에서 찰랑였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 도자기 주전자에서 자신의 찻잔으로 차를 따랐다.

이상했다. 왜 굳이 두 개의 주전자를 사용하는 걸까? 바로 잔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도자기 주전자에 직접 차를 우려도 될 텐데. 꼭 한 단계를 거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루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큰 무녀님, 저 주전자는...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있나요?"



루아의 시선이 낡은 도자기 주전자에 닿았다. 큰 무녀님은 차를 따르던 손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루아를 보았다. 늘 온화한 미소였지만, 그 속에 아주 오래되고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살짝 스치는 듯했다.

"그리고 말고, 루아."

큰 무녀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주전자에게는 아주 오랜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아주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 괜찮겠니?"

루아는 잠시 망설였다. 큰 무녀님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루아는 알았다. 큰 무녀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무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무녀의 존재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진실일 때가 많다는 것을. 루아는 숨을 고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큰 무녀님."

큰 무녀님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에 놓였던 여벌의 찻잔 하나를 들어 루아에게 내밀었다.

"그럼, 차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꾸나."

따뜻한 찻잔이 루아의 손에 들렸다. 그 안에서 열은 갈색빛의 찻물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sup>[B:1]</sup>

...

큰 무녀님의 시선은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으로부터 칠백여 년 전, 시간이 겹겹이 쌓여 먼지처럼 가라앉은 옛날을 향했다. "그때는 말이다, 루아." 큰 무녀님의 목소리는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금보다 무녀의 수가 훨씬 많았단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루아는 눈을 크게 떴다. 지금도 무녀의 수는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큰 무녀님의 말은 그 아득한 시간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녀들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큰 무녀님은 고요히 말을 이었다.

"수백 명은 족히 되었을 게다. 온 세상에 흩어져 신의 뜻을 받들고,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균형을 맞추었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처럼 신의 목소리가 들려야만 신사로 이끌리는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었어. 그때는 영감이 있는 아이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거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땅의 속삭임을 느끼는 이들이 넘쳐났다. 그러니 영감이 있고, 무녀가 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자가 스스로 원한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신사 또한 그렇게 많은 무녀들을 품어 안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건물을 필요로 했단다."

루아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 이 신사는 본당과 몇 채의 부속 건물 외에는 드넓은 빈 공간이 대부분이었다. 푸른 숲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큰 무녀님의 말대로, 현재의 이 신사 부지 전체가 옛 무녀들의 번성했던 흔적인 셈이었다. 큰 무녀님의 시선은 마치 그 빈 공간에 과거의 건물과 수많은 무녀들의 그림자를 그려내듯, 아득한 회상에 잠겨 있었다.<sup>[B:2]</sup>

큰 무녀님의 고요한 목소리가 마루에 낮게 깔렸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이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지. 긴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거대한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단다."

찾잔 속 찻물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큰 무녀님의 시선은 아득한 수평선을 응시하듯 멀리 있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틀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어둠이 짙어졌다. 끊임없는 전란과 역병, 그리고 기아가 이 땅을 휩쓸었어.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했고, 결국 그 혼란의 끝에서 이 땅의 나라가 새로이 세워질 정도였지."

루아는 큰 무녀님의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땅의 나라가 새로이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 조선의 건국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지금 큰 무녀님이 말씀하시는 '혼란의 시기'는 고려 후말의

격동적인 정세를 가리키는 것이리라. 루아의 심장이 낮게 울렸다. 무녀들이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 있었다니.

"스스로 신사를 찾아온 이들은 말이다, 루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절에는 신의 뜻을 잘 받들어 모셨단다. 허나 혼란한 때에는 마음속에 동요가 일고, 무녀의 강력한 힘을 악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지."

루아는 의아했다. 무녀의 변신 능력은 사물에 대한 세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라고 배웠다. 어설픈 변신하면 세상에 들키기 십상일 터인데, 어떻게 '악용'할 수 있단 말인가. 루아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하지만... 무녀의 변신 능력은 대상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멋대로 변신하면 오히려 들키기 쉽지 않나요?"

큰 무녀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어엿하게 세상에 녹아들려면 그래야만 하지. 너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완벽한 충실도를 구현해야 해. 하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단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형체만 어설픈 흉내 낸 거대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여 성을 부수거나, 형체는 사람이되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여 도적질을 하거나, 단단한 바위가 되어 길을 막거나... 이해 없이도 폭력적인 힘을 휘두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이변에 익숙해져 갔다. 무녀가 인간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균형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그저 파괴와 혼돈을 위한 도구로 쓴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던단다."

루아는 큰 무녀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아는 무녀의 능력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야말로 재앙적인 가능성이었다. 세밀한 이해 없이도 파괴적인 힘을 휘둘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다.

"처음에는 한 무녀가 그런 유혹에 빠졌지. 자신이 힘을 써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자, 둘이 더 빠져들었고. 넷, 여덟... 그렇게 순식간에 대부분의 무녀가 그 유혹에 굴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단다."<sup>[B:3]</sup>

하늘은 무녀들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세상 곳곳에서 무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돈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수백 명에 달했던 무녀들 중 이제 마지막까지 큰 무녀님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오직 한 명, 서리뿐이었다.

서리는 젊은 무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그 어떤 무녀도 따라올 수 없었다. 직관적으로 물건을 보고 그 원리를 꿰뚫어 정확히 복제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해도 면에서 그녀를 능가하는 이는 없었으니, 이해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힘을 휘둘러 혼란을 부추기는 다른 무녀들에게 반감이 갈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무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서리 역시 다른 종류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힘을,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었다. 무녀는 강력한 힘 때문에 전면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 신의 균형을 거스르지 않고 막후에서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는 철칙이었다. 그러나 서리의 눈에는 그 원칙이 무녀들의 무능력과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핑계처럼 보였다. 세상은 불타는데, 자신들은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가? 좋은 의도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 원칙을 깨뜨리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

어느 날 밤, 고요한 달빛이 신사 마루에 스며들 때였다. 서리는 큰 무녀님, 한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큰 무녀님... 아니, 한아님."

서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미 파멸 직전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써서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무녀님은 눈을 감고 고요히 숨을 쉬었다. 이 고뇌는 그녀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지켜본 수많은 무녀들의 번민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의 말에는 다른 이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던 진정한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서리야. 너의 마음은 안다. 고통받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너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도 잘 알고 있지. 허나, 그 열망이 지나치면 결국 오만으로 변질될 수 있단다."

한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무녀의 힘은 균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균형을 강제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전면에서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균형의 파괴가 될 뿐이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다."

"하지만, 한아님! 다른 무녀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해도 없이 그저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이해도로는 충분히…!"

서리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큰 무녀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다. 그녀의 시선은 서리의 불안한 눈동자에 닿았다.

"옳은 의지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하게 된단다. 너의 이해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결국 파멸을 부를 뿐이야. 너는… 너는 그들처럼 되지 말거라, 서리."

한아의 깊은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겪어본 자의 아픔과 서리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sup>[B:4]</sup>

...

그날 밤, 서리는 결국 한아를 떠났다. 고요한 달빛 아래, 서리의 뒷모습은 단호하면서도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한아는 서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불타는 세상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비록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한아는 그저 서리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아는 서리가 사라진 어둠 속으로 묵묵히 시선을 던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 신사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찢어지고 상처 입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신사를 떠났던 다른 무녀들이었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였다. 옷은 엉망이 되었고, 얼굴에는 피와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가득했다. 무녀의 강력한 변신 능력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도 전에, 그들의 몰골 자체가 끔찍한 패배를 말해주고 있었다. 큰 무녀님은 그들의 눈에서,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처참한 세상의 기운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다. 서리는 민중을 모아 무력 집단을 만들었고, 그 힘으로 고통받는 민초들을 지키려 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은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다른 무녀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다가, 결국 사람들의 예측할 수 없는 지혜와 기지에 반격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무녀의 초인적인 힘 앞에서도 인간의 지략과 결집된 의지는 때로는 무시무시한 반격을 가한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이었다.

큰 무녀님은 곧 신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을 덮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신의 목소리를 대리하여 무녀들을 책망했다.

"너희는 신께서 부여하신 힘을 오용하고, 세상의 균형을 흐트러뜨렸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너희의 오만함으로 세상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이제 너희는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어떤 반항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큰 무녀님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만신창이가 된 서리에게 향했다.

"서리야. 너는 올바른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그릇된 길을 택했다. 너의 오만함이 세상을 구원하려 했으나,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큰 무녀님의 책망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러나 무녀들은 신의 형벌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지금껏 겪어본 가장 큰 고통은 자신들의 힘이 무력화되는 것뿐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질 형벌의 진정한 의미나 그 끔찍함이 어떤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밭밑의 땅이 곧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sup>[B:5]</sup>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다. 신의 준엄한 심판이, 드디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만신창이가 되어 신사에 돌아왔던 무녀들은 몸이 굳어선 두려움에 떨었다. 억누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그들을 덮쳤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모든 무녀의 몸이 일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황홀하면서도 섬뜩한 빛이 걷히자,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무녀들의 육체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그 자리엔 모래알처럼 고운 흙더미나 작은 돌무더기만이 덩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전신이 가장 작은 입자들로 변화되어 세상의 바람에, 물결에, 혹은 땅속 깊이 흩뿌려지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의식은 있으나 형태는 없어진 채 영원히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다. 영겁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모든 무녀들이 사라진 자리에, 마지막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은 서리였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몸서리쳤다. 다른 무녀들이 받은 형벌의 끔찍한 함의를,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저것이 신의 심판이었구나. 영원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터였다. 서리는 자신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눈을 질끈 감았다.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거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리. 너는 비록 그릇된 길을 걸었으나, 그 마음만은 어리석은 자들의 사리사욕과는 달랐노라. 이에 너에게는 영겁의 형벌을 면하노라."

서리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믿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 모든 무녀가 사라지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져졌는데, 자신만은 다르다니. 그녀의 눈에 회한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 맺혔다.

"너는 차를 담고 따라 보내는 주전자가 되어, 네가 어지럽히려 했던 세상에 겸허히 봉사하고, 그 행위를 통해 너의 오만함을 속죄하라."

그 순간, 서리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육체가 서서히 단단하고 매끄러운 자기 재질로 변하는 고통 속에서도, 서리는 흐르는 눈물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신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렇게 형벌의 대상으로, 동시에 속죄의 도구로 다시 태어났다.

큰 무녀 한아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서리마저 강제로 변신을 마쳤을 때, 하늘의 목소리는 한아를 향했다.

"그녀는 아흔 달이 아흔 번 차고 이지러지는 시간 동안 그 형벌을 감내해야 할 것이니, 너는 이를 지켜보고 그녀의 죄를 사하여지는 날을 기다릴지어다."

하늘의 목소리가 멎었다. 큰 무녀님은 새로이 태어난, 은은한 광택이 도는 도자기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루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아흔 달이 아흔 번 차고 이지러진다... 그것이 정확히 얼마를 가리키는지는... 나도 모른다, 루아."<sup>[B:6]</sup>

...

루아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큰 무녀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영겁의 형벌. 모래알이나 흙더미가 되어 세상에 흩뿌려진 채, 의식만 남아 영원히 떠돌아야 하는 존재론적 고통.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한 절망이었다. 루아는 공포에 질려 차가운 식은땀을 흘렸다.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들어왔던 '형벌'이라는 것이 이토록 참혹한 의미를 지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끔찍한 형벌이 무녀 집단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뒤의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신사를 떠났던 무녀들이 모두 형벌을 받고 사라진 후, 지금의 무녀 집단이 마치 폐허에서 다시 솟아나듯 서서히 재건되었을 터였다. 어쩌서 아린이 큰 무녀님에 비해 훨씬 젊은데도 현존하는 무녀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는지도 명확해졌다. 아린은 아마도 그 재건된 무녀 집단의 첫 번째 무녀였을 것이다. 조선의 건국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니, 대략 650세 안팎이었을 그녀가, 그 파괴와 혼돈의 시대 이후 신성한 부름을 받은 첫 씨앗이었던 셈이다.

마루 한편, 큰 무녀님을 찾아 뵈려다 얼떨결에 이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명아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명아는 학구적인 무녀였다. 그녀는 고대의 기록들을 탐독하며, 때때로 인류 집단이 어떤 알 수 없는 대재앙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수가 줄어든 뒤 다시 현재의 규모로 재건되었다는 설을 접한 적이



있었다. 명아는 그 이야기들이 그저 오래된 미신이나 전설이라고 치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큰 무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설'이 바로 무녀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비극적인 진실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무녀에게 일어난 이 거대한 사건이 어찌면 인류 전체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스쳤다.

큰 무녀님은 침묵 속에 차를 마시는 루아를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루아에게 건네었던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집어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다정했다. 낡은 도자기 주전자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는 큰 무녀님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회한과 깊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주전자를 감싼 큰 무녀님의 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녀는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루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왜 이 주전자를 늘 곁에 두는지 알겠느냐?"<sup>[B:7]</sup>

정적 속에 큰 무녀님의 질문이 울렸다. 그 순간, 마루 한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숨어 듣고 있던 명아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큰 무녀님...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명아는 고개를 숙였다. 큰 무녀님은 명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손을 내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명아야. 때가 되면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였으니. 네가 듣게 된 것도 어찌면 신의 뜻이리라."

큰 무녀님의 관대한 말에 명아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들은 끔찍한 이야기와 더불어, 무녀로서의 학구적인 탐구심이 번뜩였다.

"큰 무녀님, 아까 '아흔 달이 아흔 번 차고 이지러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지요? 혹시 이것이 음력으로 90 곱하기 90, 즉 8,100개월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명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큰 무녀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아는 그제야 안도한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시작된 듯했다. 명아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손가락으로 허공을 짚어가며 빠른 속도로 계산을 이어나갔다.

"8,100개월... 음력 한 달을 평균 29.53일로 보면, 대략 239,200일 정도이고요...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655년하고도 몇 개월이 됩니다."

명아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큰 무녀님께서 말씀하신 혼란의 시기가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직전의 1380년대 즈음이었다면... 그때부터 655년하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가 아니라, 이제 거의 다 끝났을 시점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형벌이 이미 끝나고 다시 무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명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녀는 주전자를 감싼 큰 무녀님의 손을 바라보았다. 루아 역시 명아의 계산에 경악하며 숨을 멈췄다. 끔찍한 형벌의 시간이,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드디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온몸을 감쌌다.

명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큰 무녀님이라면... 형벌에서 풀려난 서리에게...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 주실 건가요?"

큰 무녀님은 명아와 루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게 핀잔하듯 미소 지었다.

"이 주전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지금 나에게 물어보면 어찌하느냐. 어리석은 것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었다. 큰 무녀님은 주전자를 두 팔로 소중히 끌어안았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저... '그간 그리웠다, 서리야. 너와 다시 함께 할 때를 고대했다'고 말해주고... 꼭 안아 줄 게다."<sup>[B:8]</sup>

...

그날 밤, 큰 무녀님은 평소처럼 고요히 잠자리에 들었다. 무녀의 습관대로 짧고 깊은 잠이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의 푸른 기운이 방 안을 감싸고 있을 때, 큰 무녀님은 눈을 떴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옆자리의 온기가 느껴졌다.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던, 작고 소중한 체온이었다.

큰 무녀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열은 새벽빛 아래, 자신의 옆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단정한 이목구비, 차분히 내려앉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평화로운 숨소리. 더 이상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아니었다. 주전자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서리가 있었다.

명아의 계산이 맞았던 것이다. '아흔 달이 아흔 번 차고 이지러지는' 그 기나긴 형벌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났다. 큰 무녀님의 얼굴에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안도가 뒤섞인 미소가 번졌다. 6백 년이 넘는 세월. 고통과 속죄의 시간이 그녀를 다시 온전한 무녀의 모습으로 돌려놓았다.

큰 무녀님은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아직 잠들어 있는 서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따뜻한 체온과 나직한 숨소리가 그녀의 품 안에서 느껴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명아가 썼다는 그 무녀 생활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되었군.'

큰 무녀님은 가만히 서리를 품에 안은 채, 다시금 눈을 감았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 속에서,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sup>[B:9]</sup>

## 〈무녀 생활 가이드〉에 대한 서한

명아 선배께,

선배님께서 힘써 만드신 무녀 생활 안내서를 읽었습니다. 처음에 '가이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앞뒤 문맥을 미루어 보아 '길잡이'나 '안내서'를 일컫는다는 것을 이내 짐작하였습니다. 책을 펼쳐 들고 읽어 내리는 내내, 선배님의 깊은 지식과 무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글 사이사이에 스며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실도와 이해도에 대한 설명은 제가 현신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체계가 잡혀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루아나 샘이 같은 어린 무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나, 선배님. 제게는 이 안내서에 한 가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내서는 '새로이 무녀가 된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하시면서, 어째서 저처럼 오랜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무녀가 된 이를 위한 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 가장 오랜 무녀 중 하나이지만, 육체가 주전자로 변해버린 지난 육백오십여 년의 시간 동안, 세상의 이치와 무녀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변신 능력은 여전하지만, 몸이 땅에 닿지 않고 붕 떠오르는 감각이나, 찻잎이 물에 우러나듯 제 안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느낌은 도무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본 세상은 수백 년 전의 세상인데,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리

적응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다시 무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왜 없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형벌이 유일하게 유한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이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서라는 것은 보다 다양한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장 이 지면에 모든 것을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위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이 특이한 경험을 한 무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작은 조언이라도 포함된다면 이 안내서는 더욱 완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전자로 지내는 동안, 큰 무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 새로이 접한 글들을 통해 이 땅의 새로운 문자와 말씨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편지를 예전처럼 한문으로 쓰지 않고도 선배님께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 편지가 혹 선배님의 노고에 작은 상처라도 주었다면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십시오. 다만, 이 안내서가 무녀들에게 더욱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서리 올림<sup>[C:1]</sup>

## 사용된 프롬프트들

이 소설은 95% 이상이 Gemini 2.5 Flash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작성되었다. 이에 투명성을 위해 사용된 프롬프트들을 나열하려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프롬프트들이 진짜 작품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소설이 작성되었는지 알기 원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1: 현신의 무녀

[1:1] 어느 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 줘. 이 신사는 도시와 꽤 떨어져 있지만 아주 외딴 곳은 아닌 산 속에 있는데, 신사의 경계가 있어서 이 경계 안에서는 신사의 소속 무녀들이 무생물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킬 수 있어. 미리 경계 안에서 신체를 변형한 상태라면 경계 바깥에서도 그 모습이 유지돼(하지만 다시 경계 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원래 모습 등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 이 때문에 이들은 일단 무녀가 되면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고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일들이 필요 없어져. 눈치챌 수 있겠지만 신사 건물들조차 아주 오래 전에 무녀가 된 한 사람의 몸이고, 그 무녀(큰 무녀님이라고 불림)는 다른 무녀들이 당황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몸 안에 자기의 분신을 따로 만들어서 아바타 삼아서 활동하고 있어. 물론 이 사실을 신사 바깥에서 알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신사 안에는 무조건 무녀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이 사실을 매우 꼼꼼하게 숨기고 있지만 말이야.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주인공 소녀가 어느 날 머릿속에서 어느 신사로 가라는 뚜렷한 목소리를 듣고, 정식으로 무녀로 입문한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같이 짝이 지어진

동료 무녀는 외부 활동시 서로의 옷으로 변형되어 한 시 한 때도 서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서술해 줘.<sup>1</sup>

[1:2] 아주 경건해 보이는 시작과는 달리 무녀들이 생각보다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 줘. 예를 들어서 무녀들 중에는 텔레비전으로 흔히 변하는 무녀가 있는데, 이 무녀는 단순히 텔레비전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 되기 위한 기술적인 요구사항, 이를테면 vertical blank나 ATSC 프로토콜의 상세 등을 전부 알고서 텔레비전으로서 활동하는 거야(이런 사항을 몰라도 텔레비전으로 변신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기능이 단순한 것<sup>2</sup>만 가능해지지. 해당 서술은 대화를 통해 드러나진 않게 했으면 좋겠어---해당 기술 사항을 아는 사람은 그 무녀 뿐일테니까 말이야). 단순히 옷 뿐만 아니라 편리한 생활을 위한 물품들로 변신하는 무녀들이 있다는 데 루아가 흥미를 느끼는 장면까지를 작성해 줘.

[1:3] 왜 신님은 이런 특이한 경계를 만드신 건지 루아가 큰 무녀님께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하는 장면을 묘사해 줘. 그리고 뒤에 코멘터리는 붙이지 마.<sup>3</sup>

[1:4] 루아가 잠시 외출하는 이슬을 위해 이슬의 옷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줘. 루아가 변신한 옷은 본래의 무녀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이어야 하고, 그 뒤에도 오감 을 유지하면서 이슬과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야 해. 무녀복은 무녀들이 경계 안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신체의 일부로서 존재하지만, 경계를 벗어나면 알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옷이 될 무녀가 필요하다는 설정이야.

[1:5] 이슬의 옷으로서 신사 바깥으로 나간 루아가 옷이 당할 수 있는 각종 수난을 당하면서 당황하는 장면을 그려 줘.

[1:6] 돌아오는 길에 루아가 당혹하면서 이슬한테 텔레파시로 이거 꽤찮은 거냐고 묻고, 이슬이 자신의 경험, 즉 다른 물건으로 변한 뒤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를 설명하면서(가장 심한 장면은 유리 제품으로 바뀌었다가 깨지는 것이어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님의 축복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장면을 묘사해 줘. 실제로 신사에 들어 오자마자 인간의 형태로 돌아온 루아의 몸은 멀쩡하기도 하고 말이야. 참고로 이슬이 유리로서 깨졌던 사건의 경우 큰 유리 조각들을 신사에 들어 온 뒤에 복구되었다는 설정이야.

---

<sup>1</sup> 어찌다가 이 과정에서 "루아"라는 이름이 나왔는진 여전히 모르겠다. 이 미묘할 수도 있는 이름을 유지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루아 프로그래밍 언어에 학을 떼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을 위한 인사이드 조크였다.

<sup>2</sup>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 System M + NTSC 형태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만 구현되는 꼴이 되어 쓸모가 없어지는 걸 의도했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던 설정은 나중에는 〈무녀 생활 가이드〉로 대표되는 거대한 설정 덩어리로 진화한다.

<sup>3</sup> 지속적으로 내용 뒤에 사족을 붙이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 앞으로 꾸준히 나올 것이다.

## 2: 자동차 무녀

[2:1] 루아가 다른 무녀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전기자동차가 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의 세부 구조에 대해 정비 매뉴얼을 찾아서 외울 정도로 읽는 모습을 서술해 줘. 루아 이전에는 무녀들은 걸어 가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신사를 방문한다거나 할 때는 이래 저래 불편하단 말이지.

[2:2] 루아의 자동차로서의 첫 데뷔를 소설로 묘사해 줘. 루아의 "연료"는 미리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으로 대체되고, 운전석에는 루아 자신의 분신이 타고 있어서 괜히 단속에 걸리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 이걸 가능하도록 루아가 운전면허를 따고, 루아 자기 자신의 자동차 등록을 위해 이슬이 루아로 변신해서 루아를 운전하고 등록을 하는 장면도 포함해 줘. 연료가 부족해서 맛있는 걸 실시간으로 먹이는 장면도 있으면 좋아.

[2:3] 이번에는 이슬이 변신한 옷을 입고 1년만에 부모님께 잠시 안부를 전하러 가는 루아의 모습을 묘사해 줘. 아무래도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실종되었으니 걱정이 크실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비밀 유지 때문에 설명이 힘들어서 곤란하던 차에, 어머니의 발언을 통해 루아의 어머니가 자기 어릴 적에 알고 지내던 단짝 친구였다는 걸 이슬이 깨닫게 되고, 이걸 사용해서 신님의 능력이 단순한 말 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 성공해(변신 능력을 보여 줄 수는 없으니 이슬의 지식을 빌리는 게 좋겠지). 이슬한테 안부 전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에 이거 어째야 하나 하는 이슬의 반응도 있으면 좋아. 아, 물론 '루아'와 '이슬'이라는 이름은 무녀로서의 이름이고 본명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루아'나 '이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돼. 맨 뒤에 코멘터리는 넣지 마.

[2:4] 걸어서 신사로 돌아오던 루아가, 문득 왜 자신은 자동차로 변신했을 때는 운전석에서 완전히 옷을 입은 분신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몸의 일부로서 옷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왜 그런지 궁금해해. 이슬도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서 동조하고 궁금해한 뒤, 큰 무녀님한테 여쭙 보고 그 이유가 된 옛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을 그려 줘.

[2:5] 큰 무녀님이 소년 만화를 좋아한다는 의외의 면을 발견하는 루아를 묘사해 줘. 큰 무녀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했으면 좋겠어. 코멘터리는 추가하지 마.

[2:6] 어릴 적에 배운 피아노를 다시 되새기려는 루아가 명아한테 피아노로 변신해 달라고 부탁하려 하는데, 명아가 전자·전기 쪽에는 해박하지만 의외로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루아가 명아한테 피아노의 구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해 줘. 명아의 평소 모습이 잘 묘사되었으면 하고, 루아가 명아를 가르친다는 의외의 모습 때문에 몇몇 다른 무녀들이 구경하는 것도 함께 묘사해 줘. 마지막에는 명아가 아름다운 업라이트 피아노로 변신하고 루아가 그걸 연주하는 걸로 끝나면 돼.



[2:7] 겨울을 나는 신사의 모습을 묘사해 줘. 인간 모습일 때는 무녀들이나 그 분신들도 추위를 느낀다는 설정이야. (몸의 일부인 의상은 변하지 않으니 뭔가가 더 필요하겠지.) 보일러나 화로로 변신하는 무녀들이 몇 있을 것이고, 생동맞게 에어 프라이어로 변신해서 겨울 음식을 구워 주는 무녀도 있으면 재밌겠어. 코멘터리는 넣지 마.

[2:8] 신사의 대외 활동 중 하나로서 마을 축제를 돕는 장면을 묘사해 줘. 신사 경내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신사 입구 근처의 평지를 중심으로 축제 장소를 결정하고, 신사가 으레 그러듯 카구라를 추는 모습과 함께 그 카구라를 함께 하는 의상과 방울 역의 무녀들도 소개해 줘(지금까지 나온 무녀들 중 한 사람 정도가 겹치면 좋겠어). 루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소개해 주고.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서 신사의 비밀이 새어 나오면 안돼. 코멘터리는 삼가 줘.

### 3: 새로운 무녀

[3:1] 루아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무녀가 영감을 받아 신사를 찾아 오는 과정을 루아의 시점에서 (삼인칭으로) 그려 줘. 무녀들이 새 무녀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묘사해.

[3:2] 새 무녀가 될 소녀와 그 동생이 신사에 함께 나타나면서 생기는 일들을 알려 줘. 보통이라면 소녀 혼자서 찾아 오는데, 어쩌다 보니 동생이 그 소녀를 쫓아 오면서 신사까지 들어 와 버린 거야. 일반인이 신사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봐.

[3:3] 소녀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쩌다 동생이 함께 따라 왔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을 묘사해 줘. 부모님을 여의어서 혈육이 동생 하나 뿐이라면서 자신이 사라지면 동생은 홀로 살 수 없을테니 신사에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하니, 큰 무녀님을 포함한 무녀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신님이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처한 소녀를 무녀로 삼으시려 하는지 고뇌하는 거지.

[3:4] 큰 무녀님이 오랜 생각 끝에 바깥에 변신한 채 대기하고 있던 루아(현재 변신: 구급상자)와 이슬(현재 변신: 보호막)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서 동생 지훈에게 무녀가 될 용의가 있는지 묻도록 해(큰 무녀님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둘 중 어느 쪽이 옷으로 변하고 어느 쪽이 무녀로 변할지는 알아서 결정해). 남자인데 무녀가 될 수 있느냐는 당연한 질문에 남자로서 무녀가 된다는 건 자신의 남성을 버린다는 뜻이라고 말하자, 누나랑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겠노라고 대답하는 순간 지훈의 몸이 조금 소년스럽지만 엄연히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무녀로서 드나들 수 있게 돼. 큰 무녀님의 해안에 감탄하는 두 사람에게 신님의 생각을 헤아렸을 뿐이라고 답하는 큰 무녀님과 함께, 새 이름을 받게 된 (이제) 자매 무녀의 모습까지를 묘사해 줘.

[3:5] 본래 소년이었던 샘이의 천방지축 신사 생활을 묘사해 줘. 너무 심각한 일을 일으키지는 말아야 해. 그리고 맨 끝에 코멘터리는 그만 붙여.

[3:6] 무녀 수업을 받던 별이가, 무녀가 되면 그 시점에서 성장이 멈춘다면 샘이는 꼬마의 모습으로 영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고서 큰 무녀님에게 확인차 질문하고, 그게 맞다고 말하면서도 작기 때문에 변신하기 쉬운 물건도 있을 것이라면서 혹시 이게 신님의 진짜 의중이 아닐까 덧붙이는 큰 무녀님을 묘사해 줘.

[3:7] 10년이 지나고 무녀가 되지 않았다면 스물 안팎의 청년이 되었겠지만 여전히 꼬마 아가씨로 남아 있는 샘이의 모습을 그려 줘. 내면은 이제 숙녀로 완전히 성숙했기 때문에 꼬맹이의 자기 모습에 조금 미련을 가지지만 그럼으로써 누나, 아니 이제 언니인 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데 더 큰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 루아가 그런 고민을 하는 샘이에게 자기가 자동차로 변신할테니 드라이브 한 번 하겠느냐고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잠깐 생각해 보다가 샘이를 조수석에 태우려면 어린이용 시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은 루아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샘이한테 핀잔을 당하면서 이야기를 끝냈으면 좋겠어.<sup>4</sup>

## 4: 시간의 무녀

[4:1] 루아가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점검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를 묘사해 줘. 자신의 몸 안쪽이 다른 사람한테 낱알이 조사되는 과정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주안점으로 삼아. 점검을 받는 정비소는 신사와 딱히 관련은 없는 곳이야.

[4:2] 샘이가 어떤 작은 물건으로 변신해서 신사에 도움이 되는지를 소설로 묘사해 줘.

[4:3] 큰 무녀님이 무녀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장면을 묘사해. 큰 무녀님은 설정상 신사의 첫 무녀여야 하므로, 아주 오래 전부터 살아 왔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화 시대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4:4] 이 신사가 물질의 한계를 뛰어 넘는 신사라면, 자주 찾아 가는 다른 신사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신사로 설정하고(단순히 무녀들이 불로불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인식하며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 루아 등이 큰 무녀님의 서한과 함께 그 신사에 찾아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해 줘. 해당 신사 또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니만큼 설령 같은 무녀에게라도 제한적으로만 미래를 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

<sup>4</sup>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 본래 원래 줄거리는 여기서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풀어 내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뒷얘기를 살살 풀어 나가다 보니 원래의 세 배가 넘는 텍스트가 되는 비극이 발생한다.

[4:5] 시간의 신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들려 줘. 해당 서술에서는 미래에 대한 언급도 충분히 가능해(현신의 무녀들에게 알려지는 내용이 아니니까).

[4:6] 시간의 무녀들을 만나고 온 무녀들이 큰 무녀들을 만나서 그들에 대해서 전해 듣는 모습을 묘사해 줘.

## 5: 연인의 재회

[5:1] 지금은 성인으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루아의 옛 여자 친구<sup>5</sup>가, 전혀 나이가 들지 않은 것 같은 루아(정확히는 루아가 변신한 자동차에 타고 있는 분신, 루아의 본명은 "지은"이고 "루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것)를 차를 타고 가다가 발견하고 내가 헛것을 봤나 생각하는 장면을 그려 줘.

[5:2] 문제의 차 번호를 외워 둔 서연은 한 번 더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루아(지은)의 모습을 보게 돼. 서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루아는 장을 보러 나간 무녀들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자기 자신은 본체인 자동차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으므로 계속 앉아 있던 것이었어. 루아는 앞서 루아 나름대로 서연을 보고 옛 생각이 나면서도 자기를 알아 봤을까봐 살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분신 상태라 달리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서연을 맞닥뜨리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지은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재회하는 내용까지를 묘사해 줘.

[5:3] 더우니까 잠시 자동차 안에 들어가라고 권하는 루아(지은). 루아는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무녀가 되었다는 것과, 잘은 모르겠지만 무녀가 된 뒤로 성장이 멈췄다는 것 정도까지를 설명하고, 지금 다른 무녀들이 장을 보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 줘. 부모님은 만났느냐는 말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 뵈는다고 밝혀서 조금 안심한 서연. 반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루아의 질문에 기자 일을 하고 있다는 서연의 답변도 이어지도록 계속 서술해 줘.

[5:4] 루아가 변신한 자동차가 최신형이라면서 괜찮아 보인하면서도 어찌다 이런 차를 무녀가 몰고 다니는 걸까 궁금해하는 서연에게, 자기 자신을 칭찬받아 기쁜 루아가 자동차에 대해 (자기 자신이 변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 빼 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늘어 놓으니 서연이 살짝 당황하면서도 학생 때 수다쟁이였던 지은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안심하는 모습을 묘사해 줘.

[5:5] 다른 무녀들이 차로 돌아오고 나서 서연이 가볍게 인사를 한 뒤 헤어지는데, 서연의 마음 속에는 지은이 잘 살고 있는 듯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무슨 신사인 거지 하는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 장면을 서술해 줘.

---

<sup>5</sup> Gemini가 이 낱말을 동성 연애로 착각하여 이 소설은 줄지에 백합물이 되어 버렸다.

[5:6] 큰 무녀님이 장을 마친 루아를 불러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칭찬한 뒤, 서연이 앞으로 무녀는 아니어도 신사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잘 지내라고 격려하고, 루아가 이게 시간의 신사에서 받은 정보냐고 문자 글썽다 하면서 답은 주지 않고 미소만 짓는 큰 무녀님의 모습을 묘사해 줘.

[5:7] 서연이 기억하고 있던 차 번호를 토대로 기자의 권한을 가지고 추적을 나서는데, 분명 자신이 봤던 자동차 모델은 고작해야 3년 전에 나왔는데 자동차 등록이 십 수 년 전이고 그 사이에 달리 다른 일이 없었다는 데서 이상함을 느끼는 장면을 묘사해 줘.<sup>6</sup>

[5:8] 머리가 아파진 서연이 밤중에 강변으로 드라이브를 가는데, 드라이브 도중 "매번 필요에 따라 자동차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이 모든 상황이 설명된다는 걸 깨닫고 신사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알게 되는 장면을 묘사해 줘. 지은의 무녀명(루아)은 모르는 상태고, 변신을 한다는 것도 아직 상상하진 못 하고 있어(단순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추측 가능).

[5:9] 큰 무녀님이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면서 드라이브라도 다녀 오라고 루아한테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루아가 자동차를 몰다가 또 잠복해 있던 서연에게 들켜.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몰래 찾아 오냐고 손사래를 치는 루아에게 서연은 드라이브 나갈 거면 같이 드라이브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드라이브 중에 자신의 발견을 토대로 신사의 비밀이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냐고 직접적으로 물어. 이에 자신이 그간 너무 최신형 자동차로 변신했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피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에 서연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야. 이에 마침 자동차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으니 직접 보여 주겠다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햄버거를 주문한 뒤 루아의 분신이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동안 (달리 별도의 연결 같은 걸 하지 않고서도) 자동차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걸 보여 주는 걸로 신사의 비밀을 보여 주게 돼. 서연이 자신의 생각 이상의 진실에 전율하는 모습까지를 소설로 묘사해 줘.

[5:10] 굉장한 감정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비밀이 될 수 밖에 없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한 서연은 맹세코 비밀을 지키겠노라고 말해 주고, 이에 자신도 변신할 때 좀 신경 쓰겠다고 굼적거리면서 답하는 루아를 묘사해 줘.

[5:11] 같은 시각, 신사 경계에 설치된 우편함에 들어 온 편지를 살펴 보던 한 무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편지 한 통을 들고 큰 무녀님에게 뛰어 오는데, 이에 큰 무녀님이 그 내용을 짐작한 뒤, 루아가 잘 대응하고 있으니

---

<sup>6</sup> 십수년간 정확히 똑같은 차종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는 설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꽤 괜찮았다.

안심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편지를 받고 읽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를 묘사해 줘. 해당 편지의 수신인은 언급하지 말고 발신인은 모 건축 회사인 것으로 해 줘.<sup>7</sup>

## 6: 개발의 칼날

[6:1] 큰 무녀님이 드라이브에서 돌아온 루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장면을 묘사해 줘. 건축 회사에서 신사가 위치해 있는 산을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신사가 중간에 딱하니 박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토지 보상 건으로 연락한 것이었던 거야. 애초에 신사가 토지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데 놀란 루아에게, 충분히 지해롭지만 세상의 나이 기준으로 지나치게 늙지 않은 무녀들이 법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주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는 이슬이 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루아가 마침 그 다음 순번이라는 걸 알려 주는 큰 무녀님. 루아 또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바로 깨닫고, 서연의 연락처를 찾아 보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서술하면 돼.

[6:2] 휴대폰으로 변신한 명아의 도움으로 서연에게 전화하는 루아. 서연이 상황을 전해 듣고 이걸 위해 자신을 지은과 만나게 해 주었구나 하는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힘써 돕겠다고 말해 줘. 단순히 토지 보상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아킬레스 건을 찾기 위해 여러 무녀들이 재정 상황이나 위법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해 줘.

[6:3] 무녀들이 파악한 회사의 내부 상태에 대해서 상상해서 서술해 줘. 우선 무리한 프로젝트 수주와 차입 경영으로 상당한 재정 악화를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 방을 노리려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설정이 필요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서 서술해.

[6:4] 이 모든 정보를 받은 서연이 특종을 터뜨리고, 단순히 작은 신사 부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게 폭로되면서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는 중지, 그리고 머지 않아 해당 업체가 도산하면서 경매로 나온 신사 주변 산림을 루아가 헐값에 인수하는 걸로 사건은 종지부를 찍어. 이 시점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설로 써 줘.

[6:5] 그 뒷얘기를 묘사해 줘. 정식으로 이슬로부터 토지를 양도받는 루아의 모습과, 특종 정보에 감사해하면서 신사 경계 바로 앞까지 와서 큰 무녀님과 루아를 만나는 서연의 모습이 포함되면 좋겠어. 특히 서연은 자신과는 달리 영겁의 삶을 살 지은, 즉 루아를 잘 부탁한다고 큰 무녀님께 말을 건네고, 이에 큰 무녀님도 이번에 큰 신세를 졌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해.

---

<sup>7</sup> 본래 이것이 시간의 무녀들이 경고한 '큰 혼란의 시기'가 될 예정이었으나, 작성해 놓고 보니 너무 약해서 이는 징조로만 사용하고 9장에서 해당 내용을 따로 다루었다.

[6:6] 서연과 지은이 옛날에 서로 사귀었다는 사실이 특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상상해서 묘사해 줘. 지은이 무녀가 되기 전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고등학교 1학년 즈음이야.

[6:7] 앞서 나온 연애 이야기 같은 걸 주고 받으면서 사건 해결 기념으로 또 드라이브를 나가는 지은과 서연 두 사람을 그려 줘. 그리고 자신의 몸(자동차) 안에 서연이 있다는 걸 지은(루아)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지은의 말을 빌어 설명해 줘.

## 7: 빛의 무녀

[7:1] 여름이 되었는데 이상 기후<sup>8</sup>로 예년보다 훨씬 더워진 날씨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겨 내는 무녀들을 묘사해 줘. 큰 무녀님한테 예전에도 이렇게 더웠느냐고 물어 보는 장면도 있으면 좋아(모범 답변은, 이 정도로 더운 날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더운 날이 계속되는 건 근년간에 새로운 것이라는 것).

[7:2] 샘이 말고도 어린 모습으로 무녀가 된 선배 무녀를 보여 주고, 샘이가 그 무녀와 대화하는 것으로 그 설정을 묘사해 줘.

[7:3] 아린의 하루 생활을 묘사해 줘.

[7:4] 시간의 무녀들도 현신의 무녀들처럼 어느 시점에 부름받아 무녀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무녀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루아와 그에 답하는 큰 무녀님의 모습을 묘사해 줘.

[7:5] 소위 현신의 무녀와 시간의 무녀가 존재한다면 다른 무녀도 존재할까라는 생각에, 무심결에 떠오른 "빛의 무녀"도 존재하느냐고 묻는 루아에게 큰 무녀님이 흥미를 표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되묻고, 나중에는 빛의 무녀는 존재하며 다름 아닌 텔레파시를 중개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데까지의 내용을 묘사해 줘. 참고로 이 무녀들은 물리학의 spacelike(물질), timelike(시간), lightlike(빛)에 대응되는데 이 설명을 큰 무녀님이 사용할지 말지는 재량껏 하도록 해.

[7:6] 명아와 함께 빛의 무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묘사해 줘. 명아는 (위성 신호를 다뤄야 하니까) 이런 종류의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아마도 우리 현신의 무녀는 빛보다 느린 것을 다루는 spacelike, 시간의 무녀는 빛보다 빠른 것을 다루는 timelike, 그리고 빛의 무녀는 빛과 속도가 같은 것을 다루는 lightlike에 대응할 거라는 (올바른) 추측을 세우는 걸로 해. 명아의 실제 대화에서는 해당 내용을 물리학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해 줘.

---

<sup>8</sup> 이 또한 '큰 혼란의 시기'에 대한 암시를 의도했음.

[7:7] 빛의 무녀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좀 더 그리고 싶어. 마지막 부분에서 빛의 무녀에게 기도를 해서 능력을 추가적으로 발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정당화할 필요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빛의 무녀에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알게 된 뒤(큰 무녀님은 아니고 다른 무녀에게서), 기도를 해 보니 되더라는 경험이 있어야 해. 이걸 해 보는 사람이 꼭 명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신의 무녀 중 한 사람이긴 해야 해.

그리고 빛의 무녀"들"이 아니라는 걸 좀 더 명시적으로 보이고 싶은데, 복수인 현신의 무녀와 시간의 무녀와는 달리 빛의 무녀는 훨씬 합일화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해(마치 현실에서 광속으로 이동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이 0이라는 것과 같이).<sup>9</sup> 이 사항이 설명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의 무녀와의 교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상의 두 목적을 동시에 잡으려면 어떤 에피소드가 좋을까? 이 에피소드는 루아와 명아가 세 종류의 무녀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이지만, '큰 혼란의 시기'보다는 전에 들어가면 좋겠어(그리고 큰 혼란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야 해)<sup>10</sup>.

## 8: 영겁의 독<sup>11</sup>

[8:1] 어느 날 루아와 이슬이 장을 보러 나가는데, 원래 장은 짝수명이 보러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한 명은 옷으로 변신하고 한 명은 그 옷을 입고 다녀야 하니까), 주홍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지갑으로 변신해서 같이 따라가게 돼. 보통은 돈 같은 건 주머니에 갖고 다니며 가게에서 나오는 봉지로도 충분해서 장바구니도 쓰지 않는 편이니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마침 지갑이 있는 게 편리하겠다 생각해서 원래 나가려던 무녀들이 그러자고 해. 한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주홍이 자신이 무녀들한테서 멀어진다고 텔레파시를 보내고,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게 밝혀져. 앞서 부딪힐 뻔한 사람이 소매치기였던 거지. 이에 남은 무녀들이 깜짝 놀라서 경찰서를 찾아서 신고하고, 텔레파시로 신사에 있는 명아에게 연락해서 휴대폰으로 변신해 언제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몇 시간 후 명아가 텔레파시로 소매치기는 잡았지만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녀들이 당혹해. 주홍이 텔레파시가 가능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에도 그랬던 거야. 이에 주홍이 자신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영영 지갑의 모습으로 영겁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거냐며 절망하고, 거기에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렇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무녀들을 묘사해 줘. 전체 내용에 충분히 살을 붙여 줘. 솔은 현신의 무녀가 아니므로 어디서든 등장하면 안돼.

<sup>9</sup> 굳이 물리학 개념을 빌리겠다면 복수로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놓고 빛, 곧 광자photon라고 했으니만큼 구분이 가지 않는 단일한 존재로 설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sup>10</sup> [7:7]은 [9:6]을 보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9:\*] 전체가 다 작성된 뒤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Gemini가 이를 언급하려는 걸 차단해야 했다.

<sup>11</sup> 서사가 너무 평이하다는 Gemini의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9장이 작성된 뒤에 작성되었다.

[8:2] 침울해진 상태로 신사에 돌아오는 루아와 이슬에게 큰 무녀님이 괜찮냐고 물어 보고, 무녀들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주홍이 어찌냐는 얘기에 예전에 변신을 악용하던 무녀들이 있었다고 말한 걸 기억하냐고 되물어서 그렇다고 답해. 그럼 그 무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큰 무녀님이 질문하자 주홍의 상황을 떠올리고 깨달음을 얻는 두 무녀. 하지만 그런 절망은 악한 의지로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고, 너희들은 선하고 무녀가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가끔 이런 일도 있겠지만 신께서 그걸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라고 대답해. 여전히 조금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신의 축복을 봐 왔으니만큼 서로 손을 꼭 붙잡으며 어떻게든 해 보리라 다짐하는 두 사람의 모습까지를 상세히 묘사해 줘.

[8:3] 밤이 깊은 시점, 텔레파시로 주홍에게 큰 무녀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주홍이 조금 안정된 뒤, 주홍이 자신이 쓰레기통이나 유사한 것 안에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이에 두 사람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몇몇 현신의 무녀들을 더 대동해서 마을로 내려가 쓰레기통을 쥐잡듯이 뒤져. 쓰레기 수거일이 다음 날이라서 당일에 찾지 못하면 더 멀리 떨어질 위험이 있었는데, 고양이 손도 부족할 판이라서 서연한테도 연락하고, 뒤늦게 도착한 서연도 이걸 도와줘. 이윽고 주홍이 자기 근처에 무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해서 장소가 좁혀지고, 이윽고 주홍이 변신한 지갑을 발견하고야 마는데 꽤 더러워져 있긴 했지만 분명히 주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일단 가져가기 위해 잘 씻기는데 주홍은 안심한 덕분인지 지금까지 했던 목록보다 더 기분 좋았다고 평해. 경계 안으로 들어오자 주홍은 원래대로 돌아 오고, 큰 무녀님께 두려웠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해당 장을 마무리하는 한국어 글을 써 줘.

## 9: 세상의 위기

[9:1] 2038년 초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간의 무녀로부터의 정보가 신사에 들어 오는 장면을 묘사해 줘. 해당 시점은 작중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반 이후야. 이번에는 큰 사건이니만큼 시간의 무녀들이 직접 신사에 방문하고, 큰 무녀님도 이번만큼은 웃음기가 싹 빠진 얼굴로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해.

[9:2] 뒤숭숭해진 신사 안에서 거대한 혼란이 정확히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무녀들이 논의하는 장면을 묘사해 줘. 무녀들의 주된 의견은 둘 중 하나로 갈렸는데, 유닉스 시간이라 하는 컴퓨터에서 널리 쓰이는 시각 체계가 Y2K와 유사한 범위 문제를 겪는다는 가능성 하나<sup>12</sup>와, 태양 활동이 극대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코로나 질량 방출(CME)로 인해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기계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 하나로 좁혀졌어. 각자 각 의견을 지지하는 무녀 대표가 존재해서 각 시나리오를 설명하도록 하고, 소수 의견이 있다면 생각해서 추가로 넣어 줘.

---

<sup>12</sup> 전작 《싱크로니시티》에서도 비슷하게 NTP 타임스탬프 오버플로를 써 먹었다. 거의 똑같은 거 두 번 우려먹는 것도 이쯤 되면 질릴 만도 한데.



[9:3] 큰 무녀님의 결론은, 만약 아린의 말대로 세상의 법칙이 일그러지는 거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력 시나리오 두 개 모두 이론적으로는 인류가 대비할 수 있으며 다행히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만큼 존재하는 해결책을 사람들 모르게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어. 예를 들어서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2040년에서야 마무리된다면 문제가 생길테니, 다양한 방법으로 2038년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막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런 이야기를 무녀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그려 줘.

[9:4] 첫 6개월 동안은 실제로 어떠한 액션은 하지 않은 채, 효율적으로 가속화를 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영향을 줘야 하는지, 어떤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만을 조사하는 걸로 시간을 보냈어. 무녀는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Y2K38 문제의 경우 구형 임베디드 장치가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되어 일부러 구형 장치를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유도하는 쪽으로, CME의 경우 실제 과학적 관측과는 무관하게 들어간 "실수" 때문에 동시에 여러 연구팀들이 해당 CME를 예측하도록 유도하여 빠른 변화를 강제하는 방법론으로 전략이 잡혀. 어린 아이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년을 살아 온 아린의 표현을 빌면, 자신이 신사에 있던 시간들 중 이렇게 전 신사가 학구적이었을 때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무녀들이 많은 검토를 해 보았다고 해. 이상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소설로 써 줘.

[9:5] 이번 계획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작전이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 조용히 들어가서 정확한 위치에서 작전을 수행한 뒤 안전하게 돌아 오는 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원래 자동차로 활동하고 있던 루아 말고도 몸이 아주 작은 전배 무녀 아린이 더 붙어서, 둘이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은 소형 드론으로 변신하는 걸 연습하게 돼. 태평양을 바로 가로지르는 대신, 철새들이 그러하듯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만한 거주지들을 중심으로 이동하면 제 때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소리 소문 없이 지구 곳곳을 드나들 수 있는 거야.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시간은 편도 1주일 조금 안 된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야. 드론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의 구조를 다시 익히고, 운송 수단으로 변신한 적이 이제껏 없는 아린에게 속성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가르치는 루아의 모습까지를 묘사해 줘.

[9:6] 첫 드론 임무에 나서는 루아를 묘사해 줘. 루아의 목적은 미국의 어떤 연구실에 USB가 달린 조그만 장난감으로 변신한 샘이를 데려다 주는 것이고, 샘이는 필요한 컴퓨터에 USB를 꽂고 텔레파시로 명아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야. 루아와 샘이도 명아의 가르침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를 정확히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명아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명아의 지시를 따르는 거지. 첫 드론 임무니만큼 일종의 파일럿 성격도 가지고 있고. 루아는 태평양을 빙 둘러 가는 1주 가까운 장기 비행 끝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컴퓨터 근처까지 샘이를 데려다 놓는데 성공하고, 루아가 바깥에서 숨어서 대기하는 동안 샘이가 자력으로 움직여서 USB를 꽂는데 아니 글썽 엑셀 파일 포맷인 거야. 명아가 이러면 수정이 간단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 빛의 무녀에게 기도를 올려서, 잠시 명아가 샘이를 대신해서 파일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고, 제 시간 안에 들키지 않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성공하는 부분까지를 20문단 정도의 내용으로 소설로 묘사해 줘.

[9:7] 이후 몇 차례의 작전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린 또한 성공적으로 처녀 비행을 마치면서 계획에 물이 오르고 있던 어느 날. 이번에는 아린이 샘이와 별이를 담고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향하는데, 마침 그 때가 정확히 철새 이동 시기라서 드론이 새들과 부딪히다가 현지 시각 밤 중에 별이가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준주 즈음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바로 찾으려고 했지만 워낙 작게 변신한데다가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져서 몇십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 다행히도 텔레파시는 사용 가능하므로, 아린은 아린 나름대로 해상 수색에서 사용하는 이동 방법을 써서 별이의 시선에 자신이 들어 오도록 이동하기 시작해. 별이는 아린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특징적인 지형이 전혀 없으면서 고민하다가, 별자리를 보고 현재 위도를 열추 계산하는데 성공해. 이를 토대로 수색 영역을 크게 좁힌 아린은 마침내 별이를 발견하고, 이번에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아린의 드론 몸체에 꼭 달라 붙는 별이를 보면서 아린이 자신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보통은 아린이 겉보기에 가장 어린 무녀니까) 하는 내용으로 자세히 소설을 써 줘.

[9:8] 그렇게 연구 결과를 조작해 나가는 한편으로, 다른 무녀들은 아직 남아 있는 구형 임베디드 기기들 중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기기들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서 아주 조금씩 망가뜨리는 작전을 수행하기로 해. 동작 자체를 망가뜨리진 않지만 디스플레이가 이상해지거나 하는 식으로 자진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지.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 그냥 직접 근처에 접근하는 무녀들도 있었고, 루아와 아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서류를 조작해서 교체 시기를 앞당기거나 심지어는 새로 변신해서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기기 위에 배설물을 흘뿌려서 고장내는 방법까지도 사용되었어. 이상의 내용을 상세히 소설로 표현해 줘.

[9:9] 루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서연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 다국적 연구팀들의 관측이 CME가 2037~8년 경에 예상된다는 데 수렴하면서 하루 속히 대비해야 한다는 결의가 묻히지 않고 대서특필된 데는 서연이 다양한 언론인을 만나면서 해당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해서 확산시킨 게 컸어. Y2K38 문제에 대한 집중 보도 또한 서연을 포함한 탐사 보도팀의 결실이었고. 신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서연도 루아가 드론으로 변신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남미로 해외 출장을 나간 서연 앞에 임무를 마친 소형 드론이 나타나 바닥에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어이가 사라진 건 덤. 이상의 내용을 소설로 상세히 묘사해 줘.

[9:10] 4년이 지난 2038년 1월 19일 밤, 그간의 노력을 확인하듯 모든 무녀가 명아가 변한 텔레비전 앞에 앉아 특집 방송을 보는 장면을 묘사해 줘. 현신의 무녀들 뿐만 아니라 시간의 무녀들도 숨죽이며 지켜 보는 가운데, 유닉스 시간이 범위를 넘기고 나서도 소소한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모두가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 줘. 한편 그럼 CME는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텐데, 같은 날 CME가 발생은 했지만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빗겨 나가면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게 명아에 의해 뒤늦게 확인돼. 이 모든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데 보람을 느끼는 무녀들과 큰 무녀님의 모습까지를 서술하면 돼.

[9:11] 고생한 무녀들을 위해 지아가 노천탕을 파 놓았으며 무녀들을 초대해. 지아도 4년간 많이 고생을 했지만 전면에 나선 무녀들과는 달리 지원이 대부분이라 어려운 일을 같이 해 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자기가 흔히 변신하던 보일러로 계곡 물을 데워서 따뜻한 탕을 만들게 된 거야. 고맙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온천욕으로 4년 반간의 여정을 마치는 무녀들을 묘사해 줘.

[9:12] 다시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간 신사의 모습을 소설로 묘사해 줘. 시간의 무녀들은 이제 원래 신사로 돌아간 상황이야.

[9:13] 시간의 무녀들 입장에서 지난 4년간을 요약해 줘.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움직임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신의 무녀들에게 특정 선택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것 정도 밖에 없었어. (시간의 무녀들은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sup>13</sup>)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협이 100% 사라졌다고 보장할 수 없어서 긴장해 있었고, 이제서야 그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데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데까지 서술하면 돼.

[9:14] 큰 무녀님이 그간 읽던 소년 만화(불꽃 검객 카엔)가 완결된지 좀 되었지만 바빠서 미처 읽지 못하다가 마침내 끝까지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루아가 새 시리즈를 추천해 주는 장면을 묘사해 줘.

## 무녀 생활 가이드<sup>14</sup>

[A:1] 명아의 시점에서 "무녀 생활 가이드"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서문을 써 줘. 후배 무녀에게 평서체로 이야기하는 느낌이어야 해(시작을 "안녕! 나는 명아라고 해. ...하는 현신의 무녀지." 같은 식으로 시작하면 될 것). 명아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서문에 밝히는데,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을 명시적으로 글로 써서 이해를 넓히려는 것과, 급격하게 변하는 출판 매체(현 시점에서는 전자책)를 실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해. 명아가 자기 소개 중에 나이(2038년 기준 251세, 즉 1787년생; 실제로는 나이만 말할 것)를

---

<sup>13</sup> 양자역학의 해석과도 결을 같이 하지만, 일단 의도만 따지면 이 부분은 양상 논리modal logic와 아주 강하게 맞닿아 있는 설정이다. 석사 때 공부한 걸 이렇게 써먹는다.

<sup>14</sup> 이 장을 포함해 뒤이르는 모든 내용은, Gemini한테 설정 구멍을 최대한 많이 찾아 달라고 하면서 주고 받은 대화에, 거의 모든 질문을 답할 수 있었기에 양이 크게 불어나면서 이걸 써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다가 쓰게 된 내용이다. 그런 까닭에 프롬프트 길어도 아주 길고, 프롬프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원문에 들어간 경우도 많다. 근데 나중에 Gemini 등에게 평가를 시켜 보니 본편보다 반응이 훨씬 더 좋았다...

말하려다가 왓 이걸 비밀인데 하고 조금 후회하면서 어차피 오래 살면 나이는 숫자라고 안심(?)시켜 주는 내용도 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브리핑하는 것으로 서문을 마치면 되겠네.

[A:2] 다음은 "첫걸음"이라는 부제로 시작하는 내용이야. 다음 내용을 커버해야 해:

- 딱히 다른 일이 없다면 지금 이 책을 읽는 무녀는 신님께 부름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줘.
- 이 신사의 무녀들이 정식으로 "현신의 무녀"라고 불린다는 것과, 별도의 다른 신사에 "시간의 무녀"들이 존재하고, 텔레파시 등을 가능케 하는 "빛의 무녀"가 존재한다는 것. 빛의 무녀가 하나의 통일된 존재라는 점은 아린의 경험에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밝혀 줘.
- 현신의 무녀라고 불리는 이유를 설명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물질을 조작하고 그걸 우리 무녀의 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야.
- 그 덕분에 불로불사에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지 않아도 멀쩡히 생존할 수 있어. 물론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디 인간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음식도 먹고 잠도 보통처럼 자곤 하지만.
- 이런 능력은 그러나 신님께서 이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부여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

[A:3] 다음은 "변신 능력"이라는 부제로 시작하는 내용이야. 다음 내용을 커버해야 해:

- 변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니까 정확히 알아 두는 게 좋아.
- 신사 경계 안에서는 생물이나 무생물 어느 쪽으로나 변신할 수 있고, 다시 돌아 오는 것도 마음대로 가능해.
- 신사 경계 밖에서는 둘 다 불가능하지만, 이미 변신한 상태로 바깥으로 나갔으면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돼. 변신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면 보통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 우리는 신사 경계 밖에서는 별거송이가 되기 때문에(후술), 다른 무녀와 짝이 되어 한 사람이 나갈 때는 다른 쪽이 그 사람의 옷으로 변신해서 덮어 주는 게 보통이야. 아마 처음으로 변신할 때는 이걸 가장 먼저 연습하게 될 거야.
- 변신 후에도 우리의 오감은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특히 시각과 청각 같은 것은 옷 같은 형태로 변신해 있다면 그 옷을 입을 사람이 느꼈을 법한 식으로 재현돼.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몸 전체에서 바깥 경치를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 거야.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요즘<sup>15</sup> 유행한다는 일인칭 액션 게임 같은 걸 해 봤다면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 변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충실도(fidelity)가 있어. 충실도란 변신한 물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실재를 반영하느냐는 정도로, 크게 원래 몸집과의 크기 차이, 물체에 대한 이해도, 컨디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해. 키가 큰데 작은 물건으로 변신하려고 하면 충실도가 내려가고, 잘 모르는 물체로 변신하려고 하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 변신하려고 해도 충실도가 크게 떨어지지.
-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이해도야. 단순히 정적인 물체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충분히 따라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를테면 자동차를 따라한다고 하면 자동차의 원리를 세밀하게 알고 부품들

---

<sup>15</sup> 카운터 스트라이크(2000) 같은 고전적인 FPS를 생각하면 되겠다. 명아가 직접 게임을 많이 해 본 건 아닐테니 30년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

자기 몸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야 바깥에 나가도 들리지 않을 어엿한 자동차로 활동할 수 있을 거야(자세히 알고 싶으면 루아를 찾아가 봐). 만약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동차로 변신하면,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바퀴가 고정된 채로 끌려 간다던지 해서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 되겠지.<sup>16</sup>

-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수록 충실한 변신이 가능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A:4] "변신 능력"이라는 부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이어 나가려고 해. 다음은 뒤따르는 내용이야:

- 충분히 큰 물건으로 변신할 경우 그 물건 근처에 존재할 수 있는 분신을 하나 만들 수 있어. (분신이 변신하려는 물체보다 커질 수는 없어.<sup>17</sup>) 분신을 만들면 그 분신이 느끼는 감각을 주로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원래 물체에서의 감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 변신한 상태에서 다치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유리구슬로 변신했다가 깨지면 정말 아플 거야. 하지만 그렇게 깨진 조각 대부분을 경계 안으로 들여 보내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무 흔적이나 상처도 남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해하지 말고 조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조각들이 지금 자신의 몸이라는 걸 꾸준히 되새기는 게 좋아.<sup>18</sup> 이해도가 높으면 훌륭하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게 이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거지.

- 우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법한 물건으로만 변신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무 에너지도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 같은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변신할 수 없어. 달리 말하면 자동차로 변신하면 지속적으로 연료가 필요해질텐데, 보통 식사를 하는 걸로 대신할 수 있지. 연료가 떨어지면 아마 강제로 인간 형태로 돌아올텐데, 이러면 많이 곤란해질테니 식사를 꾸준히 해 줘야겠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변신한 사례가 아직 많진 않아서 앞으로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해.<sup>19</sup> 혹시 흥미로운 걸 찾았다면 나한테 알려 줘!

-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말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무생물이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갖춰 두는 게 좋아. 이를테면 공으로 변신한다고 하면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무게추를 뒤편에 공이 튕기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녀들이 자기를 찾아 주길 바랄 수 밖에 없는데,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아? 미리 준비한다고 손해 볼 건 없을 거야.

[A:5] 다음은 "신사에서의 생활"이라는 부제에 뒤따르는 내용이야. 다음 내용을 커버해 줘:

---

<sup>16</sup>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변신을 남한테 보여도 무방하다면 아무래도 상관 없는 얘기가 되기에, 무녀의 능력을 악용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가이드에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지만(명아가 안다는 보장이 없거나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신에 의해 무생물의 모습으로 영원히 고정되는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sup>17</sup> 이게 가능해지면 짝이 된 무녀들끼리 서로의 옷으로 변신한 뒤 자신을 서로의 분신에게 입힐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기획 의도가 희석되지 않을까.

<sup>18</sup> 편의상 이 순서로 서술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반대로 "깨진 조각 대부분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그 조각들이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걸 되새기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 한다는 게 정확한 설명이다.

<sup>19</sup> 이것이 무녀학maidenology의 시작이라.

- 신사에 보면 정말로 아름다우면서도<sup>20</sup> 연륜이 느껴지는 언행을 하시는 무녀님이 계실텐데, 그 분이 큰 무녀님이야. 정확히는 큰 무녀님은 이 신사 건물 그 자체시기도 해(우리가 보는 큰 무녀님은 그분의 분신이야). 큰 무녀님은 이 신사의 첫 무녀시자 가장 오래 사신 분이니까 궁금한 게 있고 다른 무녀들도 모르면 그 분께 여쭙 보면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 지금 입고 있는 무녀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그 무녀복은 경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몸의 일부지만 마치 허물을 벗듯 벗는 건 가능해. 물론 벗은 무녀복은 좀 있으면 사라지지. 다시 무녀복을 입고 싶다면 강하게 마음 속으로 원하면 어느새 다시 생겨나 있을 거야. 무녀복은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사라지니까, 나갈 거면 미리 경계 안에서 무녀복을 벗고 옷을 입도록 하자.
-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는 식사나 수면이 필요 없는 몸이지만, 인간 시절처럼 식사나 수면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이걸 딱히 무녀가 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지만. 식당과 침실은 본당 옆에 붙어 있으니까 확인해 봐.
- 우리 무녀들은 빛의 무녀님 덕분에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어. 텔레파시는 네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스스로는 어디 있는지 모를 때도 사용 가능하니까, 긴급한 상황일 때는 걱정 말고 텔레파시로 상황을 알려 줘. 물론 너무 많은 사람한테 동시에 텔레파시를 보내는 건 머리가 쉬이 아파지니까<sup>21</sup>, 미리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무녀들을 알아 두면 큰 도움이 되겠지?

[A:6] 다음은 "바깥 세상과의 관계"라는 부제에 뒤따르는 내용이야. 다음 내용을 커버해 줘:

-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현실 세상의 일부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법도를 존중해야 해. 우리의 존립 기반을 흐뜨리지 않는 한 맞서 싸워서 안돼. 대표적으로, 이 신사 부지는 법적으로는 바깥 기준으로 충분히 젊으면서 현명한 무녀가 대대로 양도받아 왔어. 이 책을 쓸 시점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루아가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언젠가는 이 책을 읽는 무녀들도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지도 몰라.
- 이미 새 이름, 즉 무녀명을 사사받았을텐데, 신사 안에서는 그 무녀명을 쓰지만 밖에서는 부득이하게 본명을 써야 할 수도 있어. 양해 부탁해. 혹시 어렵다면 미리 다른 무녀들에게 말해 주면 방법을 찾아 줄거야.
- 우리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해. 특히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핸드폰 등이 종종 필요할텐데, 그럴 때는 나(명아)한테 오면 내가 변신해서 해결해 줄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쓰진 마. 아쉽게도 내 몸은 하나 밖에 없거든.
- 바깥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의 비밀이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해. 사실 우리들이야 들켜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 문제는 세상이 발각 뒤집힌다는 데 있지. 종교적 신념이 박살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막후에서 조용히 균형을 조율하는

<sup>20</sup> 사실 본문에서는 큰 무녀님의 모습이 묘사된 적이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답다는 단서를 달아서 누가 봐도 큰 무녀님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게 하려 하였다.

<sup>21</sup> 그룹 채팅의 종단간(E2E) 암호화가 보통  $O(n^2)$  연결을 필요로 하여 대단히 어려운 것에서 착안한 설정. 그 밖에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체 메시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조심하자. 만에 하나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면, 먼저 큰 무녀님께 텔레파시를 보내서 지해를 요청하는 게 좋아.

[A:7] 다음은 "마치며"라는 부제에 뒤따르는 내용이야. 다음 내용을 커버해 줘:

- 또 뭐가 빠졌을까, 아 신사 경계 안에 무녀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 오지 않게 조심해. 들어 오면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니까 말이야. 보통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경계 바깥으로 보내지만,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애초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좋아. 경계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편지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야.

- 우리가 맡은 일은 영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즐겁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의 새로운 일들에도 가끔씩 귀를 기울이면서,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무녀 생활을 해 봐. 그리고 혹시 몰라. 너희 뒤에 새 무녀들이 들어 오면 그 무녀들한테서 신선한 자극을 얻을 수 있을지도?

- (이하 마치는 말)

## 외전: 한아의 주전자

[B:1] 외전 격으로 다음 내용을 소설로 작성해 줘. 루아가 큰 무녀님이 차를 마시는 것을 자세히 보니, 주전자를 가져다가 차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용기를 가져 와서 주전자로 차를 따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잔으로 따르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주전자가 뭐가 있느냐고 묻자 큰 무녀님이 그러고 말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하려면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텐데 괜찮겠니? 하고 확인을 받은 뒤 그러겠다고 하니 그럼 차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하자면서 잔을 하나 더 건네.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소설화하면 되겠어.

[B:2] 큰 무녀님의 회상이 시작되는데 삼인칭 서술은 바꾸지 말고 유지해 줘. 지금으로부터 700여년 전, 그 때는 무녀들이 지금보다 수가 훨씬 많았어(수백명 수준). 지금은 무녀들이 신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이지만, 그 때는 영감이 많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영감이 있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무녀가 되겠다고 하면 안 받아 줄 이유가 없었거든. 신사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이 훨씬 많아야 했어. (지금의 신사 부지는 그 때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 건물에 비해 빈 공간이 훨씬 많아.)

[B:3] 회상을 계속 이어 줘. 그리고 혼란의 시기가 찾아 와. 얼마나 혼란했냐 하면 그 결과로 이 땅의 나라가 새로이 세워질 정도였어(루아는 이걸 듣고 이게 조선 건국에 해당한다는 걸 바로 깨닫고, 지금 얘기가 고려 후말의 혼란한 정세를 가리킨다고 추론해). 자진해서 찾아 온 무녀들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절에는 신의 뜻을 잘 받들어 모셨지만, 혼란한 때에는 무녀의 강력한 힘을 악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던 거야. 이에 무녀의 변신 능력에는 사물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루아가 되묻자,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그래야 하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악용하겠다고 하면 이해 없이 혼란을 일으키는 건 어렵지 않다고 답을 들어서

루아가 그 가능성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필요해. 어쨌든 한 무녀가 그런 유혹에 빠지고, 한 사람이 그리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자 둘이 더 빠지고, 넷, 여덟, 그렇게 순식간에 대부분의 무녀가 유혹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해.

[B:4] 무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큰 무녀님 곁에 남아 있던 건 서리라고 하는 젊은(당시 150세 안팎이던, 이 숫자는 소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말 것) 무녀였는데, 이 무녀는 직관적으로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의 원리를 파악하여 정확히 복제하는 게 가능했던, 이해도 면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던 무녀였어. 그런 서리였으니 이해도를 무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던 다른 무녀들에게 반감이 갈 수 밖에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른 방향의 유혹에 시달리곤 했지. 무녀들은 그 강력한 힘 탓에 전면으로 나서면 안된다는 중요한 원칙이 비록 그 의도는 좋았지만 깨질 수 있었던 거야. 이 유혹에 대해 큰 무녀님과 서리가 서로 작게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마지막에 있어야 하고, 두 사람의 대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큰 무녀님의 무녀명인 "한아"가 노출되도록 해(그 이후로도 서술 중에는 "큰 무녀님"이라는 호칭을 유지하되, 대화에서는 그 이름을 쓰도록 해). 아직 주전자에 대한 내용은 나오면 안돼.

[B:5] 그 날 밤 서리는 한아를 떠나. 서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저 안녕을 바랄 뿐이었는데, 몇 달 뒤 서리와 신사를 떠났던 다른 무녀들이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서리는 그 뒤로 민중을 모아 무력 집단을 만들어 민초들을 지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다른 무녀들은 다른 무녀들 나름대로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가 사람들의 지혜에 반격을 당해서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이었어. 큰 무녀님은 그들이 곧 신에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직감하고 신의 목소리를 대리해서 그들을 책망해. 서리는 서리만 따로 책망하고. 그러나 이들은 지금껏 신의 형벌을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형벌의 진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어.

[B:6] 이윽고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는데, 서리를 제외한 모든 무녀들에게 있어서 이 형벌이란 전신이 모래알이나 흙과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변화된 채 세상에 흩뿌려지는 것이었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완전히 인식할 수 없기에, 의식은 있어도 영원히 세상을 고정된 모습으로 떠돌아 다녀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지. 순서상 마지막에 형벌을 받게 된 서리는 그 함의를 깨닫고 몸서리치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것임에 눈을 질끈 감는데, 서리는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 이유만큼은 참작 가능했기에 영겁의 형벌을 면하고 차를 담고 따라 보내는 주전자가 되어 속죄하라는 판결을 받아. 강제 변신 직전에 신의 관대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서리의 모습을 묘사해 줘. 신의 목소리로 한아는 "아흔 달이 아흔 번 차고 이지러지는" 시간동안 그 형벌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를 가리키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면서 그대로 전하는 큰 무녀님의 모습까지를 설명해.

[B:7] 루아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영겁의 형벌이라는 것이 자신이 들은 것 이상으로 더 끔찍한 것이라는 데 경악하고, 지금의 무녀 집단이 그 때 완전히 사라진 뒤로 서서히 재건된 것임을 짐작하게 돼. 아린이 큰 무녀님에 비해 훨씬 젊은데도 큰 무녀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조선의 건국과 비슷한 시기일테니 650세 안팎이겠지?)



이유도, 그 재건된 무녀 집단의 첫 무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도 말이야. 큰 무녀님을 찾아 뵈려다가 열떨결에 이 얘기를 들어 버린 명아가, 세상에는 인류 집단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뒤에 지금의 규모로 다시 재건된 것이라는 설<sup>22</sup>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짐작하는 것도 표현해 줘(아직 두 사람은 명아를 눈치채진 못했고, choke point<sup>23</sup>라는 표현을 쓰진 마). 주전자를 쓰다듬으면서 왜 이 주전자를 계속 곁에 두는지 알겠느냐고 묻는 큰 무녀님의 모습까지를 소설로 써 줘.

[B:8] 명아가 자신을 밝히면서 의도치 않게 지금까지의 얘기를 모두 들었다고 사과하고(이에 큰 무녀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만류함), "아흔 달이 아흔 번 차고 이지러지는" 시간은 음력으로 90×90 = 8100개월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언급해. 이 시간을 양력 해로 변환한 뒤, 지금까지의 얘기가 1380년대 즈음이라고 추정하고 계산을 해 본 명아가 만약 추정이 맞다면 이제 그 형벌이 거의 다 끝났을 시점이라는 걸 알려 주고, 큰 무녀님이라면 형벌에서 풀려난 서리에게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 줄 거냐고 물어. 이에 큰 무녀님은 본인이 옆에 있는데 이걸 지금 물어 보면 어찌냐는 거냐는 작은 핀잔을 하면서도, 그간 그리웠고 너와 다시 함께 할 때를 고대했다면서 꼭 안아 줄 거라는 답을 하는 것으로 문단을 마치도록 해.

[B:9] 그 다음 날, 큰 무녀님이 무녀들의 습관대로 잠을 잔 뒤,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옆에 마침내 형벌에서 풀려난 서리가 함께 누워 자고 있는 걸 깨닫고, 명아의 계산이 맞았구나 작게 생각하면서 미소지으며 아직 자고 있는 서리를 안아 준 뒤 명아가 썼다는 무녀 생활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에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줘.

## 〈무녀 생활 가이드〉에 대한 서한

[C:1] 마지막으로 무녀 생활 가이드에 대해 서리가 명아에게 보내는 피드백을 쓸 거야. 서리는 실제로는 아린보다도 더 나이가 들었지만 무녀 생활 자체는 아직 신참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무녀 생활을 더 오래 한 명아를 선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처럼 형벌에서 벗어난 무녀를 위한 내용은 왜 없느냐고 불평하고 좀 더 다양한 독자층을 고려해 달라는 엉뚱한 말을 꽤 긴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야. 다행히도 주전자가 되었던 사이에 한글과 현대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문판을 쓸 필요는 없다는 사족은 덤. 그래도 어쨌든 현대 한국어를 직접 쓰는 건 처음이므로 외래어는 쓰지 말고 한국어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도록 조정해 줘(애초에 "가이드"가 외래어이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으나 "안내서"라는 의미라고 짐작하였다는 발언도 있어야 해). 현대 한국어 화자가 쓸 법한 농담이나 드립도 피해.

<sup>22</sup> [토바 대재앙 이론](#)을 의도했으나, Gemini가 대홍수 같은 걸로 해석한 듯 하다. 여튼 몇백년 전 일은 아니다.

<sup>23</sup> 무녀의 숫자를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도중에 사용한 용어여서 튀어나오는 걸 막아야 했다. 참고로 이 시뮬레이션에서 결론을 내린 (그리고 내가 동의한) 2038년 시점 무녀 수는 30명대 후반. 맞춘 분이 있을까?

이 저작물은 2025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추가로 11일에 Gemini 2.5 Flash 대형 언어 모델의 출력을 바탕으로 큐레이션, 교정 및 기타 결정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Gemini 2.5 Pro 대형 언어 모델이 자기 평가를 위해서만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글 Gemini API의 이용 약관](#)에 의거하여 구글은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미국 저작권청의 2025년 저작권성 리포트](#)에 근거하여 AI로 생성한 텍스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나 창작을 보조하는 목적과 같이 인간의 개입이 분명한 텍스트는 저작권법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학습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기존 저작물들로 인한 저작권 논란을 존중하여,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소한으로만 행사됩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CC-by)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전문은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legalcode.k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